달마 for Windows 95
사찰 종무 관리 프로그램
사찰 전산화의 선두 기업 아란타 (02)3142-0108

현대불교

人蔘의 약효!
원비-디®

회장 노대행/발행인 겸 편집인 김광삼/논설고문 고은/편집국장 최정희/인쇄인 김규석/등록번호 다-3379/㉾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대표전화 737-8881/편집국 722-4162 FAX 737-0698/광고국 737-0692/구독신청 737-8881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42년(서기 1998년) 11월 11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제 197 호

"염주가 필요하신 분은 얘기하세요. 망가진 염주도 손질해 드려요"

경기도 분당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강부동씨(서울지하철법우회 회원 · 지하철기관사)는 시간이 날때마다 염주만드는 일에 열중한다. 이렇게 만든 염주가 올해만 해도 3천개가 넘는다.

9년간 3만여개의 염주를 무상보시한 강씨는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더욱 고마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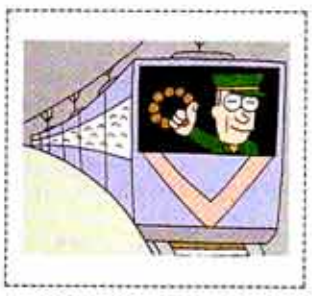
작은 실천 큰 기쁨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강씨는 망가진 염주는 수거, 고쳐서 나눠주기도 하고 새로 만든 염주를 단체나 절에 보내주는 것은 물론 군부대나 사회복지시설에도 기증한다. 이렇게 무상보시한 염주가 9년간 3만여개.

특히 강씨는 군부대를 찾아 장병들을 위문하고 포교하는 심우회가 봉사활동을 할때마다 동참하여 노력봉사를 하는 것은 물론 장병들에게 아버지가 끼워주는 염주보시행사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다.

염주 3만개 보시



9년전 독실한 불자였던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강씨는 관악산 삼막사에 나가 불심을 키웠다. 그러던중 어머님 은혜에 보답하고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염주만드는 법을 배워 보시행을 실천했다.

강씨는 또한 삼막사가 매달 1회 어려운 이웃과 노인 1천명에게 보시하는 국수공양행사에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 있다.

강씨는 "옛날부터 스님이 포교하다가 길에서 열반하면 거기에서 율무나무가 자라났다는 얘기를 듣고 감명을 받았었다"며 "보시하는 자체가 내게는 큰 기쁨으로, 앞으로도 계속하겠다"고 말한다.

김원우 기자(wwkim@buddhapia.com)

불자 방송모니터 기초교육

방송에 의해 불교가 왜곡되거나 편파적으로 다루어지는 것은 아닌지 지켜봐야 합니다. 현대불교와 보리방송모니터회는 불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바르게 행사하기 위한 '불자를 위한 방송수용자 기초교양 교육'을 마련합니다.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일 시: 11월 24일(화) 10:00~16:00
장 소: 녹수청산
참가비: 1만원(교재, 점심 제공)
신 청: 보리방송모니터회(02-712-5812, 조채희 간사)

기로에 선 조계종 선거

조계종 제29대 총무원장 선거가 현행법대로 치러질 것인가 '종정교시'를 근간으로 한 초법적 상황에서 유보될 것인가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4일까지 후보등록을 마친 7명의 후보들은 종책을 밝히며 예정된 선거 일정을 밟아가고 있다. 그러나 월주스님의 '3선 공방'이 두차례에 걸친 '종정교시'와 11일 승려대회로까지 확산되고 있어 선거를 둘러싼 두 갈래 길이 형성되고 있다.

제29대 총무원장 후보 7명 등록

'화합종단' 등 종책발표…12일 투표

기호 1번	월주스님
기호 2번	지선스님
기호 3번	월탄스님
기호 4번	설조스님
기호 5번	법열스님
기호 6번	대우스님
기호 7번	종후스님

'월주스님 사퇴요구' 또 종정교시

"11일 전국승려대회 소집하라"

7명의 후보들은 후보등록에 때맞춰 종단 안정과 미래지향적 불교상 구현에 초점을 맞춘 종책들을 발표했다.

기호1번으로 등록한 월주스님은 지난 4년간 추진해 온 각종 사업들을 토대로 보다 안정적인 종단의 기틀을 다지는데 종책의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개탈음'의 사회화 운동'의 지속 추진과 중앙승가대 이전불사의 조속 완수를 비롯 다섯가지의 큰틀을 제시했다. 기호2번에 등록한 지선스님은 종단 내부의 역량을 결집해 변화하는 종단상을 정립해 나가겠다는 청사진을 밝히고 있다. 공의제도를 통한 종단운영을 약속한 지선스님의 종책은 총무원장 독단에 의한 종무행정 체계를 벗어난다는데 큰 힘을 싣고 있다. 기호3번 월탄스님의 공약은 미래불교를 위한 교육개혁과 화합종단 구현으로 요약된다. 사회로부터 존경받는 승가상의 확립이 종단 안정과 불교발전의 근간이라는 점을 부각시킨 것.

설조스님(4번)과 법열(5번), 대우(6번), 종후(7번)스님의 종책도 종단의 안정과 화합에 기조를 두고 있지만 제도개혁과 위계확립등 개혁의지가 반영돼 있다.

그러나 12일 선거가 예정대로 치러져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 가운데 11일 승려대회의 강도에 따라 선거가 유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않다.

4일 종정교시봉행위원회가 개최한 종정교시 봉행법회에 이어 6일 월하스님이 두번째 '종정교시'를 발표했다. 월하스님은 6일 통도사에 모인 8명의 원로의원 스님들과 간담회를 갖고 월주스님의 후보사퇴를 직접적으로 촉구했다. 10일까지 사퇴하지 않을 경우 11일 승려대회를 개최하라는 의견도 내놓았다. 종정교시를 봉행하는 차원에서 열릴 11일 승려대회는 초법적 힘을 토대로 월주스님의 후보사퇴를 강력히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월주스님은 이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로 등록을 받은 상황에서 법대로 선거가 치러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월주스님 선거대책본부는 월하스님의 교시가 발표된 직후 입장을 표명했다. 선거대책본부는 11일 승려대회를 "정상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종헌종법 체계를 깨뜨리는 행위"로 간주하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정해진 일정에 따라서 평화적으로 선거는 치러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선스님 진영도 선거는 법대로 치러져야 하지만 월주스님의 3선에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이어서 종정교시를 받든다는 차원에서 승려대회는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11일 승려대회가 이번 선거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기사 3면〉

임연태 기자(ytlim@buddhapia.com)



'종정예하 교시봉행 정진대법회' 4일 오후 조계사에서 6백여 사부대중이 모인 가운데 '종정예하 교시봉행 정진대법회'가 봉행됐다. 이날 법회에 참가한 대중들은 10월26일 발표된 종정교시를 받들어 총무원장 3선을 저지하고 종단의 제2정화를 이룰 것을 결의했다. 〈관련기사 3면〉

고영배 기자(ybgo@buddhapia.com)

조계종 12대 종회 10일 개원

조계종 제12대 중앙종회가 10일 오전 10시 조계사 대웅전에서 개원된다.

개원종회에 이어 종회는 제135회 정기회를 15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한다. 최연장자가 임시의장을 맡아 진행하는 정기회에서는 종회의장 선출과 사무처장 인준 각 상임분과 위원 선출 등 새 종회 골격을 다지기 위한 안건들이 주로 다뤄진다. 또 99년 예산 승인과 포교원장 인준등 현안도 다뤄진다.

제7차 국난극복 참회대법회

대참회 관음예문 연비

16일 태고종 선암사서…대각국사 다례도

한국불교계를 대표하는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주요 7대 종단이 주관하는 국난극복을 위한 참회대법회를 전국을 순회하며 열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7차 참회대법회로 태고종이 주관해 태고총림 선암사에서 관음연비 대참회 연비의식을 장엄하게 봉행합니다.

나라가 어려울수록 지계정신을 더욱 다졌던 선조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관음연비의식을 갖는 한편 대각국사 다례도 함께 모시는 이날 법회는 오늘의 경제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게 할 것이며, 불자로서는 뜻깊은 수행의 과정이 될 것입니다.

전국 2천5백여 태고종 말사에서 1만여 불자들이 참여하는 이번 법회는 계를 지녀 지킴으로, 국난의 원인이된 업장을 소멸하고 새롭게 도약의 의지를 다지고자 합니다. 사부대중 여러분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 일시: 1998년 11월16일 오후2시
- 장소: 태고총림 선암사
- ※대법회 실황 생중계: 불교방송(101.9Mhz) 11월16일 오후2시~2시55분
- ※녹화중계: 불교tv(ch32) 11월24일 오전11시~11시50분

주최: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주관: 태고종 총무원
후원: 국민회의연동회 · 자민련불자회 · 한나라당불자회 · 군승단 경승단 · 불교방송 · 불교TV · 현대불교신문사

불교문화 체험기행

11월 불교문화 체험기행은 속리산 법주사, 흥덕사지 고인쇄박물관 등을 찾아갑니다.

이번 기행에서는 현존하는 국내 유일의 목조 5층탑인 팔상전, 쌍사자석등, 세계최대 규모의 청동미륵대불 등으로 널리 알려진 법주사를 참배합니다. 또 세계최초의 금속활자를 제조한 흥덕사가 있었던 곳으로 인쇄술의 발달 과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청주 고인쇄 박물관에서는 우리 선조들의 슬기를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11월 "금속활자를 통해 본 선조들의 슬기"

'법주사 · 흥덕사지(고인쇄박물관)'

◇출 발: 11월15일(일) 아침7시 조계사 앞
◇회 비: 3만원(점심 제공, 박물관 입장료 포함)
◇접수처: 현대불교신문사 (02)737-8881, 722-4162 혜초여행사 (02)722-3900
◇은행계좌: 조흥은행 322-04-22146O(선정호)
※ 11월로 불교문화 체험기행이 막을 내리니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최: 현대불교신문사 주관: 혜초여행사 협찬: 일양약품

주지 취임식대신 노인잔치 23면
조계종 총무원장 후보들 주요종책 3면

大韓佛教曹溪宗

전국승려대회 개최 공고

현하 중단의 혼란을 야기한 송월주 총무원장의 3선에 대하여 중정예하께서는 준엄한 교시를 내리셨습니다.
이에 중정예하의 교시와 원로 대덕 스님들의 뜻을 받들어 아래와 같이 전국승려대회를 개최합니다.
전국 제방에서 수행정진 하시는 사부대중은 제 2 정화불사에 동참하시어
벼랑 끝에 서 있는 종단을 구하는 데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 일 시 : 불기 2542년(1998) 11월 11일 오후 2시
- 장 소 : 조계사 대웅전
- 문 의 : 전국승려대회 준비위원회 사무국 ☎ (02)734-8350~7

대한불교조계종 전국승려대회 준비위원회 공동위원장 성수 · 일타 합장

사 설

조계종 제12대 종회

조계종의 제2기 개혁종단을 이끌어 갈 제12대 중앙종회가 출범했다. 지난 10월 29일 선거가 완료되어 78명의 중앙종회 의원이 선출됐고, 10일 개원식을 갖는다. 개원과 함께 열린 제135회 정기 중앙종회에서는 새 중앙종회 의장과 부의장, 각 상임분과 위원장을 선출하게 된다.

제12대 중앙종회 의원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역할이 기대된다. 돌이켜 보면 지난 제11대 중앙종회는 우리 종도들의 기대를 충족시켜 주지 못한 아쉬움을 남기며 임기를 채운 것이 사실이다. 종회는 성원미달로 열번이나 유회되고, 급기야는 해산론까지 제기되었지만 끝까지 좋은 모습은 보여주지 못하였다. 개혁종단 초기의 개혁정신은 실종되었고, 대의기관으로서의 기능도 거의 잃어버린듯한 모습을 보여 주었던 것이다.

이번 12대 중앙종회의 출범은 여러가지 의미를 가진다. 지금 우리는 새로운 세기를 준비하고 새시대를 맞이하여 불교중흥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역사적 전환기에 서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몇가지 당부하고자 한다.

첫째, 종회의원들은 진정으로 사부대중을 대표하여 종회를 이끌어 가겠다는 파수꾼으로서의 새로운 각오가 필요하다. 지난 11대 종회와 같은 모습을 종도들은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승가본연의 자세를 잃지 않고 수행을 통해 꾸준히 갈고 닦아야 한다. 승풍을 진작하고 포교, 역경, 도제양성 등 종단의 여러 과제를 올바르게 실천할 수 있는 종책 개발과 대안 수립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둘째, 종단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올바른 역할과 기능이 필요하다. 우리 불자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 불교계 각계 각층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종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업무집행기구들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비판하는 기능도 소홀해서는 아니된다. 이러한 일을 수행하는 데는 공정성과 엄정성이 생명임을 명심해야 한다.

셋째, 늘 화합승가의 모습을 잃지 말고 본래의 부처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아무리 대의 민주적인 종회 운영 방식일지라도 세속적인 의회기구와는 무언가 달라야 한다. 반목과 갈등은 종단의 풍토를 흐리게 하고 종단발전을 해치는 씨앗이 된다. 중앙종회의 출범과 동시에 사부대중앞에서 종회의원 모두가 함께 서약하면 좋을 것이다.

넷째, 새로운 세기, 21세기의 국가와 사회 그리고 지구촌에 희망을 안겨다 줄 수 있는 대안을 종책에 반영하여 불국정토가 앞당겨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두루 아는 바와 같이 다가오는 21세기는 고도의 정보통신 발달로 인하여 과학 기술문명의 혜택을 골고루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첨단 정보과학사회가 될 것으로 우리는 믿고 있다. 이러한 사회구조의 개편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의 변화와 변혁이 뒤따르게 마련이다. 이 새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한국불교의 역할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 새 시대를 선도하고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온누리에 퍼져서 맑고 밝은 사회를 이루는데 앞장서야 한다.

끝으로 이번 중앙종회는 지난 4년동안의 개혁불사를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종권쟁취나 문중 파벌의식을 과감히 떨쳐 버리고 힘을 합하여 종단의 개혁불사가 정말 여법하게 마무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깨달음의 사회화운동을 통해 불교가 대중을 구제하고 사회에 회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자. 종단발전의 선도자로서 종회의원들이 앞장서 한국불교에 희망을 주고, 중흥의 초석을 마련하길 기대한다.

수요 인터뷰

7차 국난극복법회 여는 태고종 총무원장 인곡스님

"연비의식 통해 국민화합 재확인"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월주)가 주최하고 태고종이 주관하는 국난극복을 위한 참회대법회 제7차 선암사 법회가 16일 관음예문 연비의식으로 열린다. 대참회 수계를 통해 거듭나는 국민적 의지를 다지기 위한 법회준비에 여념이 없는 태고종 총무원장 인곡스님을 만났다.

-국난극복 참회대법회가 이번 6차 법회로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선암사 법회는 전통 연비의식을 봉행하는데 그 의의를 들려주시지요.

△보살계는 중생구제의 서원을 실천하는 불자들이 지녀야할 덕목입니다. 역사상 불교가 꽃피었던 신라 고려조에는 국가차원에서 보살계 수계산림을 설관해, 온 백성이 보살계를 받은 공덕으로 국가가 융성하고 화평하기를 기원했습니다. 계를 지킴으로써 업장을 소멸하고 새의지를 다진다는 바로 그 정신을 오늘에 잇는 것이지요.

-그동안 전국을 순회하며 연 법회를 기반으로 이제는 국민에게 의욕을 심어주려는 것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새출발의 깃발을 드는 것인데 이 시점에서 반드시 짚어져야 할 것은 화합정신입니다. 이번 법회도 지역화합 종단화합 나아가 국민화합을 기원하게 됩니다. 너와 내가 한몸이라는 불교의 동체대비심은 지역, 계층, 종교, 모든 '다름'으로부터 하나로 화합으로 이끌어 줍니다. 화합이 모든 선업의 인자입니다. 동체대비심을 통한 국민화합이 이루어지는 그때는 이미 부처님품안 입니다.

-관음예문 연비의식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관음예문 연비는 대표적인 참회의식으로 과거업생부터 현실에 지은 모든 업장을 참회하고 새롭게 나겠다는 다짐을 하는 의식입니다. 종단의 유일한 총림 선암사에서 방장 덕암스님을 전계대화상으로 국난극복을 서원하는 대대적인 수계법회를 여는 것입니다. 참여하는 불자는 약 1만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법회에서는 부대행사도 많이 추진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선암사 중창조이고 전태종의 중흥조이신 대각국사 의천스님의 913주기 다례도 모십니다. 이날 대각국사 진영을 모시고 봉행하며, 대각국사께서 친히 수하시던 금란가사를 공개합니다. 그리고 제15세 종정이신 보성대종사의 사리를 친견하는 법회도 갖습니다.

위영란 기자(yryul@buddhapia.com)

불상에 분뇨를 뿌리다니…

포항 '정애원' 공사방해 주민들 조직적 훼불

포항시 청계리 주민들이 불교계 복지시설 건립을 반대하며 불상에 분뇨를 뿌린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더구나 주민대책위원장인 윤덕용(47)씨가 교회 집사로 밝혀져 조직적인 훼불을 묵인 뜨는 사주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밝혀져 사실여부에 따라 파장이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청계리 주민 50여명은 10월29일 사회복지법인 열린가람(대표 난승스님)이 포항시 거주 무의탁 노인들을 위한 무료 양로원 '정애원'의 착공식을 거행하려 하자 스님과 신도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며 행사를 저지했다.

또 이들 지역 주민들은 착공식이 열릴 불사현장 진입로에 경운기와 각종 장애물을 설치하는가 하면 신도와 경찰병력에 분뇨와 돌을 던지고 삼존불에 분뇨를 세 번씩이나 뿌리는 등 의도적인 훼불을 자행했다.

이같은 주민들의 반대로 착공식은 예정 시간보다 5시간 늦어진 오후 3시30분경 경찰의 보호속에 치러졌다. 그러나 경찰에 의해 강제 해산 당한 주민들은 앞으로 공사를 계속 저지한다는 입장이어서 난항이 예상된다.

열린가람 이형 부장은 "이번 사건이 공사방해에 그쳤다면 님비현상으로 묵인될 수도 있었으나 비상식적인 훼불행위를 감행해 경찰 조사가 불가피하게 됐다"고 말했다.

포항 북부경찰서는 5일부터 폭력행위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시작했으며, 조사 결과에따라 경북지역 주지스님들의 모임인 '해동회' 등 불교계의 공동대응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열린가람의 무료양로원 정애원 착공식 행사를 저지하는 포항시 청계리 주민들이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한일 불교·철학계 대학 총장들. 앞줄 왼쪽부터 원광대 송천은, 교토물교대 다카하시 코우지, 고마자와대 아메미야 마사아, 동국대 송석구, 용곡대 기타바타케 덴세이, 송석구 총장 뒤가 다이쇼대 무라나카 유우쇼 총장.

한·일 불교대총장회의 준비위 발족

동국대, 승가대, 위덕대, 원광대 등 국내 4개교와 용곡(龍谷)대 등 일본 8개교 불교·철학계 대학 총장은 2~3일 동국대에서 '한일 불교·철학계 대학총장협의체' 구성을 위한 준비모임을 갖고 준비위원회를 발족했다.

3일 열린 총장회의에서 한·일 대학총장들은 협의체 구성에 의견을 같이하고, 오는 2000년 제1회 한일 불교·철학계 대학총장회의를 개최하기 위한 준비위원회를 결성했다. 준비위원회의 대표 간사 학교로는 동국대와 용곡대가 선출됐다. 이에앞서 2일 열린 한·일 총장 강연회에서 동국대 송석구 총장과 용곡대 기타바타케 덴세이 총장은 '21세기 불교계 대학의 역할'을 주제로 각각 강연했다. <관련기사 4면> 김정은 기자

(jekim@buddhapia.com)

조계종-자료 데이콤-비용 이현시스템-기술

불교정보화 '달마넷' 협정체결

조계종(총무원장 월주)은 2일 데이콤(사장 곽치영)과 불교 정보화 '달마넷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상호 협정을 체결했다. 이번 협정에 따르면 조계종은 불교자료를, 데이콤은 비용을, 이현데이타시스템(사장 이찬영)은 정보구축과 운영을 담당한다.

달마넷 프로젝트에는 △불교학 △불교인물 △불교소식 등의 정보가 구축되고 △사찰·기관·단체 △사이버 법당 △불교교양대학 등의 홈페이지가 개설된다. 총 10억여원이 투자·개발될 불교정보는 인터넷·TV 인터넷·전자게시판 등으로 제공된다.

조계종은 올 12월까지 스님과 종무원을 대상으로 정보·통신 교육을 실시한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조계종 포교사고시 11월22일 전국 실시

조계종 포교원에서 실시하는 4회 포교사고시 응시자는 674명으로 지난 해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이번 포교사고시에는 조계사불교대학, 동산불교대학, 동국대사회교육원 등 전국의 35개 불교대학에서 응시했다. 시험은 11월 22일 서울 부산 등 전국 5개 고시장에서 동시에 실시된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고침 지난 196호 2면 성철스님 사리탑 봉안법회 기사중 백련문도회 대표를 '천제스님'으로 고침니다. 또 5면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당선자 명단중 제8교구 법주사를 '직지사'로, 장윤스님은 '4선', 향적스님은 '초선'으로 바로 잡습니다.

풍산한식 동기와 판매및 시공
◆ 서푼짜리 기와때문에 천냥짜리 대들보가 썩어서야?
◆ 사찰기와 재보수 이젠 걱정 없습니다.
천년을 이어갈 가람, 풍산 한식 동기와로 보존 하십시오
전문 시공업체 成源産業 대표 최 대 룡 합장
TEL (02)3663-1737 FAX (02)3664-8216
H.P (011)445-7811 야간 (02)502-7811,7827

현대불교 구독신청
737-8881

현대만평 박구원



언제까지…

총무원장 선거에 즈음한 입장

대한불교조계종 제 29대 총무원장 선거는 새로운 세기를 맞아 종단과 한국불교를 도약시켜 나갈 지도자를 선출한다는 면에서 중차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월 24일 총무원 청사에 대한 폭력점거사태가 발생함으로써 그동안 쌓아온 종단의 안정과 발전적 모습이 크게 훼손되었다. 그 사태를 보면서 책임있는 종도로서의 입장 표명을 더 이상 늦추는 것은 불조와 모든 종도들에게 커다란 죄업을 짓는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이에 우리는 종단의 안정과 화합을 염원하는 모든 종도들의 뜻을 받들어 종단과 불교발전이라는 도도한 역사의 흐름을 지속시키고자,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

- **어떠한 이유에서건 폭력이 재연되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반대하며, 종헌·종법에 의해 지금까지 순조롭게 진행되어온 각종 선거가 11월 12일까지 원만히 회향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

- **모든 후보진영은 인신공격등 상호비방을 자제하고 종단운영방향에 대한 종책제시를 통해 선의의 경쟁을 할 것을 촉구한다.**

- **총무원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은 11월 12일의 선거결과에 흔연히 승복하겠다는 공식입장을 천명해 줄 것을 촉구한다.**

불기 2542년 11월 4일

서명 동참자 명단

1. 본사주지

현근스님(조계사), 정락스님(용주사), 진허스님(마곡사), 법장스님(수덕사), 성덕스님(동화사), 법타스님(은해사), 성타스님(불국사), 성오스님(범어사), 월파스님(통도사), 법조스님(고운사), 도영스님(금산사), 종걸스님(화엄사), 세민스님(선암사), 현지스님(송광사), 혜산스님(선운사), 밀운스님(봉선사)

2. 12대 중앙종회의원

영조스님, 정각스님, 정인스님 법성스님, 평상스님, 현응스님, 지홍스님, 원행스님, 종림스님, 성관스님, 종훈스님, 종하스님, 영담스님, 월서스님, 일면스님, 지현스님, 광복스님, 세영스님, 마근스님, 도완스님, 정념스님, 지명스님, 장곡스님, 종상스님, 설송스님, 근일스님, 진만스님, 법종스님, 대원스님, 정우스님, 혜창스님, 명진스님, 현봉스님(이상 33명)

3. 중진 및 션방스님

도법스님, 수경스님, 신철스님, 현산스님, 인걸스님, 지연스님, 이두스님, 성노스님, 정호스님(이상 9명)

서명 동참자 일동

조계종 총무원장 후보 7인의 주요종책

월주스님 (기호 1번)



안정-원칙 입각 개혁지속

월주스님의 종책은 종단의 안정과 원칙에 입각한 종단 운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지난 4년간 펼쳐 온 '깨달음의 사회화 운동'을 토대로 하는 보살도의 실천도 주요 지표가 되고 있다.

월주스님은 우선 종단 운영의 틀을 다섯가지로 제시했다. 종헌종법의 효율적이고 전향적인 개정을 위한 종헌종법 개정연구위원회를 총무원과 중앙종회 합동으로 구성하는 등 종도들과 함께하는 종단 운영의 다짐이 첫번째다. 종단의 안정과 화합, 신뢰받는 종무기관상 구현, 불법의 호지 선양, 21세기 한국사회를 선도하는 활동적 불교상 구현 등이 총괄적인 틀.

월주스님은 보다 구체적인 종책도 다섯가지 대목으로 밝혔다. 수행과 교육분야에서는 선원에 대한 지원확대와 승가기본교육기관의 핵심적 육성, 승가복지 종합 대책추진등을 약속했다.

행정과 재정 분야에서는 교구본사 주지회의의 정례화를 먼저 꼽았으며 각 종단 주요기관 대표와 교구본사 주지, 제방 중진들이 참여하는 종책협의회 구성도 약속했다.

약력 35년 生. 54년 금오스님을 은사로 득도. 現 조계종 총무원장.

지선스님 (기호 2번)



공의제 실현 종단 대화합

지선스님은 종단의 대화합과 공의제도 실현을 종책의 기조로 삼고 있다. 스님은 중앙종무자문협의회를 구성해 원융적인 종단운영을 실현한다는 약속을 앞세웠다.

이를위해 교구본사주지회의를 정례화하고 중앙종무자문협의회를 구성하며 종단현안에 대한 책임 있는 해결책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이같은 기조 속에서 지선스님은 중앙종무기관의 구조조정과 업무효율화를 통해 인력과 예산낭비의 차단, 종헌종법에 입각한 인사정책 실현 등을 강조했다.

지선스님이 내 놓은 종책의 세부 지침은 7개부분 70여가지. 7개 부분은 △대화합의 종단운영 및 종무혁신 △선불교 중흥 및 교육제도의 내실화, 역경사업의 지원 구조확대 △전법교화 체계및 방법의 일신 △조계종의 정체성을 가진 문화 사회 국제사업을 통한 대중불교 실현 △생산적 자산관리 및 숙원불사의 원만 성취 △새로운 국가정책 및 타종교 정책수립과 시행 △통일시대의 대비 등이다.

약력 46년 生. 61년 석산스님을 은사로 득도. 現 백양사 주지.

월탄스님 (기호 3번)



교육제도등 혁신적 개혁

월탄스님의 종책은 수행가풍을 바로 세우고 교육제도의 혁신적 개혁을 통해 21세기를 준비한다는데 중심축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월탄스님은 8대종책과 6대지표를 밝혔다. 8대종책의 첫번째는 불교의 시대적 역할확대와 사회의 구제와 계도의 선도, 각종 구제사업과 국난극복운동의 실질적 성과 창출, 도덕성회복운동 추진, 지역사회 발전 선도 등이 구체적 실천 내용이다.

종단의 위계질서와 대화합의 개혁의지를 담은 종책에서는 건전한 수행풍토와 종정예하의 위상 회복, 사자상승의 법통확립을 제시했으며 종무행정의 간소화와 본사및 지역중심의 불교 활성화를 위해서는 종무의 분권과 교구본사의 자율성 및 특수성 존중이 핵심.

승가교육의 총체적 전환과 한국불교문화센터, 종합신행타운의 건립, 국제포교 네트워크 구축도 제시했다. 6대지표는 일하고 봉사하는 종단, 위계질서 확립과 화합, 불교위상 고양, 3대목적사업의 연속추진, 재정자립을 위한 생산불교 이룩과 선학원 태고종 문제 등 특별종책도 있다.

약력 37년 生. 55년 금오스님을 은사로 득도. 한국불교발전연구원 이사장.

설조스님 (기호 4번)



본사중심 인사·재정 운용

설조스님은 종책의 근간을 '나라를 구하는 교단을 만들겠다'는데 두고 있다.

구체적 종책안은 관리, 교육(도제양성), 포교, 역경 등 네가지 분야로 나눠져 있다. 스님은 종무관리 분야에서 중앙통제 기능이 점차 약화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교구본사 중심으로 통제와 보완의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비쳤다. 교구본사 중심 통제 시스템 속에서 인사와 재정의 합리적 운용 방안을 찾아 내겠다는 약속이다. 교육분야에서는 중앙승가대학과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지방 승가대학의 교육여건을 점검해 개선 보완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설조스님은 포교의 극대화가 불교 위상강화, 교단 안정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에 천착 포교역량 확대에 종력을 모을 계획을 밝혔다. 이와 관련 스님은 각 사찰 주지스님과 대중스님들에 대한 재교육을 실시해 가람수호와 사회적 역할 강화의 길을 트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종단운영 혁신을 위해 각분야의 전문인들에게 꾸준한 자문을 받겠다고 밝혔다.

약력 31년 生. 48년 금오스님을 은사로 득도. 現 경실련 공동대표.

법열스님 (기호 5번)



위계질서 확립 승가화합

법열스님의 종책은 화합승가 가풍을 세우고 21세기를 향한 힘찬 종단 구현을 내걸고 있다.

출가사문의 화합풍토 조성, 문중 계층간 위계질서 확립, 선별적 대사면 단행, 종정 중심제를 통한 수행가풍 계승, 민족문화를 이끄는 불교 위상의 강화, 교구 자율권과 공정한 인사 행정 등의 과제를 제시했다.

재가 신도에 대한 체계적 교육과 조직의 극대화, 불교종합회관 건립, 불교 방송과 종합병원 설립의 지원등도 내놓았다.

약력: 39년 生. 57년 경보스님을 은사로 득도. 대전 미륵사 주지.

대우스님 (기호 6번)



서원-화합으로 종단정화

대우스님은 종책을 통해 '서원과 화합으로 종단을 정화하자'고 강조했다. 스님의 종책은 교육과 재정 인사문제와 종단 운영에 대한 개선 방안이 주된 내용.

교육부분에서 스님은 상설 종도수행 교육장의 개설을 통해 수행자 교육의 기틀을 다질 것이라 강조했다. 재정부분에서는 삼보정재의 공개운영과 생산성 극대화를 위한 사업기능 강화, 교육 포교 승려노후 복지에 비중있는 재정 편성을 들고 있다.

약력: 46년 生. 59년 운기스님을 은사로 득도. 現 법사불교신문 주필.

종후스님 (기호 7번)



선교양종 수행풍토 조성

종후스님의 종책 기조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양심적으로 일하는 풍토조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스님은 선교양종의 수행풍토 조성과 불교계의 사회복지 활동활성화, 육화합 정신에 입각한 선별적 사면 복권을 종책으로 내놓았다.

약력: 42년 生. 67년 월산스님을 은사로 득도. 現 노적사 주지.

조계종 선거

3선 저지 실현 결의문

●…종정예하 교시봉행 정진대법회가 4일 오후2시 5백여 사부대중이 참가한 가운데 조계사에서 봉행됐다. 종정예하 교시 봉행위원회(공동위원장 일타·성수)가 주최한 이 법회에는 원로의원 정영스님과 월탄 설조 대우 법열 스님등 후보자와 전불련 의장 지원스님등이 참여했다.

당초 사부대중과 함께하는 정진 법회로 기획됐다가 행사명을 바꿔 진행된 이날 법회에서 참가자들은 종정교시를 받들고 월주스님의 3선 저지를 실현한다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또 7일까지 월주스님이 사퇴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9일 승려대회를 개최키로 했다. 그러나 6일 월하종정스님의 교시에따라 9일로 예정된 승려대회는 11일 열릴 계획이다. 법회후에는 22명의 스님들이 조계사 덕왕전에서 월주스님 사퇴때까지를 기한으로 단식에 들어갔다.

종정교시 봉행위 구성

●…4일 열린 종정예하 교시봉행 정진대법회를 계기로 종정예하 교시봉행위원회가 구성됐다. 원로회의 의원 석주스님을 증명으로 일타, 성수스님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봉행위원회는 종정 월하스님의 두번째 교시가 6일 발표된데 따라 11일 전국승려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한편, 월주총무원장 3선반대를 위한 범불교도 연대회의는 당면한 3선저지를 위해 종정교시 봉행위원회와 행보를 같이할 계획이다.

본사 주지모임 종정교시 해석

●…민족문화 수호를 위한 교구본사 주지모임(회장 법장)은 4일 유성에서 모임을 갖고 "종정스님의 교시는 종헌종법에 명시된 조항을 준수하고 화합하라는 뜻으로 사료되는 바 그 뜻을 받아들인다"고 결의했다. 이날 모임에는 10명의 교구본사 주지스님들이 참가했다.

"종헌종법따른 선거돼야"

●…총무원장 후보 지선스님(백양사 주지)은 5일 수송동 선거대책본부에서 특별기자회견을 열어 '총무원장 3선출마 반대 범불교도 연대회의'와의 결별을 선언하고 종단분규를 획책하는 일부후보자와 열빈자들은 참회하고 자중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9일 승려대회는 즉각 취소돼야 하며, 중앙종회 원구성과 총무원장 선거는 종헌종법에 근거해 반드시 치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천승가회 연대회의 탈퇴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의장 청화스님은 5일 '월주 총무원장 3선반대를 위한 범불교도 연대회의'에서 실천불교승가회가 탈퇴한다고 밝혔다. '종정예하 교시봉행 정진법회'가 각 단체간 충분한 논의없이 봉행됐을 뿐만 아니라 해종행위자들이 법회에 동참해 '월주스님 3선 반대운동'에 대한 도덕성과 순수성을 잃었다는 것.

연대회의는 5일 논평을 통해 "실천불교 전국승가회의 탈퇴는 유감스런 일이다"라고 밝혔다.

통도사 간담회의 원로스님들

●…6일 통도사에서 열린 원로간담회의에는 모두 8명의 원로의원 스님들이 참석했다.

참석한 원로의원스님은 벽암, 비룡, 일타, 성수, 도견, 정영, 종산, 청하스님등. 원로의원 스님 가운데 원담, 보성, 지종, 석주스님은 참석하지 않았지만 4일 열린 종정교시봉행정진대법회에서 발표된 종정교시 봉행에 대한 동의서를 근간으로 6일 교시에 대해서도 뜻을 함께 한다는게 월하스님의 입장. 원로의원은 아니지만 화산스님과 도성스님도 이날 간담회에 참석했으며 법장(수덕사) 법타(은해사) 성덕(동화사)스님 등 교구본사 주지스님도 참석했다.

월주스님 진영 입장발표

●…송월주총무원장후보 선거대책본부는 6일 월하스님의 두번째 교시가 발표된 직후 입장을 발표했다.

대책본부는 '종정교시에 대한 입장' 제하의 문건을 통해 "종정의 이름으로 한 후보자, 한 정파의 입장에서서 교시를 내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는 종정스님의 권위에 의지해 정상적인 선거국면을 혼란 속에 빠뜨리려는 불순세력의 사주로 본다고 밝혔다. 대책본부는 또 11일의 승려대회에 대해 "정상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종헌종법 체계를 깨뜨리는 행위"로 간주했으며 이번 선거는 종헌종법대로 치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임연태·도필선 기자 (ytlim@buddhapia.com)



◇조계종 제29대 총무원장 후보초청 토론회가 일부후보가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5일 열렸다.

불교언론인회 불교기자협회 총무원장 후보초청 종책토론회

"선거결과 승복 안할 수도 있다"

월주스님 토론 불참

조계종 제29대 총무원장 후보초청 합동 종책토론회가 11월 5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한국불교언론인회(회장 신광식)와 한국불교기자협회(회장 하춘생)가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지선, 월탄, 설조, 대우스님이 나와 종책을 밝혔다. 박광서 교수(서강대)의 사회로 이은윤 중앙일보 전문위원과 송위지 외국어대 교수, 김성곤 주간불교신문사 주필이 패널로 참가했다.

◆선거 결과에 대한 승복여부

지선: 종헌종법을 위반하고 3선을 강행한 후보의 당선은 승복할 수 없다.

월탄: 부적격자가 종정교시를 무시하고 출마할 경우 재고해 볼 것이다.

설조: 이번 선거 결과 부적격자의 당선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대우: 결과에 대해서는 대중의 중지가 모아진대로 따르겠다.

◆징계스님들에 대한 사면문제가 떠 오르고 있는데.

대우: 종정스님도 교시를 통해 여러번 대사면 당부했다.

설조: 종단분규의 과정에서 징계된 경우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야한다. 대폭적인 검토를 통한 화합의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월탄: 중진, 원로와 종정스님의 뜻을 물어 대사면을 해야 한다.

지선: 종헌종법에 의한 구제의 길을 찾는게 바람직하다. 반드시 대사면의 자리는 마련되야 한다. 임연태 기자

송월주 총무원장 스님께

- 총무원장 3선을 반대합니다. -

존경하는 원장스님

돌아오는 11월 12일 총무원장 선거를 앞두고 3선이다, 3선이 아니다, 서로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면서 조계종 사태는 한 치의 앞을 보지 못하고 검잡을 수 없는 혼란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얼마전 소수의 승려들이 총무원을 강제 점거하는 사태와 봉은사 주지문제로 인하여 각 언론에 보도되면서 재가 불자는 물론 전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주었던 것입니다. 차마 승복을 입고는 창피해서 길거리를 다닐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이 책임이 또한 누구한테 있다고 하겠습니까?

부모형제를 버리고 산문으로 출가한 수행자는 불법을 중생에게 전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 함에도 오늘날 조계종 불교는 중생을 교화 포교하기는 커녕 신심있는 불자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추태만 보여줌으로서 이 땅에 깊이 뿌리내린 불타의 정신은 과연 어느곳으로 가야만 합니까?

불과 4년전 조계사 사태가 발생되었을 때 전세계 불교인들은 한국불교를 이렇게 평하였다 합니다.

다시는 회생될 수 없는 불교라고 말입니다.

이제 **「또다시 제2의 조계사 사태가 발생된다면 우리 모두 자멸하게 되는 것은 두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조계종 불교가 다시는 이 땅에서 회복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스님의 상좌로서 진심으로 스님과 한국 불교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글을 드리는 방법 외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잘못한 것을 잘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효자식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에 한국 불교를 잘 보셔야 합니다. 4년전, 전 총무원 집행부가 무너진것도 3선이였기 때문입니다. 동서고금에 정치사를 보아도 명분없는 체제는 꼭 무너지고야 마는 진리적 교훈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한 생각 버리면 일체가 고요한 것이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한 생각을 일으켜서 온 세상을 어둡고 컴컴한 세상으로 만들려 하십니까. 욕심이 끝이 없으면 번뇌 또한 끝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3선 불출마를 선언하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여생을 보내시며 한국불교 앞날을 위해 비전을 제시해 주십시오.

썩어가고 있는 불교를 어떤 부위부터 칼로 오려내야 하는지 말입니다.

오늘에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조계종 불교는 무엇이 하나가 잘된 것이 있습니까

가장 중요시 해야할 승가의 위계질서가 무너진지 오래이며, 제도 또한 잘 정립되었다고 보십니까? 종교집단으로 본다면 이 지구상에서 가장 존경받아야 할 수행자가 총무원 청사나 난입하고 폭력을 휘두르는 추태를 국민들에게 꼭 보여 주어야만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승가의 정신이 아님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도 스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깨끗하시고 청정하신 그 본래의 마음 말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3선 불출마를 선언하십시오.

1998. 11. 4.

상좌 박 도 오 드림

교차로 승가



행자부장관 감사패 받아

자우 경찰청경승실장(금강사 주지)은 10월 21일 경찰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김정길 행정자치부 장관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노인 그룹홈 경로원 개원

각현 연꽃마을 이사장은 10월 24일 인천시 동구 노인복지회관에서 노인 그룹홈인 경로원 개원식을 갖고 노인잔치를 열었다.



'21세기 제주의 비전…' 심포지엄

시몽 제주불교사회문화원장은 7일 제주그랜드호텔 제이드룸에서 '21세기 제주의 비전과 선택'이란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중고생 합동수계법회

정우 구룡사 주지(btn 사장)는 11월 말 미래불교의 기둥이 될 청소년을 위한 중고등학생회 합동수계법회를 봉행한다.



남북교류 불교입장 발표

종서 조계종 총무원 사회국장은 민주평화 통일자문회의 종교분과 위원회가 10월 30일 주최한 제39차 회의에서 '남북 교류에 관한 불교계의 입장과 제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불교레크리에이션 회장에

송묵 동원정사 주지는 10월 24일 포천 베어스타운에서 개최된 불교레크리에이션 지도자대회 및 임시종회에서 제8대 회장에 선출됐다.



관내 노인초청 위문공연

심산 통도사부산포교원 주지는 10월 31일 포교원 4층 옥상에서 진구청관내 60세이상 노인 5백여명을 초청, 다과회를 열고 위문공연을 가졌다.



백고좌 법회 회향·수계법회

실상 대구 법왕사 주지는 16일 오전11시 칠곡분원 연흥사에서 제9회 백고좌법회 회향식을 겸한 보살계 수계법회를 봉행한다.(053)766-3437

"물질의 정신화로 인간성 회복"

동국대 송석구 총장



오늘의 사회는 국제화 시대·정보화 사회의 도래에 따른 첨단과학시대를 이끌어갈 올바른 인간의 육성을 기대하고 있다. 곧 인류사회가 올바른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불교계 대학이 길잡이가 되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이라고 믿는다.

그동안 물질적 기술주의, 기능적 합리주의가 대량생산·대량판매 등을 통하여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사회를 맞이한 반면, 이에 따른 폐단이 나타나고 있다. 때문에 성장우선 사회에서 인간생활 우선 사회·인간존중 사회를 지향하고 물질의 정신화를 이루어 내야한다. 이처럼 기술·합리주의에서 인간주의로 전환하고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인간주의는 인간중심주의가 아니라 자연과 조화를 갖는 인간, 곧 불교적 인간을 필요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그것은 욕망이 비대한 오늘의 사회에 필요한 도덕성을 제공하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인류사회가 최고의 목표로 하는 것은 자유와 평등의 실현이다. 불교계 대학의 사회적 역할은 이같은 인류사회의 목표를 실현하는데 있다. 평등성을 존중하면서 다양한 기능을 촉진하는 교육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결국 교육의 다양화와 특성화에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는 것이다.

"21세기 불교계 대학의 역할" 주제강연 요지

"연기·무아사상으로 세계선도"

용곡대 기타바타케 총장



앞으로는 대학전입(大學全入) 시대가 도래하여 대학간의 자유경쟁이 격화될 것이다. 곧 대학이 학생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대학을 선정하는 시대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대학은 종래 볼 수 없었던 다양한 학생을 받아 들일 수도 있게 되지만, 동시에 대학의 교육연구의 고도화를 도모할 필요성도 시급해지는 것이다. 이것을 생각한다면 각 대학은 한층 더 건학정신을 선명히 하여 고조시키고, 대학의 개성과 특색을 보다 명백히 하여 이를 사회에 내세워 나가는 것이 중요한 사항이 된다. 불교계 대학은 불교사상을 바탕으로 훌륭한 건학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때야말로 그 특색을 크게 발휘해야 한다.

또 세계종교로서 불교의 독자적인 특성은 평화적 종교, 적응성(適應性)·적합성(適合性)을 가진 종교, 포용성·관용성을 가진 종교라는 것이다. 이러한 특성을 바탕으로 오늘의 불교계 대학은 자체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에 머물 것이 아니라 오늘의 인류사회가 안고 있는 교육개혁의 문제를 선도해 나갈 책무도 가지고 있다. 21세기 사상의 리더 임무는 불교가 짊어지지 않으면 안되며, 불교의 연기·무아·공의 가르침은 세계의 평화와 인류의 복지를 지향하며 강력히 추진되어야 한다.

김정은 기자(jekim@buddhapia.com)

교차로 재가

학술회의 관계자 초청 오찬



손제석 위덕대 총장은 7일 경주 힐튼호텔에서 98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국제학술회의 참석자 및 관계자 전원을 초청, 격려 오찬을 가졌다.

보험업무 '태고' 설립



김철회 태고종 전국신도회 명예회장은 10월 24일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3가 삼창빌딩 6층에 '태고'를 설립하고 현판식을 가졌다. 태고는 국내 11개 손해보험회사와 제휴해 각종 보험을 취급한다.(02)392-6233

청소년단체 지원금 전달



류진수 부산불교신도회장은 10월 26일 부산 코모도호텔에서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98청소년단체 육성지원금으로 대불련 부산지부와 부산불교 중고등학생 지도위원회 등 3개단체에 총 5백50만원을 전달했다.

오스트리아 빈大서 강의



김광규 한양대교수(독문학·시인)는 오스트리아 빈대학 초청으로 11월부터 한학기 동안 한국학과에서 한국현대문학을 강의한다.

日 티벳 아시아회의 참석



최일산 월곡청소년센터관장은 9일 티벳지원그룹 한국대표 자격으로 일본 동경에서 개최되는 티벳지원 아시아 지역 총본부 회의에 참석키 위해 출국했다.

명진스님 입적



동광당 명진대화상이 1일 합천 해인사 길상암에서 원적했다. 세수 60세 법랍 46세.

영결다비식은 5일 법전 혜암 일타 도견 등 해인사 원로대덕스님들과 50여명의 상좌 및 손상좌스님, 재가신도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해인총림장으로 엄수됐다.

스님은 39년 전북 정읍생으로 16세때 신원사에서 영암스님을 은사로 득도했으며, 60년 범어사 금강계단에서 동산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스님은 62년 해인강원 대교과를 졸업한 후 74년부터 중앙종회의원을 두차례 역임했으며, 82년에는 해인사 주지를 맡았다.

혜춘스님 입적



전국비구니회 고문 혜춘스님이 법납 48세, 세납 80세를 일기로 6일 해인사 보현암에서 입적했다. 스님은 1951년 창호스님을 은사로 득도, 52년 해인사 인곡대선사를 계사로 사미니계를 수지했으며 61년 통도사 자운대선사를 계사로 비구니계를 수지했다. 72년 해인사 보현암을 창건, 비구니선원을 개설했다. 85년~95년까지 조계종 전국비구니회장을 역임했으며, 88년~89년까지 목동청소년회관 관장을 맡아 청소년포교에도 기여했다. 스님의 영결식은 10일 오전10시 30분 해인사에서 전국비구니회장으로 치뤄졌다.

"화장문화 보급 앞장"

경기생명나눔회 준비 이광우씨



"거리캠페인을 통해 화장문화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장기기증의 거룩한 뜻을 알리는 큰 성과를 보았습니다."

10월 10~31일 생명나눔실천회(이사장 법장)와 서천사(주지 진석)가 매주 토·일요일 오후6시부터 10시까지 광명시 상가지역 광장거리에서 개최한 '화장문화 확산 및 장기기증을 위한 거리캠페인'을 후원한 이광우(55) 광일새마을금고 이사장.

31일까지 화장문화 찬성 서명자 1천1백68명, 장기기증 서명자 83명 등 연인원 7천여명이 거리캠페인 공연에 참석하는 시민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이씨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장기기증 및 화장문화 확산의 중요성을 실감하고 생명나눔실천회 경기·광명지부를 빠른 시일안에 창립할 계획이다.

김재경 기자

"총람발간·불교행사 대중화"

제주불교총련 새 회장 수암스님



"제주불교 발전과 화합을 위해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월 31일 관음사 포교원에서 개최된 제주불교총연합회 임시총회에서 2대 회장에 선임된 수암스님(태고종 제주종무원장·금붕사주지)은 종단 및 사찰과의 단합을 강조했다.

앞으로 2년간 제주불교를 이끌 스님은 임기 동안 제주불교사를 정립시킬 수 있는 총람을 발간한다는 복안이다. 이를위해 1차 사업으로 각 종단과 신행단체 등 불교관계의 모든 자료를 수집 정리한다는 계획이다. 또 스님은 "괄관대재 등 각종 불교행사를 한라문화제 등 각종 지역 문화축제와 연계해 불교행사를 정례화 시킬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스님은 현재 태고종 제주종무원장, 제주지방경찰청 경승실장 등을 맡고 있다. 김중근 기자

(gamja@buddhapia.com)

- 종단의 안정과 화합은 지선스님이어야 가능합니다 -

끊이지 않는 혼란으로 상처받아 온 **조계종단의 자존과 위상을 살리겠습니다.**

- 월주스님의 3선은 걸잡을 수 없는 혼돈만을 가져옵니다.

종도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3선출마를 강행한 월주스님의 당선은 그 시시비비를 떠나 여타 종권 추종세력의 반발과 불복, 심지어는 세속적 송사까지 가세될 수 있는 혼돈의 4년만을 가져올 것입니다.
종정예하는 물론 원로스님들과 전 종도들의 뜻을 무시하며 3선을 강행하고 있는 송월주 총무원장은 후보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혼돈과 무질서! 29대 총무원을 그렇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 지선스님! 왜 그가 종단 안정의 적임자인가?

첫째, 지선스님은 정화세대와 개혁세대를 잇는 세납 53년, 법납 37년의 튼튼한 허리입니다.
정화세대 스님들의 종지선양에 대한 굳은 의지를 익히 알고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하는 스님들의 바램을 몸과 마음으로 체험한 지선스님이기에 편향없이 전통과 미래를 조화시킬 수 있는 세대간의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세대가 교체되는 시기가 아니라 종지와 종풍을 발전적으로 승화시킬 '세대 이전'의 과도기입니다. 그래서 화합의 디딤돌, 지선스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둘째, 총무원장을 3임까지 하려는 개인적 욕심이 현재 종단 혼란의 근원임을 간파하고 지선스님은 총무원장 단임을 공약했습니다.
4년을 오직 종단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후회없이 총무원을 떠나겠다는 '단임의지'는 4년 뒤에 치러질 제30대 총무원장 선거를 종책대안의 건전한 각축장으로 승화시킬 것입니다. 지선스님의 단임 4년은 소란없는 종권교체의 선례를 남길 것입니다.

셋째, 지선스님은 종책을 근본으로 한 종단운영을 실천할 자세와 능력을 갖추었습니다.
지선스님의 종책은 다른 사람에게 빌린 것이 아닙니다. 많은 스님들과 숱한 날을 지세우며 꼼꼼히 챙긴 7개 분야 70대 공약! 그래서 지선스님의 종책은 '자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종도들이 건의하는 종책에 대해 토론을 마다하지 않는 역동적인 총무원장!
각계 지도층과 타 종교인과의 모임에서도 회의를 주도하고 지도력을 발휘하는, 소신있고 능력있는 총무원장!
지선스님은 할 수 있습니다.

넷째, 지선스님은 21세기 한국불교의 비전을 제시하고 실천할 수 있는 경험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십년간의 사회활동을 통해 국민적으로 검증된 지선스님의 도덕성과 사회지도력은 새로운 시대 우리사회의 중요한 자산입니다. 이를 토대로 지선스님은 21세기 한국불교의 비전을 제시하고 우리사회의 정신문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건강한 한국불교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힘 있는 불교, 사회를 이끌어 가는 불교!
지선스님은 해낼 수 있습니다.

종단의 어른을 중심으로 모시며, 종책을 바탕으로 종단을 운영하고,
21세기 한국불교의 비전을 실천해 나가는
제29대 단임 총무원장, 지선스님!
그 진솔함 앞에 누가 명분없는 혼란을 조장하겠습니까?

조계종 제29대 총무원장 후보 지선스님 선거대책본부

우리 모임에선

'성원' 정상화 기원법회

성원그룹 화의신청 서명운동 본부(본부장 혜총, 부산감로사 주지)는 2일 부산 국제문화센터 4층 대강당에서 성원그룹 정상화를 위한 기원대법회를 봉행하고 성원그룹의 화의신청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제주 약천사 회주 혜인스님을 법사로 초청해 진행된 이날 법회에는 8백여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한편 그동안 진행된 성원살리기 서명운동에는 전국에서 18만명이 동참했다.

법륜회 장애인 차량봉사



광림사 법륜회(회장 신광욱)는 10월 22일 15명의 지체부자유자와 함께 양평 용문사로 성지순례를 다녀왔다〈사진〉.

법륜회는 회원택시 10여대를 동원하여 광림사 신도들과 함께 거동이 불편한 지체부자유자 15명을 휠체어에 태워 사찰순례와 법회를 봉행하며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광동학원 교직원법회

광동학원(이사장 일면스님) 교직원 합동법회가 26일 남양주 봉선사에서 1백여명의 교직원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법회에서 화암스님은 법문을 통해 "모든 생활은 마음자리에 따라 보는 눈도 달라지기 마련이다"며 "종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인 만큼 더욱더 신행에 힘써 정진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심우회 육군교도소 위문

심우회(회장 김명원)는 1일 장호원 육군교도소를 방문하고 수감장병들을 위문했다. 이날 행사는 위문법회에 이어 2부에서는 위문공연과 다과회를 가졌다.

국민회의 부산·경남 연등회

실직자 생활관 개원



◇국민회의 부산·경남 연등회는 1일 부산 연산5동에 실직자생활관을 개원했다.

50명 수용규모…취업상담 · 건강진료
스님 초청법회로 마음 위안 배려도

부산에 1백10평규모의 실직자 생활관이 개원됐다.

국민회의 부산·경남연등회(회장 사상호)는 1일 성오스님(부산불교연합회장) 국민회의 박상규 부총재, 조성준의원등 사부대중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산 5동 우정주차장 2층에 실직자를 위한 생활관을 개원했다.

이날 개원식에서 사상호회장은 "재활의지를 북돋우고 실직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실직자 생활관은 법당과 취침공간 양호실 상담실 등의 시설을 갖춰 50명을 수용하게 된다. 노숙자들은 생활관에서 숙식하며 취업상담과 인생상담을 하고 생활에 복귀하게 된다.

실무자인 김영대씨는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생활하도록 배려할 방침이다"며 "조석예불을 자연스럽게 유도하고 일과 후 스님들의 초청법회를 통해 마음의 안정과 긍정적의 삶의 가치를 형성하도록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경남연등회는 지난 6월부터 매주 일요일 1시 부산역광장에서 실직자들에게 무료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연등회는 무료급식 자원봉사자와 후원자를 모집하고 있다. (051)852-0813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직장·직능법회 활성화 모색

28 · 29일 대표자 연수
전국연합회 결성 준비

직장·직능법회 대표자 연수회가 28~29일 수원 용주사에서 열린다.

조계종 포교원이 주최해 2회째로 열리는 이번 연수회는 전국에서 70여명의 직장·직능법회 대표자들이 참석해 '직장·직능법회의 현황과 과제' 토론회와 운영사례 발표, 직장·직능법회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등으로 진행된다.

조계종포교원 고완수과장은 "경제난으로 인해 직장·직능단체가 침체일로에 있어 활성화가 시급하다"며 "이번 연수회를 통해 전국 직장·직능단체 연합회 결성 준비위 결성등 실직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하는데 역점을 둘 방침이다"고 밝혔다.

접수마감은 11월 25일이며 회비는 2만원이다. (02)720-7060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부산운불회는 10일 창립 10주년 기념법회를 개최했다.

무의탁노인 14명에 생활비

부산운불회 창립 10돌…BBS 후원금도 전달

부산불교운전기사회(회장 백봉도) 창립10주년 기념법회가 10월 29일 코모도호텔 충무홀에서 열렸다.

성오스님(부산불교연 회장) 이윤근 前 부산불교신도회장등 사부대중 5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이날 법회에서 백봉도 회장은 "달리는 법당으로 부처님의 법을 전해왔다"며 "앞으로도 계속 정진하는 불자들이 될 것"을 다짐했다.

부산운불련은 이날 조금순할머니등 무의탁노인 14명에게 총 3백만원의 생활비와 부산불교방송에 후원금 3백만원을 전달했다.

88년 1백50여명의 회원으로 창립한 부산불교운전기사회는 각종 법회를 통한 신심증진과 함께 불우이웃돕기, 자연보호운동, 자원봉사등의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천미희 기자

한국불교언론인회 대구 · 경북지회 창립

한국불교언론인회 대구·경북지회 창립총회가 10월 31일 진제스님, 도원스님과 동화사주지 성덕스님, 신광식 한국불교언론인회장등 1백여명의 사부대중이 참가한 가운데 대구불교방송 7층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총회에서 불자언론인들은 동지적 유대감으로 불법홍보에 앞장서고 올바른 불자의식으로 정진할 것을 부처님전에 다짐했다.

임원에는 회장에 이성순(대구불방 국장), 부회장 이하석(영남일보 논설위원) 전병철(대구MBC 부국장) 이준달(KBS 대구방송총국 부장) 김수봉(대구방송 부장) 문종규(세계일보 부장), 감사 이윤호(현대불교신문 기자), 사무국장 정윤철(대구불교방송 기자)씨 등이 선출됐다.

이윤호 기자
(yhlee@buddhapia.com)



고암대종사 열반 10주기 추모법회

前 조계종 종정 고암대종사 열반 10주기 추모법회가 3일 해인사 용탑선원(도감 순민)에서 봉행됐다. 이날 법회에는 해인총림 방장 법전스님을 비롯 국봉석경 정원 일타 도견 송월 고봉 혜운스님 등 사부대중 5백여명이 참석했다. 맏상좌 국봉스님(80세)은 "전라남도 나주 다보선원에서 수십년간 큰스님을 시봉한바 있다"면서 "큰스님은 계율이 청정하신 율사이자 선사로써 자비심이 남다른 분이셨다"고 회고했다.



수서경찰서 경승실 법당 개원

수서경찰서 경승실(실장 지암·불광사 주지)은 2일 오전 10시 수서경찰서 경승실 법당 개원 및 부처님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지암(불광사 불광법회 주지) 지광(능인선원 주지) 법연(불광사 부주지)스님을 비롯 불광사 능인선원 신도 등 사부대중 5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봉행됐다.

수서경찰서 경승실은 앞으로 정기법회, 상담 등을 통한 경찰포교를 실시할 계획이다.



부산불교방송 제1회 찬불합창제

제1회 부산BBS 찬불합창제가 5일 부산BBS합창단, 관음사 환희합창단, 진각종 유가합창단등 부산지역 9개합창단이 참가한 가운데 부산시민회관에서 열렸다. 부산불교방송(사장 류진수)이 마련한 이날 제1회 합창제에는 5백여 사부대중이 동참하여 찬불가를 통해 신심을 다졌다.

부산불교연합회 성오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찬불가속에 담긴내용은 모두 부처님 말씀의 핵심이다"고 말했다.

제29대 총무원장 선거에 따른 특별기자회견

제29대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를 둘러싼 갈등이 점점 극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송월주 현 총무원장의 무리한 3선 욕심이 근원이 된 종단 내의 갈등은 이제 그 정도를 넘어서 자칫 총무원장 선거는 물론 94년 종단개혁 이후 세워진 현 종단체제 전체가 파괴될지도 모르는 위기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정식 입후보 절차까지 마친 일부 후보자와 멸빈자들이 종정 예하의 뜻을 왜곡하여 종단을 초법적인 상태로 끌고가려는 의도가 점점 노골화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매우 심각한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본인은 제 29대 총무원장 후보 이전에, 바르고 여법한 종단을 세우기 위한 일념으로 94년 개혁불사의 선두에 섰던 종도의 한 사람으로서 현재의 종단적 위기상황에 대한 책임있는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 먼저, 극도로 심각한 혼란상을 보이고 있는 작금의 종단적 위기의 최대 원인은 현 송월주 총무원장의 종권야욕이 빚어낸 불법적인 3선 출마 강행에 있음을 밝힙니다.

오늘의 종단혼란상은 송월주 총무원장이 개인의 종권욕에 탐착하여 종도들의 의견을 구하기에 앞서 자신의 3선 출마를 세간법에 먼저 의지하면서부터 이미 예견되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종단의 원로대덕스님들은 물론 전 종도들이 애정어린 충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한 채 불법적인 3선 출마를 강행한 송월주 총무원장은 현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총무원장 청사에 철창을 치면서까지 자신의 종권욕을 채우려는 야심은 종도들에게 서의현 체제의 악몽을 되새기게 하는 모습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종정예하의 교시까지도 전면적으로 무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멸빈자들에게 준동의 기회를 제공하게 되었고 나아가 종단은 혼란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뿐만아니라 종정예하와 원로스님들을 모시는 예의가 전혀 없고, 독단과 독선의 행태로 일관하여 결국 각종 불미스러운 사태가 생겨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송월주 총무원장에게 있음을 다시한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 종헌 질서를 부정하면서까지 3선 출마를 강행한 송월주 총무원장은 제29대 총무원장 후보로서의 자격이 없음을 밝힙니다.

누구보다도 모범적으로 종헌종법을 호지하고 종단의 위계를 바로 세워 종단 개혁에 매진하여야 할 총무원장이 4년간 전 종도를 불화와 갈등구조로 몰고 왔고, 인기처세주의로 일관해오면서 오로지 자신의 종권욕에 휩싸여 종헌질서를 문란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 송월주 총무원장은 종헌종법에 근거하여 처리지는 제29대 총무원장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로서의 자격이 없음은 물론 출마 자체가 종단에 위해를 입히는 해종행위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루 빨리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종정예하께서 교시하신 내용과 교구본사 주지스님들께서 종정예하의 교시를 봉행하겠다는 결의에 따라 이미 송월주 총무원장은 후보자로서의 그 자격이 상실되었음을 확인하며, 설사 끝까지 선거를 치룬다해도 그는 합법적인 후보자가 아니므로 무효표가 됨을 종도들께 알리는 바이며 선관위에서도 이 점을 명확히 인식하기 바랍니다.

송월주 총무원장은 이제라도 종단 지도자답게 대중앞에 참회하고 3선 출마기도를 즉각 포기할 것을 준엄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 종정 예하의 교시는 반드시 옳게 받들어 져야 하며, 종정예하의 뜻을 왜곡하여 종단 분규를 획책하는 일부 후보자와 멸빈자들은 즉시 참회하고 자중할 것을 경고하는 바입니다.

현 송월주 총무원장의 3선 출마가 야기한 혼란의 틈을 타고 종단을 분규로 몰아 종권을 강탈하려는 세력들은 즉시 자중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종정예하의 '3선 불가'에 대한 뜻을 아전인수로 해석하여 종단 분규의 명분으로 활용하려는 구종권세력과 해종행위자들은 즉각 그 기도를 중단하여야 합니다.

그동안 일부 후보자 진영에서는 종단을 초법적인 상황으로 몰고가는 선거일정 파괴의 주장이 공공연히 흘러나왔고 또한 멸빈자들과의 연계설로 많은 종도들이 우려하였던 바, 일부 후보자 진영에서 주도하였던 종정예하 교시봉행 정진대법회에서 그것이 사실로 드러났음에 경악을 금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멸빈자의 대표격 되는 사람이 연단에까지 앉아 있었고 해종행위자들이 대거 동참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동안 종도들의 지지를 받으며 진행되어 온 3선 반대운동의 도덕성과 순수성을 결정적으로 훼손하는 심각한 상황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특히, 종단으로부터 멸빈에 처한 자들과 내통해오고 있었다는 항간의 소문과 같이 종정교시 봉행위원회의 행사에 멸빈자와 해종행위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해 앉아 있었던 월탄스님은 작금의 종헌종법질서를 지키고 모든 종도들이 염원하는 선거를 치루고자 하는 뜻이 있는지 심히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송월주 총무원장의 용퇴만이 분규로 치닫고 있는 현 종단 상황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본인은 향후 어떠한 상황이 발생되더라도 94년 전 종도들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종헌종법을 수호하는데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대처해 나갈 것임을 전 종도들에게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 끝으로, 국가적으로 어려운 이 때에,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위안과 희망을 주어야 할 승단이 내부의 문제를 자율적으로 수습하지 못하고 대중집회나 일반 언론을 통해 갈등하는 모습을 표출시켜 결국 불교의 위신을 실추시키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서 총무원장 후보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들에게 진실로 참회의 마음을 전하는 바입니다.

불기 2542년 11월 5일

제29대 총무원장 후보 지선 합장

이렇게 들었다

청백리

다섯가지 탐욕에 매달리지 말아야

한때 한국의 잠룡으로 불렸던 전 성남시장 오성수씨가 재임기간 동안 대가성 뇌물을 받은 혐의로 10월 28일 구속됐다. 대통령으로부터 기관장표창까지 받았던 사람이다. 부산에서는 각급 관청공사 인허가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부산시와 일선 구청 공무원이 무더기로 적발됐으며, 경기도에서는 지난 한해 동안 업무상 비리로 파면 등의 징계를 받은 사람이 무려 4백50명에 이른다고 한다.

관리는 오로지 민(民)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다. 청정해야 함이 으뜸 조건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관리의 올바른 자세를 부처님 말씀을 통해 들어보자. 〈편집자 주〉

▨밝은 달은 이지러짐이 없어서 허공을 옮아 가매 청정하여 장애없듯이, 늘 초랍자같이 참괴하는 마음을 갖출 것이며, 몸에 있어서나 마음에 있어서나 조금도 산란함이 없이 법도대로 하여 청정해 더러움에 물들지 말라. 〈월유경〉

▨나라를 위해 벼슬에 있더라도 탐욕하지 않아야 하고, 잔인하지 않아야 하며 승진에만 매달려서도 안될 것이며, 오욕락에 빠지거나 청탁에 개입해서는 안되느니라. 그러한 마음으론 벼슬에는 있을지라도 죽음은 어찌할 도리가 없는 일이니, 벼슬에 있으면서 그러한 다섯 가지 마음에 매달리면 지옥에 떨어질 것이니라. 〈불반니항경〉

▨너희들은 마땅히 알아야 한다. 한 오리의 털과 한 개의 겨자알이라도 모두가 중한 과보가 있나니 차라리 손을 끊을지언정 자기 재물이 아닌 것은 취하지 말고 항상 청렴한 마음을 갖고서 선근을 키워야 하나리라. 네가 세상 사람들을 시켜서 삼마지를 닦게 하려면 더욱더 훔치려는 마음을 끊게 해야할지니 이것이 여래선불세존께서 세번째로 결정하신 청정하고 분명한 가르침이시니라. 〈능엄경〉

▨훌륭한 재물에 탐욕심을 내고 그 탐욕 때문에 더욱 미혹해져 미친 듯 날뛰면서 스스로를 알지 못하나니 그것은 마치 사냥꾼이 살생의 업이 쌓이는 줄을 마냥 모르는 것과 같구나. 〈잡아함경〉

▨작은 악을 대단치 않게 알아 재앙이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물방울은 작지만, 시간이 흐르면 차츰 큰 그릇도 채우고 만다. 〈열반경〉

▨신하와 관리들이 법답지 않게 행동하면 백성들도 법답지 않게 행동하며, 백성들이 법답지 않게 행동하면 군인들도 법답지 않은 행동을 하게 된다. 〈증일아함경〉

▨마음이 청정한 까닭에 세계가 청정하며, 마음이 더러운 까닭에 세계가 더러워지게 마련이다. 그러기에 우리 불법에서는 마음으로 주(主)를 삼는 것이니, 온갖 것이 마음에 말미암지 않음이 없느니라. 〈심지관경〉

독자의 소리

독자여러분의 글·사진·만화를 기다립니다.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기념품을 우송해 드립니다. 보내실 때는 거주지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서 보내주십시오.
·보낼 곳 : 우(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전화 : (02)722-4162 ·팩스 : (02)737-0638 ·천리안 : aeum ·하이텔 : 34713

주지 자리놓고 싸우는 봉은사 사건에 실망

지난 달 29일 일부 스님들이 봉은사를 접수하려 했다는 소식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어째서 이런 일이 종교계에서 이뤄져야만 할까? 그것이 불교이어야만 할까? 정말로 이런 방법 밖에는 없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불자들은 누구나 삼보에 귀의한다고 한다. 그중에 덕 높으신 스님께 귀의한다는 부분도 있다. 모든 스님들은 고귀하신 분들인데, 혼란스럽기 그지없다. 우리 불자들의 귀의처는 아닌 것 같다.

무엇이 스님들을 이렇게 만든 것일까. 스님들이 이제는 정신차리고 자기 본래 자리, 수행의 자리로 돌아갔으면 한다. 이것이 불자로서 바라는 마음이다.

예전엔 수행에 장애가 된다며 서로 부치소임을 사양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주지 자리놓고 싸움이나 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 발들고 공경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김신태〈서울 대조동〉

조계종 중신회 운영 빨리 정상화 되어야

조계종 중앙신도회는 지난 해 3월 창립하면서 선언문을 통해 '재가불자의 결집체이며 조계종 신도조직의 대표체'라고 천명했다. 그러나 2년차인 올해 중앙신도회가 있는지 조차 의구심이 들 정도다. 회장의 유고, 회장직 무대행을 둘러싼 내부갈등으로 선언문에서 밝힌 '결집체, 대표체'라는 말은 공허한 구호가 되었다.

IMF로 모든 국민이 큰 고통을 겪고 있다. 국민들은 고통을 덜어주고 희망을 주는 불교를 원하고 있다.

마침 공동직무대행 체제를 도입, 갈등을 수습하고 정상화에 나서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다시 창립선언문을 상기하며 초발심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내딛는 발걸음이 불교중흥의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는 큰 걸음으로 발전할 것임을 확신하며, 다같이 화합하여 불교중흥의 그날까지 용맹정진할 것이다." 황선민〈서울 한강로2가〉

불교-개신교인 합동 훼불대책 세우길

지난 호(196호) 현대불교신문 3면에 실린 '기독교사상, 훼불특집' 기사를 읽었다.

목사와 신학교수 등 개신교 지도자들이 개신교인들의 훼불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나아가 개신교인의 타종교인에 대한 배타적인 원인을 문자에 얽매인 성경해석, 종교상징물의 몰이해에 있다며 신학적 반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늦게나마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개신교 내부의 타종교인에 대한 태도는 천차만별이다. 같은 개신교끼리도 이단논쟁을 벌인다고 한다. 아직도 불상을 우상으로 여기는 곳이 있다. 개신교인 10명중 7명이 타종교를 배타적으로 보고 있다고 하지 않는가. 우리가 훼불에 대해 경계를 늦추지 못하는 이유이다. 불교인과 개방적인 개신교인들이 함께 모여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 김미숙〈경기도 시흥〉

양양 남대천 연어축제 생명축제 아닌 살생잔치

강원도 양양 남대천은 낙산사 월정사 신흥사 등을 가까이 두고 있는 하천으로, 해마다 연어축제가 열리는 곳이다.

지난 1일에도 남대천에서는 큰 그물을 가로쳐놓고 연어잡이가 벌어졌다. 낚시에 걸려 올라온 연어들이 발버둥치면 땅바닥에 내동댕이치거나 몽둥이질을 해댔다. 주최측에서는 '연어를 통해 되돌아보는 인간의 삶'이라는 주제를 내걸었지만, 현장의 느낌은 주제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었다.

생명을 잉태하는 숭고한 산란의 현장에서, 고향을 찾아준 고마움에 감사는 커녕 한몸 가득 새 생명을 품은 산란기의 연어들을 잡아 화탕지옥의 잔치를 벌여야 쓰겠는가.

낭자하게 피 흘리며 죽어가는 연어의 가련한 모습들이 과연 아이들의 자연교육에 도움이 될까. 남대천 연어축제는 더 이상 죽음의 잔치가 되어서는 안된다. 김병주〈두레생태기행 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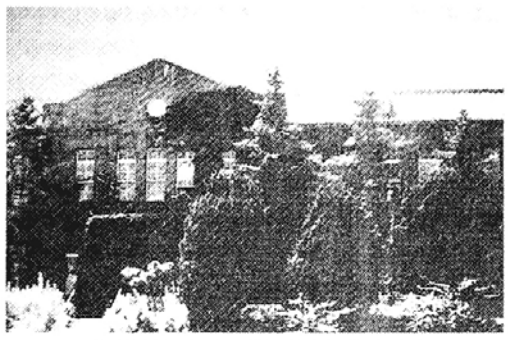
김민수교수의 백양사일기 (45년11~12월)

조선어는 국어, 국어학

- 1945년 11월18일(일)

방에서 책을 한참 보고 있는데 밖에서 떠드는 소리가 몹시 시끄러워 내다보았다. 놀러 온 부인들이 무척 많았고, 옆방에는 한 청년이 들어와 있는 것이 보였다. 건너다 보이는 건물에서는 장구치며 소리하며 노는 모습이 보였다.

책 읽기가 어려워 밖으로 나가 이리저리 엿보다가 방 앞 툇마루에 걸터 앉았다. 옆방에서 쉬던 청년이 나를 보며 "절에 공부하러 왔습니까?" 물었다. 며칠 있다가 이곳에서 한글강습회가 있어서 왔다고 했더니 그 청년이 놀라며 "조선말을 강습합니까?"라고 반문을 했다. 일본어만을 국어라고 했던 일제하의 관념을 아직도 갖고 있는 탓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조선말이 아니고, 우리 글을 강습합니다"라고 힘주어 강조하자, 알 수 없다는 듯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그 모습을 보며 일제의 영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무거워졌다.



◇ 1940년 당시 동국대 전신인 혜화전문학교 본관.

이만홍 스님의 혜화전문 학교 시절 이야기

청년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만홍 스님이 부엌 쪽에서 이쪽으로 다가왔다. 절에 놀러오는 사람들이 항상 이렇게 많냐고 물으니, 여태 이런 일이 없었다고 대답했다. 이만홍 스님은 이게 전부 일제에서 해방되어 평화시가 되었기 때문이 아니냐며 소리내어 웃었다. 아침부터 저렇게 춤추고 놀면 싫증도 날 터인데 대단하다고 말하자, 이만홍 스님 왈, "놀면 놀수록 신나지요" 한다. 스님이 수행만 하는 줄 알았는데 놀면 놀수록 신난다고 하는 말이 우스워 스님과 함께 웃고 말았다.

이만홍 스님과 방에 들어온 뒤, 스님께서 혜화전문학교(惠化專門學校·이하 혜전)를 다녔다는 말이 떠올라 혜전에서는 수업시간에 사용한 언어가 조선말이었는지를 물었다. 그랬다고 한다. 또 교과서로 출판된 책이 따로 있었는지도 궁금해 했더니 〈조선불교사(朝鮮佛敎史)〉 〈조선역사(朝鮮歷史)〉 등이 있어 그것으로 공부를 하고, 특히 문학에 관한 것이 많아 따로 문과(文科)가 있었다고 한다. 개인적으로 문학에 관심이 많아 문과 교수로 누가 있었는가 하고 물으니, 최남선(崔南善·1890~1957), 이광수(李光洙·1892~1955) 등이 가르쳤다고 했다. 이름 난 문인들이 교수로 있었다는 말에 관심이 갔다.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월인천강지곡(月印千江之曲)〉이 수록된 책을 뒤적거리고 있었던 탓인지 문과에서 〈월인천강지곡〉을 등사했었다는 말도 덧붙였다. 또 교수 가운데 일본사람이 없었는지를 물었다. 다까하시(高橋)라는 일본인 교수가 한 사람 있었는데, 그 수업시간은 어쩔 수 없이 일본어로 공부를 했다고 한다. 이만홍 스님은 그 일본인 교수가 문과를 없애고 불교과에 흥아과(興亞科)를 만들어 제국주의 정책에 교묘히 이용했다며 고조된 억양으로 흥아과에 대해 설명을 했다.

흥아과는 뜻 그대로는 '아시아를 부흥하게 한다'는 좋은 뜻이지만 사실상 일본의 제국주의 정책을 아시아 각국에 심기 위한 교육을 전담한 학과로, 흥아과를 졸업한 학생들을 만주와 동남아 각국으로 파견했다고 한다. 흥아과는 졸업생을 얼마나 배출했냐는 물음에 4~5회 정도될 것이라고 했다. 스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아시아 전체를 전쟁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모든 노력을 동원하는 그들의 태도에 대해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또 이만홍 스님은 사찰의 직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다. 주지가 있고, 다음이 재무 등을 관리하는 감사(監事)와 그 다음으로 감무(監務·현재의 총무)가 있다고 한다. 〈계속〉

서원과 화합으로 종단을 정화하자.

인사드립니다.

존경하고 아끼는
종단의 원로대덕 큰스님과 2천만 불교도 여러분!

자기 버림의 위대한 승리자로 살 것을 서원한 출가 수행자여, 차마 말할 수도 없는 숨막히고 절망적인 종단의 현실, 돈과 술수가 판치는 세속적 가치에 전도된 속물주의 집단, 사회의식 역사의식이 없는 무사안일주의 집단, 청정성, 도덕성, 정통성, 무소유의 삶이 무너져 버리고 자기 기만의 노예가 되고 양심과 믿음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이 아픔을 어떻게 치유하고 회복하며, 정화시켜 나아가야 합니까?
내몸의 썩은 부위는 아픔의 고통이 있어도 수술하여야 합니다. 치유의 고통이 두려워서 그냥 두어서는 안됩니다.참회와 화해로 화합의 장을 열어 종단을 살려야 합니다.
깨지는 아픔이 있어도 종단은 정화되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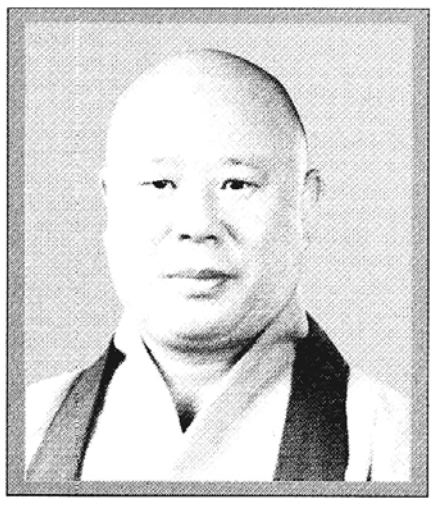
존경하고 아끼는 종단의 원로대덕 큰스님과 지도자 여러분!

자기정화를 위해 하심과 인욕행으로 정진하여야 할 출가수행자여, 종단 화합과 교권수호를 위해 한목숨 버려도 아깝지 않는 출가수행자여, 누구를 위한 종단이며, 누가 만든 종법이며, 제도이기에 종단을 보호하고 종도를 위한다고 하면서 속보이는 짓들을 하는 그들을 어떻게 달래고 눈뜨게 하여야 합니까.
종단의 모든 직위와 자리는 어떤 특정인들의 명예와 권리며, 문중이나 이권에 얽혀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 직위와 자리는 오직 종단의 발전과 운영의 질서를 도모하기 위한 봉사의 자리요, 불사라는 막중한 임무와 사명이 부여된 자리입니다.
그렇지만 종정의 교시도 무시하고 스승도 원로도 선배도 원망하고 증오하는 눈, 적대적 감정에 사로잡혀 패를 가르고 편을 짜 종단화합과 기강을 무너뜨리고 원수나 적을 대하듯 하니 어쩌다 이 지경이 되고 말았단 말인가.
이것이 우리들의 자존심일수는 없습니다.
마음에 어른도 없고 부끄러워 할 줄도 모르는 이것이 우리 출가수행자의 모습일 수는 없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29대 총무원장 후보 6번

"승단의 생명은 화합에"



총무원장 자리가 뭐길래 그런 추악한 자리요, 감투라면 버려도 아까울게 없습니다.
집착하고 속보이는 짓을 해서 어디에 쓰자는 것인가.
욕망과 집착을 버리고 자아발견의 길에 나선 우리가 아니던가
정의와 정도를 위해 오늘을 살며 내일을 역사해야할 출가수행자여,
반목과 대립으로 싸움하는 일 말고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양보와 화해로써 파행적 대립은 종식시켜야 합니다.
참회와 화해로 정진하는 것만이 우리가 더는 부끄럽지 않게 사는 길입니다.

존경하고 아끼는 종단의 원로대덕 큰스님과 지도자 여러분!

불조의 혜명을 계승하는데 등불이 되고 연꽃 되어야 할 출가수행자여
빛이 되고 거울이 되어 살아야 할 출가수행자여
여기 기억하고 사랑하며 존중되어야 할 승단의 생명은 서로 아끼고 위해주고 공경하며 신뢰와 화합하는 일입니다.
정직과 겸손으로 거듭나 심부름 하고자 서원세워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찰의 눈을 떠 화해와 화합의 장을 열읍시다.
내 자신의 행이 바르고 바르지 못한 것을 살피며 정진하는 분들과 함께 축제의 선거잔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출가수행정신이 회복되고 양심과 믿음을 찾고 승단의 생명인 화합이 살아 숨쉬게 하며 부처님의 교법정신에 입각한 바른 교단이 되어 이 역사 사회속에 민중의 자각을 일깨워주는 손과 눈이되고 도덕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신뢰와 사랑받는 교단을 만드는데 이 한몸 살라 심부름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아끼는 종단의 원로대덕 큰스님과 지도자 여러분, 그리고 2천만 불교도와 국민 여러분!
여러분의 크신 지혜와 지도를 믿고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29대 입후보자
6번 이 대 우 돈수 합장

⊙ 서원과 화합으로 종단을 정화하자

서원과 화합으로 정진하는 종도회 일동

성보박물관 속속 문연다

17일 대흥사-28일 금산사 개관
월정·수덕·통도사는 내년 봄
"기획전 등 빈틈없는 운영을"

국비 등을 지원받아 2년여 전부터 추진되고 있는 성보박물관 8곳 대부분이 건축을 마무리 하고 잇따라 개관식을 봉행한다. 대흥사가 17일 성보박물관을 개관하는 것을 시작으로 28일에는 금산사 성보박물관이 문을 연다. 월정사 수덕사 통도사는 내년 봄, 해인사 동화사는 내년 말쯤 개관식을 가질 예정이다.

17일 개관하는 해남 대흥사(주지 보선) 성보박물관은 서산대사와 초의선사의 유물을 중심으로 서산관, 초의관, 민족문화기획전시관, 말사문화재전시관 등으로 전시 공간을 구성했다. 호국불교의 상징 서산대사와 차문화를 부흥시킨 초의선사를 조명해내는 전시관으로서의 특색을 갖춘 점이 특징.

금산사(주지 도영) 성보박물관은 총 1백20평규모의 2층 건물로, 미륵성지로서의 면모를 갖춰 놓는다. 전시관 중앙에는 대형 미륵불이 모셔져 있고 4백여점의 소장 성보 외에도 사찰 풍습 등을 소개하는 코너도 마련하고 있다.

월정사(주지 현해)는 206평 규모로 2층 건물로 현재 80%의 공정을 마친 상태로 내년 봄 개관을 위해 막바지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황하루 지하에 2백40평 규모로 다련되는 수덕사(주지 법장) 박물관은 역사관, 일반불교 디술관, 중앙홀 전시대, 고승유품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승유품관에서는 경허 만공 벽초 혜암 일엽 스님 등 수덕사를 거쳐간 근세 고승들의 진귀한 유품을 만나볼 수 있다. 수덕사는 내년 6월 경허스님 기일에 맞춰 개관할 계획.

통도사(주지 월파) 박물관은 4백여점의 불화를 2곳의 전시실에서 상설전시하고 괘불을 완전하게 보여줄 수 있도록 높이·조명 등을 고려한 특별전시실을 새로 꾸몄다. 불화전문박물관으로 태어날 통도사 성보박물관은 개관후 불화를 주제로 한 다양한 기획전시도 계획하고 있다.

해인사(주지 보광) 성보박물관은 5백여평 규모로 지하 1층 지상2층 건물이 건립되고 있으며 현재 반 정도의 공정이 마쳐진 상태. 총 5백96평 규모의 동화사(주지 성뎍) 박물관은 임진왜란 당시 사명대사가 영남승병을 총지휘하던 영남도총섭이었던 사찰의 이미지를 특화시켜 호국불교사상을 고취시킬 수 있는 승병관련 유물 위주로 전시관이 마련된다.

이밖에 용주사(주지 정락)는 건물 단청작업을 준비하고 있고, 선운사(주지 혜산)는 건물은 이미 완공됐으나 내장이 미비되어 개관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마곡사(주지 진허)는 재정이 확보되지 못해 현재 성보박물관 공사가 중단되고 있다.


◇17일 개관하는 해남 대흥사 성보박물관.

잇따라 완공을 앞두고 있는 각 본사의 성보박물관이 불교문화재를 안전하게 보존·관리한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크지만 전시장에 성보를 그대로 나열만 한다면 의의가 없다는 지적이다. 전문 학예연구사를 채용해 기획전시 등에서 사찰 고유의 특성을 잘 살려야 한다는 것.

한집디자인연구소 김희태소장은 "진귀한 성보뿐 아니라 사찰의 일상에서 쓰여지는 모든 것이 전시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유물조사를 거쳐 다양한 기획전시로 사찰을 찾는 사람들에게 흥미를 주어야 할 것"이라고 조언한다. 강지연 기자(jygang@buddhapia.com)

불심시심 〈149〉

유연히 벼슬길 잊다

床上有楞嚴 (상상유능엄) 경상 위의 능엄경은
推我講徵心 (추아강징심) 나의 강의 연구 의욕 돋우니
聽到無言處 (청도무언처) 망 없음의 듣는 곳에 이르면
悠然忘華簪 (유연망화잠) 유연히 벼슬 길 잊겠죠.

초의(艸衣 1786~1866)선사의 시이다. 초의선사가 살았던 18세기 후반은 근대의 새로운 문명을 태동시키는 일종의 실학시기여서 유가의 선비들에게도 종교적 이념의 틀에서 벗어나 보다 더 열려진 사고로 세상을 대처하려는 시기였다. 불가의 스님들에게도 선비들과의 교유가 좀더 자유로운 분위기였다. 이러한 시대 조류 속에서 초의선사와 같은 분은 유가들과의 친교가 남달리 두터웠으니 그것은 선사가 다진 소양의 너그러움이었을 것이다.

이 시도 그러한 교유의 과정에서 당시의 대학자들과 주고받은 여러 편의 연작시 중의 하나다. 선사는 30대에 벌써 당시의 큰 선비들과 교유를 가졌으니 추사 김정희의 형제들과, 다산 정약용(丁若鏞)일가, 그 형제 부자들과의 친교는 선사의 인간적 면모의 변화뿐만 아니라, 선사의 방외적 학문의 틀까지도 변화를 주었을 듯 하다.

그대들은 모두 현달한 벼슬아치들이지만 나는 경상에 있는 한권의 경전이 나의 마음을 다잡아 주는 길잡이이다. 그러면서도 끝내는 말 없음을 이해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르러야 하고, 거기에 이르면 그대들의 그 호화로운 갓이나 인끈이나 비녀들이 나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역시 세속과 탈속의 거리를 보여 자신의 위치를 공고히 한 것이다.

시의 수사에도 아무 꾸밈이 없이, 있는 사실의 평범함으로 상대들과의 변별점을 부드러이 표현하였다. 나에게 있는 한권의 능엄경과 그대들의 장식물인 화려한 머리 수식은 세속물로야 대칭도 될 수 없지만, 무언의 저 먼 곳에는 비교될 수도 없는 것이다. 이러한 의연함이 그들과의 구분을 유지했던 것이다.

선사를 중심으로 모였던 시사가 두릉시사(杜陵詩社)였다. 여기에서의 사회활동의 한 면을 보이는 시에 "취수연 양털의 붓대요/ 지는 꽃 흐르는 물의 종이로/ 시회 끝나면 교룡이 움직이고/ 붓 날리면 난새 봉황 날아오른다(鼠鬚羊毫管 落花流水牋 蟠龍龍蛇動 筆飛鸞鳳翥)라 함이 있다. 서로의 이의기당당했던 작시활동을 여실히 보여 준다. 승 속의 거리를 무난히 유지하면서 자신의 신념을 지녔던 선사의 한 단면을 잘 보여 주는 시이다.

이종찬 〈동국대 명예교수〉

생사 초월한 詩語들

이형기시집 '절벽'

투병 5년동안 쓴 시모음



시는 허공이란 논밭에 구름으로 씨 뿌리고 바람을 소출로 수확하는 농업이다. 거기에는 수확의 많고 적음에 대한 어떤 기대나 또 수확을 저장할 곳간도 필요하지 않다. 그런 것이 필요없다는 확신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수확은 풍성해진다. 시인 이형기씨(65)의 시론(詩論)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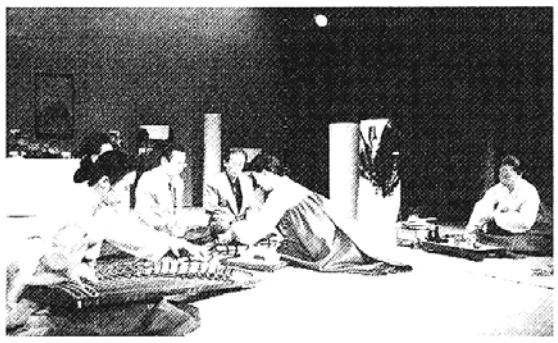
17세때인 1950년 〈문예〉지로 등단한 이씨는 문단에서도 타고난 시인으로 불린다. '가야할 때가 언제인가를/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꽃이 지는 것, 스러진 청춘을 아름답게 노래한 '낙화'로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던 이씨. 뇌졸중으로 쓰러져 투병생활 5년째인 시인은 생을 초월한 삶을 꿈꾸고 있다.

투병 중에 쓴 시 42편과 시를 위한 아포리즘 '불꽃 속의 싸락눈'이 실린 〈절벽〉(문학세계사 刊)에는 죽음에 대한 깊이있는 성찰과 원숙함이 감돈다.

이 시집에는 더욱 빛나는 그의 시혼(詩魂)이 느껴진다. 마비된 수족을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한줄한줄 쓴 시에서 불멸을 꿈꾼다. '내 죽거들랑 무덤을 짓지 말라/하물며 돌에 문자를 새긴 모비일까보냐/그냥 불에 태운 뼛가루 두어 줌/강가에 뿌리면 그만이다'('새 발자국 고수레' 中) 삶과 죽음의 경계는 이미 이형기 시인에겐 무의미하다. 꽃은 지기 때문에 아름답다고 그는 말한다. 초월의지, 그의 맑은 영혼은 바로 여기에서 숨쉰다.

신문기자로 대학교수로 한평생을 지내면서 시에 대한 열정은 언제나 그의 원고지를 달궜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변변한 치료조차 못받아 안타까운 날들을 보내고 있다. 시집으로 〈적막강산〉〈그해 겨울의 눈〉 등과 평론집 〈시와 언어〉〈현대시 창작교실〉 등 20여권의 저서가 있으며, 대한민국문학상과 한국문학작가상 등을 수상하기도 했다. 값 5천원.

한명우 기자(mwhan@buddhapia.com)


◇15일 공연에 앞서 3일 시연을 가진 한국창작음악연구회의 '차와 우리음악의 다리놓기-茶樂'.

차와 음악이 만나는 가을

창작음악硏 '茶樂' 공연…15·16일 국립국악원

정갈한 찻잔에 따르는 한잔의 차, 향긋한 내음과 함께 손으로는 온기를 느끼며 마시는 차에 격조높은 음악까지 어울린다면….

한국창작음악연구회(회장·김정수 추계예술대교수)는 '차와 우리음악의 다리놓기-茶樂' 공연을 15·16일(일요일 오후3시, 7시 월요일 오후7시) 2일간 서울 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 갖는다.

차를 주제로 새롭게 작곡된 다악은 이성천교수(서울대 음대학장)의 '다도예찬', 박일훈씨(국립국악원 국악연구실장)의 '초일향', 이건용교수(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의 '차음악-잎·물·빛', 황병기교수(이화여대 국악과)의 '차흔이제', 백병동교수(서울대 작곡과)의 '녹향송', 김희조씨(한국음악협회 원로회원)의 '다심, 다악, 다선삼매)' 등 6곡. 국악계의 쟁쟁한 대가들이 만든 이번 곡들은 차를 주제로 한 만큼 차 마시는 마음을 부드럽게 열어주면서 차와 차향에서 유발되는 상념의 세계를 때로는 고요하게 때로는 활기차게 다양한 곡조로 전개하는 것이 특징. 이번 공연에서는 백순실씨가 설치미술로 차가 있는 풍경을 연출하는 가운데 다선녀(茶仙女)가 향로에 향을 사르면서 차음악이 연주되고, 각 음악이 연주될 때마다 한국다도협회, 초일향다회, 한·국차문화협회 등 12개 차회 차인들이 행다시연을 한다.

한국창작음악연구회는 이번 공연에 맞춰 '茶樂' CD와 테이프도 출반한다. (02)272-2152 이경숙 기자(gslee@buddhapia.com)

문화소식


◇강대철作 '마애 물이 있는 山'.

12일부터 강대철조각전

명상센터 '한마음 문화연구소'를 운영하며 구도자적인 자세로 작품활동을 하고 있는 조각가 강대철씨가 12일부터 22일까지 강남 신세계 가나아트 전시장에서 조각개인전을 갖는다. '얼굴' 등 30여점이 선보이는 이번 전시회에서는 사람얼굴, 동물형상과 산, 바위, 구름 등을 통해 자아성찰이라는 내면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있다. (02)514-1540

동국대 '발굴유물특별전'

동국대 경주캠퍼스 박물관(관장 황상주)은 박물관 전시실에서 경주캠퍼스의 개교 20주년을 기념하는 '발굴유물 특별전'을 12월 30일까지 연다.

경주 석장사터 출토 영기법송명탑상문전을 비롯 경주 천룡사터 석조감실팔불 등 12개 지역 유적에서 발굴조사한 불상, 와당, 토기, 철기, 유리옥 등 다양한 유물 7백 34점이 전시되고 있다. (0561)770-2462

경주문화유적 전도 '나왔다'

1763개 유적 정리



신라문화원(원장 진병길)은 경주지역 문화재가 집대성된 '경주문화유적 전도'를 제작했다. 촌락명과 등고선까지 표기된 이 전도는 가로 92㎝ 세로 62㎝ 크기로 경주지역의 국보 29점을 비롯, 보물 75점등 국가 지정, 비지정 문화재와 관광지, 산, 건축물 등 알려지지 않은 향토사 자료까지 정확하게 표기한 것이 특색이다.

송재중씨가 10여년동안 문헌과 기존자료를 대비해 현장을 답사해 만든 이 경주문화유적 전도는 불상 탑 고인돌 등 총 1763개 유적이 정리되어 있다. 또 전도 뒷면에는 시가지 중심부, 경주남산, 보문 관광단지, 불국사 지구 등 중요유적 관광지 확대지도, 국보 보물 등 국가지정 도지정 문화재 통계와 신라역대왕 연대표 등을 표기해 놓았다.

한편 신라문화원은 경주남산 문화유적 손수건도 제작했다. 구입처 (0561)774-1950

원로, 중진 대덕스님들께 올립니다

- 교단 안팎이 불안에 싸여 있는 이때에 -

법체 청안하시고 불사 여의 하시온지 삼가 문안 드립니다. 금번 원장 선거에 소납 설조가 외람되이 출마 선언을 하여 걱정을 더해드리게 되지는 않았는지 염려되옵니다. 부디 너그럽게 살피시고 이해하여 도와주시기 바라며 필을 들었습니다.

소납은 비록 천성은 불민하고 닦은 것은 많지 않으나 그동안의 수행생활 동안 정법을 믿으며 바른 길을 걷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복덕이 부족하여 뜻하고 행하는 바가 옳더라도 주위의 이해를 얻지 못하여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이루었다 하더라도 숱한 어려움을 겪으며 처음 의도하였던 바의 반에도 못미치는 예도 없지 않았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교단의 종무행정 책임자가 되고자 나서는 것은 이제까지 소납을 지켜 봐 주신 여러 어른들과 주위 분들의 종단을 바로 세우고자 하는 의로운 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라와 교단 안팎이 극심한 격변기에 처해있는 이 때에 교단을 안정시키고 발전시킬 사람으로 선택하실 기회를 드림이 그동안 종단 개혁불사등 교단의 여러 일에 봉사해온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할 도리라고 감히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소납은 이번 총무원장 선거에 임하면서 종단의 여러 원로와 대덕스님들의 애종심과 삼보로서의 품위를 믿고 결코 표를 사려고 하지 않을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깨끗하고 모범적인 선거운동을 펼침으로써 설사 뜻을 이루지 못하는 일이 있더라도 교단 내에서 관행처럼 받아들여져 온 매관매직등 투표의 관행을 반드시 근절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소납이 종무행정의 심부름꾼에 당선 되었을 경우 결코 속된 보복이나 감정발산으로 교단의 안정 기조를 깨뜨리는 종무처리는 삼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사를 지성적 판단에 근거한 불편 부당한 원칙으로 처리함으로써 교단을 화합으로 정립하고 우리 교단이 만중생들의 진정한 귀의처로 거듭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다짐합니다. 아무쪼록 종도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 소납 설조를 종단의 행정 책임자로 선택하시어 20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세기의 도약을 위한 교단의 초석을 놓을 수 있도록 격려하여 주시기를 경건한 마음으로 간청하나이다.

불기 2542년 10월 27일

제29대 조계종 총무원장 후보 설조 화남

새로나온 책



▲노화시계=불교에서는 생로병사를 인간이 가지는 근본 고통으로 본다. 아무리 발버둥쳐도 벗어날 수 없는 현상인 것이다. 우리는 왜 늙지 않으면 안되는 것일까.

일상적인 용어로 쓰여진 이 책은 노인학과 유전학의 최일선에서 활약하고 있는 과학자들의 최근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노화'에 대한 궁금증을 쉽게 설명하고 있다. 워싱턴 의대 메이나 박사가 쓴 〈The Clock of Ages〉를 박완배씨가 번역했다. 〈연꽃마을, 1만3천5백원〉



▲나는 없다=중견 작자 황충상의 세 번째 창작집. 여러 인간상을 통해 '나는 없다'는 화두를 제시한다. 나이 오십에 벌거를 선언하고 집을 나온 주인공인 무명작가는 어느 날 문학 후배인 상희, 정오와 각자 자신의 문학세계에 대한 설전을 벌인다. 그러던 중 지난날 인연을 맺었던 멕시코 여인 베로니카에게서 보살의 화신을 발견하고 후배인 정오에게서 '나는 없다'는 화두를 받으면서 자신의 마음이 활짝 열리는 것을 깨닫는다. 〈작가정신, 6천원〉



▲사랑의 첫느낌 그 설레임으로 살고 싶다=어두운 시대에 희망의 새벽을 노래했던 불자시인 박노해씨와 장석남씨 등 32명 시인들이 자신의 첫사랑을 고백하는 시와 자전산문으로 엮어진 책.

'깊은 강물은 소리 없이 흐르듯/진실로 사랑하는 가슴은/너무 많은 말과 너무 많은 사연과/너무 많은 눈물이 있어/말없이 흘러가는 것' 박노해씨의 출감 후 첫 발표작 '사랑의 침묵'에서처럼 이 책 작품들은 모두 사랑을 한껏 승화시켜 드러내 보인다. 〈동인, 7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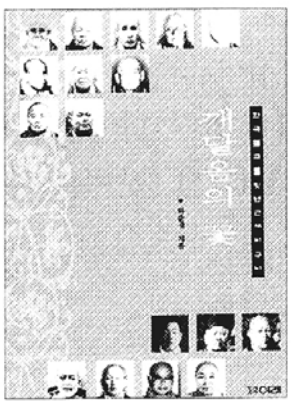
'도서' '절요' 출간

조계종 교육원

조계종 교육원(원장 암도)은 강원 사집과의 교과목인 〈도서(都序)〉와 〈절요(節要)〉를 펴냈다. 〈도서〉는 〈선원제전집도서(禪源諸詮集都序)〉의 약칭으로 규봉종밀(780~841)이 저자. 교선일치(敎禪一致)를 주장한 대표적 저술로 꼽힌다. 〈절요〉는 〈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法集別行錄節要幷入私記)〉의 약칭으로 보조의 사상체계가 종합돼 있으며, 정혜쌍수·돈오점수·간화선에 대한 입장이 함께 설해져 있다. 종파주의적 굴레를 벗어난 보조의 구도정신이 잘 나타나 있기도 하다. 값 각 권 1만3천원.

비구니 구도행장 생생하게

하춘생기자 '깨달음의 꽃-한국불교를 빛낸…'



근대 이후 기라성 같은 비구선사들의 구도행각 못지않게 한국불교 중심에서 구도열정을 불사르며 법맥을 형성해 온 비구니 스님들의 발자취는 그동안 외면돼 온 것이 사실이다. 여성성불(女性成佛)의 불가론(不可論)이 지배적이었던 한국 승가풍토에서 의도적인 면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간불교신문 하춘생 차장(한국불교기자협회장)이 펴낸 〈깨달음의 꽃-한국불교를 빛낸 근세 비구니〉(여래 刊)는 이같은 한국불교 풍토에 대한 자각의 요청이자 한국불교사상 최초로 비구니 행장을 정리했다는 점에서 주목받을만 하다. 더욱이 행장기록이 전혀 없는 비구니 수행자들의 발자취를 저자가 발로 뛰며 직접 발굴·기록했다는 점에서 사료적 가치도 큰 것으로 평가된다.

이 책에는 한국불교사에 뚜렷한 족적을 남기며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전반부를 살다 간 17인 비구니 스님들의 가르침이 그대로 담겨져 있다. 거의 모두가 상좌들의 구전에 의한 사실적 기록만을 나열했으며, 전기 형식을 띤 편년체식 서술방식을 택하고 있다. 또 이들 스님이 수행하던 당시의 고승들이나 묵적, 수행사찰 등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120여장의 풍부한 사진자료를 실어 이해를 도왔다.

제1부 '깨달음의 꽃이 되어'와 제2부 '깨어있는 삶으로'에서는 한국불교사상 그 법통을 알 수 없었던 비구니 선맥을 일으키고 운수납자로서의 본분을 지켰던 법희스님(1887~1975)을 비롯해 만성(1897~1975) 본공(1907~1965) 월해(1895~1956) 선경(1904~1996) 응민(1923~1984) 스님이 소개돼 있다. 또 염불정진과 포교·교육에 모범을 보였던 성문스님(1893~1974)과 최초의 여류문인으로 불문에 귀의해 만공선사의 선맥을 계승한 일엽스님(1896~1971), 철저히 좌선을 행했던 대영스님(1903~1985)의 깨우침이 담겨 있다.

제3부 '빛나는 가르침을 전하며'에는 근세 비구니계 3대 강백이며 법사인 금룡(1892~1965) 혜옥(1901~1969) 수옥(1902~1966)스님의 가르침이 기록돼 있다. 제4부 '청정한 도량을 가꾸고'에는 불사에 모범이 되고 그 원력이 컸던 상근(1872~1951) 법일(1904~1991)스님과 비구니 종단인 보문종을 창종하고 사회복지사업에 전력한 긍탄(1885~1980) 은영(1910~1981)스님의 행장이 기록돼 있다.

특히 당대의 고승 만공스님과 두마디 법거량으로 단박에 큰 법기(法器)임을 인정받았던 법희스님의 이야기와 걸어서 강릉을 지나 사천을 넘어가는 도중 길을 잃고 헤매다가 난데없이 나타난 한 암 강아지를 따라 첩첩산중을 넘은 끝에 상원사에 도달했다는 본공스님의 이야기 등 각 스님들에 얽힌 일화도 생생히 전하고 있다.

하춘생씨는 "이 책을 통해 한국불교의 여성관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소개하지 못한 20여명의 비구니 스님들에 대해서는 계속 자료를 수집해 같은 형식으로 출간하고, 이와함께 공개되고 있지 않은 비구니 문중도 함께 밝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값 7천8백원.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금강경의 깊은 뜻 쉽게 이해

송찬우교수 '뜻으로 읽는 금강경'



철저한 공사상에 의해 번뇌와 분별하는 마음을 끊음으로써 반야의 지혜를 얻어 깨달음을 증득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금강경〉.

송찬우 교수(중앙승가대)가 펴낸 〈뜻으로 읽는 금강경〉(보현암 刊)은 자구의 의미에 얽매이지 않고 〈금강경〉이 지닌 의미를 이해시키는데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간결하면서도 분명하게 의미를 전달하고 있어 초심자에게 특히 유용한 책이다. 동국대 역경위원을 역임하고 오랫동안 경전 번역에 힘써 온 저자 특유의 혜법이 〈금강경〉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깊이로 빠져들게 한다.

책 앞부분은 '총론해제'와 '금강반야약의'로 구성돼 있다. 〈금강경〉이 어떤 경이며, 그 중심사상이 무엇인지를 간략하면서도 명쾌하게 해설해 놓았다. 본문에 들어가기전 밝혀 놓은 서문에서는 부처님이 어떤 연유로 〈금강경〉을 설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소개하고 있다.

본문은 '법회를 열게 된 동기' 등 모두 32개의 주제로 나뉘어져 있다. 각 주제에 해당하는 경전 문구에 대해 원문과 번역문을 함께 싣고 그 뜻을 상세히 설명하는 방식을 취했다. 값 1만원.

한명우 기자

불교용어·의식을 수화로

수화통역사 강주수씨 '불교수화'



양손 손가락을 벌려 등글게 큰 공을 쥔 듯이 하여 손바닥이 마주 보게 하고 손가락이 위를 향하게 하여 서로 손가락을 붙인다. 이런 손 모양은 바로 '불교'를 의미하는 수화다.

수화 통역사 강주수 보살이 펴낸 〈불교수화〉(부다가야 刊)는 청각·언어장애인들의 언어인 수화로 불교를 설명해 놓은 책이다. 불교, 보살, 수행 등 꼭 알아야 할 불교용어들을 손가락과 얼굴 표정 등의 그림으로 자세히 표현해 놓았다. 또 반야심경과 삼귀의, 찬불가, 사홍서원 등 각종 불교의식에 대한 수화도 수록했다. 불교수화를 정리한 것은 이 책이 처음이지 나름대로 통일된 불교수화의 전형을 제시하고 있다. 값 1만원. (051)865-4383

청정국토만들기운동본부

'불교와 환경보호' 펴내

'인간(正報)과 자연(依報)은 둘이 아니다(依正不二)', '몸과 땅은 본래 두 모습이 아니다(身土本來無二相)'.

청정국토만들기운동본부(회장 성타스님)는 '불교사상과 환경'을 테마로 한 본격 단행본 〈불교와 환경보존〉(청정국토본부 編, 아름다운세상 刊)을 최근 출간했다. 이 책은 청정국토본부가 창립 6주년을 맞아 불교사상과 환경보존에 관한 연구논문을 한 데 모은 것으로 불교환경운동의 교과서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부처님의 사상 가운데 환경보존에 대한 내용을 서술한 논문이나 글을 모아 다시 분야별로 세부목차를 정해 편집했다. 제1장 환경 성명서(불교도 환경 선언문 및 성명서, 환경 발원문), 제2장 경전속에 나타난 환경보호 성구(聖句), 제3장 불교의 자연관, 제4장 불교사상과 환경보전, 제5장 사찰환경보전, 제6장 불교환경운동, 제7장 불교의 환경교육, 제8장 불교의 생명사상, 제9장 언어 공해, 불교의 계율로 본 환경보전, 제11장 불교 지도자의 환경보전, 제11장 불교 지도자의 환경법문, 제12장 청소년 자연사랑 글짓기 공모전 입상작, 제13장 환경시 등으로 꾸며져 있다.

법정, 법륜스님을 비롯 목정배 오형근 박선영 연기영 전재성 교수 등 23명이 집필위원으로 참석했다. 신국판 430쪽. 값 1만7천원.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진연스님의 불교이야기 — 진연스님 지음

초심자 이해쉽게 교리·사상 정리



불교를 어렵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아무리 쉬운 책을 보아도 어렵게 느낄 수 밖에 없다. 불교가 어렵기 때문이라기 보다는 어렵다는 마음의 상을 지우지 못하기 때문이다. 저자 진연스님(천안 성불사 주지)은 바로 그런 마음을 경계하며 이 책을 읽으라고 권한다. 그러면 불교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쉬운 용어로 불교의 교리와 사상을 개괄하고 있어 초심자들이 읽기에는 그만인 입문서다. 부처님 일생과 계율, 업, 윤회, 자비, 보살 등을 주제로 불교사상에 접근하고 있는 것이 특징. 일상에서의 참선과 화두, 마음 닦는 길도 제시하고 있다. 〈혜음, 8천5백원〉

화제의 책

나의 북한 문화유산 답사기 — 유홍준 지음

유홍준씨 눈에 비친 북한문화유산



자기 고향인 사리원 성불사에 꼭 가 보라며 고향사랑과 자랑을 늘어놓던 북한 고려항공 여승무원. 이 책에는 북한의 문화유적과 사람들의 표정을 따뜻하게 읽어 내려간 저자의 느낌이 그대로 담겨있다.

고구려의 옛모습을 다시 복원해 놓은 평양의 정릉사, 묘향산의 보현사와 8각13층석탑 그리고 안심사 상원암, 서산대사의 금강굴 등 불교문화유적과 평양 대성산성, 묘향산, 조선중앙력사박물관, 강서의 고구려 벽화무덤 등 북한의 대표적인 문화유적도 저자 특유의 구수한 입담으로 만날 수 있다. 92장의 생생한 컬러사진은 북한유적의 현재 모습을 그대로 담았다. 〈중앙M&B, 9천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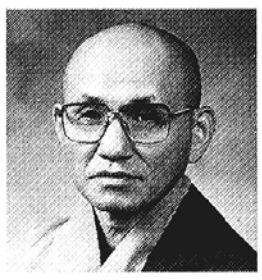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산은 산 물은 물	정찬주	민음사
2	불교신행의 주춧돌	우룡	효림
3	산에는 꽃이 피네	법정	동쪽나라
4	법수로 배우는 불교	이제열	여시아문
5	100문100답(불·보살·신중편)	고경석·고광영	대원정사
6	화엄경사상 연구	도업	민족사
7	불교입문	조계종편집부	조계종출판사
8	생활속의 기도법	일타	효림
9	성자와 범부가 함께 읽는 금강경	윤율순	신우당
10	그냥 갈 수 없는 길	이도원	불광

구입문의:(02)737-0695

※ 본 광고는 총무원장 선거법 제15조에 의한 제29대 총무원장 선거 입후보자 종책광고입니다

한국불교는 월주스님과 함께 발전될 수 있습니다!!



기호 1번

1. 불교를 불교답게

- 수행가풍 진작 및 지원관리
-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승가교육체계 내실화
- 승가복지종합대책 추진
- 중앙승가대학교 김포학사 완공
- 연수교육의 범위와 대상인원을 확대하므로써 평생교육의 기틀을 마련
- 교과과정의 통일성 및 강원의 특성을 고려한 전문 영역을 개발

2. 내실있고 화합된 종단

- 교구본사주지회의 정례화
- 종책협의회 구성 및 이 기구의 정례화, 법제화
- 종무행정 원스톱서비스제 및 책임처리제 도입
- 전국사찰을 연결하는 통합전산망 구축
- 종단의 중대사에 대한 다양한 여론수렴
- 종단 운영 방침과 종무 계획을 매년 2회 공지
- 집행부 인사에 있어 다양한 의견 수렴 장치 설치

3. 사회로 회향하는 불교

- 깨달음의 사회화운동 본부 결성
- 경제난 극복 및 실직자 구제활동 강화
- 지역사회활동 강화 및 종합사회복지관 유치 강화
- 수행환경 보호를 위한 제도적 방안 모색
- 지역별, 계층별 포교전략 수립 및 포교활성화
- 도시와 농촌 사찰의 연대를 통한 도농공동체 활동을 적극 장려, 지원
- 불교장례식장이나 납골당 등 종교적 색채를 띤 재정사업 적극 유치

4. 우리 문화를 살리는 불교

- 부처님 오신 날 연등축제의 세계적인 종교축제화
- 성보박물관 활용방안 모색 및 민족문화교육장으로서 사찰 기능 강화
- 전통문화 및 현대적 문화 소재로서 불교사상 보급
- 생활과 밀접한 불교문화상품 제작, 보급
- 첨단매체 활용 활성화
- 불교디자인 공모전을 정기적으로 개최
- 불교예술인을 집중 육성관리
- 종단을 상징하는 통일적인 상징물과 서체 보급

5. 미래로 도약하는 불교

- 불교종합문화회관 건립
- 종단의 국제적 위상 제고
- 정보화사회 종단 적응력 신장
- 인천불교회관 건립

태공 월주스님 수행 이력

수 계 : 금오스님을 계사로 사미계 수지('54, 법주사)
금오스님을 계사로 비구계 수지('56, 화엄사)

학 력 : 화엄사 불교전문강원 대교과 졸업('58)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69)
원광대학교 명예철학박사학위 취득('96)

경 력 :
금산사('61) 개운사('71) 영화사('86), 조계사('94) 주지

제2. 3. 4. 5. 6. 7. 9. 10대 중앙종회의원
5대 중앙종회의장('78), 개혁회의 의원('94)

총무원 교무부장('70) 총무부장('73) 총무원장('94)
학교법인 대승학원('65) 동국학원 ('68) 이사 승가학원('94) 이사장

10·27 법난진상규명추진위원회 위원장('88)
지역감정해소국민운동본부 공동의장('88)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89)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 상임공동대표('90)
평화통일자문위원회 중앙상임위원('91)
한국시민단체협의회 공동대표('94)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공동대표('97)
제2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고문('98)
실업극복국민운동 공동대표('98)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선거 슬로건 — 한국불교는 월주스님과 함께 발전될 수 있습니다!! 안정과 화합속에 지속적 개혁으로 한국불교의 미래를 열어나갑시다!!

"길은 동쪽에 있다"

21세기 불교련 세미나

'불교의 나아갈 방향'

21세기불교연합회(회장 법조스님)는 5일 서울 하림각에서 '21세기 불교의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가졌다.

제1발표 '21세기의 불교와 복지'에서 지하스님(중앙승가대 총장)은 "오늘날 사회복지제도가 갖는 한계를 통해 '사회복지'라는 이상향 달성이 물질적 투입만으로는 어렵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정신적 가치가 지니는 중요성을 설득력있게 제시해 온 불교의 복지사상과 실천방법은 이러한 점에서 현대사회복지를 달성하는데 귀중한 자산을 가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2발표 '21세기 불교와 동양철학'에서 송석구 총장(동국대)은 "인류 문명사의 방향은 자타불이(自他不二)나 천지동근(天地同根)의 원리에 바탕을 둔 불교나 동양사상이 가르치는 열린 지평을 향해 나아가야 할 것"이라며 "불교를 중심으로 한 동양사상은 21세기 인류문명에 열린 세계관, 다원적 가치관 등을 제시함으로써 '길은 동쪽에 있다'는 진실을 밝혀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주문화엑스포 학술회의 '새 천년의 미소…'

"서역불교 연구 폭넓게 진행돼야" 정병조교수

"원효스님 화쟁사상 새시대의 빛" 박성배교수

"민족원형 시대별 문화수용 발전" 김용운교수

"보존의 연장선상에서 개발 검토" 한경구교수


◇정병조교수


◇박성배교수


◇김용운교수


◇한경구교수

전통을 재창조의 발판으로, 21세기 인류문화의 방향을 진단해 본 '98 경주세계문화 엑스포 국제학술회의가 '새 천년의 미소 - 문화의 전승·융화·창조'를 주제로 5~7일 경주 힐튼호텔에서 열렸다.

국내 35명, 국외 16명 등 세계 석학들이 대거 참석한 이번 국제학술회의에서는 제1분과 경주문화의 지역성과 세계성, 제2분과 문화의 전승과 환경보전, 제3분과 문화의 만남과 융화, 제4분과 정보화 사회와 문화적 대응 등 분과별 주제발표가 이뤄진 가운데 '문화의 새 천년을 여는 인류의 선택'에 대한 다양한 논문이 발표됐다.

'비단길과 한국불교'로 발표에 나선 정병조 교수(동국대 부총장·국민윤리)는 "실크로드를 통한 중국과 한국의 불교전래, 또 많은 스님들의 구법활동은 불교 자체의 사상적인 면에서도 획기적인 발전을 마련해 주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크로드와 한국불교의 관련 등을 제시하며 정교수는 "한국불교의 전래과정에 해로(海路)를 통한 남방불교의 유입가능성이 존재하는 만큼 서역불교에 관한 연구는 보다 심도있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문화의 거인, 원효'에서 박성배 교수(美 뉴욕주립대)는 "어느 종파에도 얽매이지 않고 두루 관통하는 보편성을 지닌 무애의 삶을 살았던 원효스님의 화쟁사상은 오늘날의 이분법적인 사고를 극복하는 대안으로 작용, 무애와 자재의 불이(不二)의 논리로서 앞으로의 새시대를 여는 빛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교수는 "얽매임 없이 두루 관통하는 보편성을 획득한 원효는 치열하게 앎에 대한 노력을 경주, 화쟁사상을 낳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용운 교수(한양대 명예교수)는 '한국원형과 이문화의 관계'에서 "한국의 문화를 깊이 관찰하면 한국원형의 일부에 잠재되어 있는 강한 한국적 샤머니즘 그리고 명분주의적 경향을 엿볼 수 있다"며 "그것은 곧 우리 민족의 기본적 가치관, 사고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 민족원형(Archetype)"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사회를 규정하는 중심적 가치관은 시대의 특징적인 문화 양상에 의해 규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것을 '범패러다임'이라고 정의한 김교수는 "민족원형은 그대로 각 시대의 범패러다임을 관통한다"고 밝혔다. 가령 통일신라 이후 고려까지 범패러다임이 조선시대에 이르러 유교적 범패러다임으로 대치됐으나 이들은 한결같이 한민족의 원형에 여과되어 있었기 때문에 한국적 이라는 것이다. 또 김교수는 "오늘날 인간은 카오스와 차원높은 보편성의 지향이라는 두 개의 선택을 강요당하고 있는데 이것은 문명의 충돌이 아닌 공생"이라며 "각 민족은 다른 원형과 모자이크처럼 서로 얽혀 보편의 차원으로 승화되지 않는다면 고유문명의 의미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누가 얼마나 무엇 때문에? 문화전승과 환경보전에 대한 인류학적 접근'으로 발표한 한경구 교수(강원대 인류학과)는 "개발과 보존은 반드시 상반되는 것이 아니므로 정확하고 광범위하게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물론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시각에서 경주 고속철도 문제를 언급한 한교수는 "고속철의 문제를 개발 대 문화보존의 논리로 해결하기 보다는 개발을 보존의 연장선으로 생각하는 의식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이번 세미나에서는 △경주, Silk Road, 불교 그리고 21세기 : 한국문화의 관계론(신영복·성공회대) △유라시아대륙의 문화경로와 경주문화(김택규·영남대) △정보화 사회의 문화적 함의(이해두·대구대) 등 총 33편의 논문이 발표됐다.

김정은 기자
(jekim@buddhapia.com)



부다피아 사이버 기행

불교문서 창고

인터넷은 전자문서 백과사전
불자 네티즌배려 자료목록 제공

인터넷은 거대한 백과사전이라고 할 수 있다. 불자 네티즌이 영문 불교 사이트 정보를 열람하고 있다고 가정하자. 이때 불자네티즌이 'pema' 등과 같은 낯설은 단어와 만나는 것은 필연적이다. 인터넷의 잠재력은 이 순간 더욱 빛난다. 인포식이나 야후와 같은 검색엔진에 'pema'라는 단어를 입력해 보면, 이 단어는 사랑이라는 뜻이 담긴 팔리어로, 영문음역됐다는 것을 쉽게 알게 된다. 3만여개로 추정되는 인터넷 사이트 중에서 'pema'라는 단어가 사용된 데이터가 없을 수 없으며, 그 자료 중에서 'pem'의 뜻을 설명해 놓은 문서가 분명히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백과사전'이라는 공식은 여기에 근거한다.

불교 사이트 중에서는 현란한 그래픽 보다는 불교학 연구 성과물, 고승 어록, 경율론 입력자료, 각국 불교사 개관 등의 데이타를 분류해 놓고 불자 네티즌이 언제든지 다운로딩(가져오기) 서비스를 이용, 활용할 수 있게 배려한 '파일 라이브러리(File Library)' 사이트가 있다. 말 그대로 '전자 문서 도서관'이다.

△부다넷 파일 라이브러리(http://www.buddhanet.net.filelist.html)는 불교미술, 불교일반, 상좌부불교, 대승불교, 명상, 선 불교 등의 분류에 따라 총 2백40여종의 문서와 50여종의 사진자료를 제공한다. 각 서비스의 자료 목록은 리스트 파일을 이용하면 된다. 이 파일에는 '파일 이름' '자료 분량' '자료 내용' 등이 정리되어 있어, 특정한 자료를 찾고 있는 불자 네티즌의 수고를 덜어준다.

고화질의 그래픽을 제공하는 '불교미술' 서비스에서는 시공을 초월해 부처님의 모습을 열람하고 서로 비교할 수 있는게 단연 백미. 이곳에서 제공하는 부처님 이미지에는 고대 인도와 스코타이족의 부처님 모습도 있다.

불교일반·상좌부불교 등의 서비스에서는 아잔 슈메르도스님의 '사성제', 아찬차스님의 '자유의 맛', 에리자베스 에쉴리의 '고(苦)에 대한 인간의 반응', 필 브라운의 '불교와 생태위기' 담마비하리스님의 '가난, 기근, 저개발' 등의 문서가 제공된다. 이곳에서 제공하는 문서 파일은 'ZIP' 형태로 압축되어 있다.

△불교와 동양철학(http://httppsrv.ocs.dreexel.edu/)에서는 영국의 불교계 지도자 상가라시타(서방불교도교우회 장)의 글 '불교와 부처' '수행관' '불교와 죽음' '불교의 세계관' 등을 열람할 수 있다. 또 빅터 맨스필드교수(콜게이트대학)의 '대승불교와 현대 물리학의 시간관' '선불교와 티벳불교' 등 20여종의 문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

△상좌부불교 문서창고(http://world.std.com/~metta/index-title.html)는 남방계 고승들의 어록 뿐만 아니라 아함경의 일종이 팔리어 5부의 영문본 〈니카야〉, 상좌부불교의 교리와 경전 등을 열람할 수 있는 사이트이다. 〈니카야〉는 불설에 가장 가까운 경전으로 꼽힌다. 이 곳에서 문서 파일들은 '불교출판협회(Buddhist Publication society)'에서 전자출판된 것으로, 모든 내용들은 포교를 위해 공개되고 있다.

오증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불교의례는 自他不二 수행"

박선영 교수, 종교학회 세미나서 주장

"한국의 불교의례는 시간적으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걸친 영원성을 염두에 두고 모두가 함께 성불하기를 염원하는 것으로 회향된다."

'종교와 의례'를 주제로 7일 서울대에서 열린 한국종교학회(회장 금장태) 추계학술세미나에서 '한국 불교의례의 절차와 의미구조'로 불교분과 발표에 나선 박선영 교수(동국대 교육학과)는 불교의례의 절차와 그 안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구조를 검토하고, 그것이 갖는 지향점을 고찰해 관심을 모았다.

박교수는 "불교의례는 '시방삼세(十方三世)'라는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무한한, 또 우주적이면서도 영겁(永劫)에 걸친 차원에서 행해지고 염원되며 발원되고 있다"며 "그 발원이자 염원은 모두가 함께 성불하고 중생을 제도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불교의례 가운데서도 특히 예불과 공양의례·천도의례 등을 집중 고찰한 박교수는 "여기에는 인간중심적 사고에서가 아니라 모든 존재가 다 나와 무연(無緣)하지 않다는 관점이 널리 포용되고 있다"며 "의례를 통해 쌓인 자신의 공덕은 우주와 영원의 차원에서 모든 존재와 함께 공유(共有)되어지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고 밝혔다.

예불의례에서는 과거와 현재, 미래를 관통하는 융시적(融時的)이고도 통시적(通時的)인 차원에서 유정(有情) 무정(無情)의 모든 존재를 자비의 대상인 동시에 깨닫게 해야할 존재로 보는 관점이 드러나 있다는 것. 또 공양의례에서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까지 구원의 손길을 내밀고 있는 불교의 정신적 의미구조와 삶의 태도를 볼 수 있으며, 천도의례는 스스로의 깨달음과 중생의 제도를 동시에 염원하고 축원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박교수는 "불교의례의 가장 큰 특징은 모든 의례가 불보살 등의 증명과 가피, 즉 가호 속에서 시작되며, 모든 발원이나 축원은 항상 시방삼세의 모든 중생이 깨달음을 얻어 성불하도록 하겠다고 스스로 서원(誓願)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이것은 자타불이(自他不二)의 수행이자 공덕행(功德行)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김정은 기자



해설 장님은 아리따운 장식물을 얻어도 기쁨을 못 느낀다. 어리석은 사람도 마찬가지다. 비록 지극히 깊은 가르침을 만난다 해도 그 어리석음이 매우 심한 까닭에, 그것이 미혹에서 벗어나게 할 진리임을 깨닫지 못한다. 그러니 배울 생각을 못할 수 밖에.

본 광고는 총무원장 선거법 제15조에 의한 제29대 총무원장 선거 입후보자 종책 광고입니다

지선스님이 구상하는 29대 총무원의 종단운영 기조



기호 2번 지선

1946년 1월 6일 전라남도 장성군 삼계면 상도리에서 출생
1961년 5월 1일 전라남도 장성군 백양사에서 김석산(石山)스님을 은사로 득도
1964년 3월 경상남도 범어사에서 동산 대종사를 계사로 보살계 수지
1967년 3월 범어사 석암 대종사를 계사로 비구계 수지
1972년 3월 서옹 대종사를 법사로 전당
1976년 1월 조계종 종정 사서실장
10월 대한불교 조계종 제23교구 본사 관음사주지
1978년 9월 조계종 비상종회의원
1980년 4월 조계종 제6대 중앙종회의원
1981년 11월 제3회 '세계승가대회'에 한국 대표로 참가
1986년 6월 정토구현전국승가회 의장
1987년 ~ 92년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전국연합 공동의장
1987년 5월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 상임 공동의장
1992년 10월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의장
1993년 7월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한 종교인 협의회 공동의장
1994년 3월 범승가종단개혁추진회(범종추) 상임지도위원
5월 조계종 개혁회의 상임부위원장 및 개혁회의 의원
10월 대한불교조계종 제18교구 본사 백양사 주지 취임
1998년 민족문화수호를 위한 교구본사주지모임 회장
대한민국 제2건국 추진위원회 상임위원

1. 종단 대화합과 공의제도 실현

종단의 안정과 중흥을 위해서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 종단의 대화합을 통하여 원력을 총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종단의 주요 종책사업과 종단중흥불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원로대덕스님들과 중진스님들을 비롯한 종도들의 지혜와 동의를 구하는 과정과 절차가 분명하게 존재해야 합니다.

지선스님은 21세기 불교중흥의 대전제인 종단 대화합을 실현하기 위해서 원융살림체제를 구축하여 공의제도에 바탕하는 화합종단을 만들어나갈 것입니다.

2. 수행, 교육, 포교를 보좌하는 종무행정체제의 구축

행정을 위한 행정, 목적없이 세간의 시류에 따라 표류하는 행정은 조계종단의 종무행정이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종단이 선종을 중심으로 제종을 포섭한 법통을 분명히 하고 있는 이상 종무행정은 선불교 전통의 선양과 이에 기반한 수행, 교육, 포교사업을 후원하는 것을 1차적 목적으로 하는 풍토가 정립되어야 합니다.

지선스님은 수행·교육·포교를 보좌하는 종무행정체제를 구축하여 미래사회 인류문명을 선도할 수 있는 한국불교의 모습을 찾아 나가겠습니다.

3. 총무원장 4년 단임 구현을 통한 종단안정체제 확립

과거로부터 오늘에까지 계속되고 있는 종단 혼란의 원인이 종권에 대한 개인적인 과욕에서 비롯된 바, 세대간·문중간 갈등을 치유하고 혼란이라는 단어에 마침표를 찍는 가장 적합한 계기는 책임있는 단임정신의 실현으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지선스님은 4년 단임을 구현하여 종단의 안정을 정착시키고, 경륜있는 종단지도자들이 두루 종단의 중책을 맡을 기회를 줌으로써 화합적이고 총화적인 종단운영체제를 구축할 것입니다.

4. 책임있는 종책추진과 봉사하는 종무행정의 실현

조계종의 종단운영은 종정예하와 원로회의, 중앙종무기관과 교구본사, 중앙종회 등을 기본구조로 하고 있습니다. 종정예하와 원로의원이 종지종풍의 근본을 잡는 종단의 어른이라면, 총무원장은 종무집행자로서 말 그대로 '일 하는 자리'입니다.

지선스님은 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독단적인 권위의식과 공명심을 버릴 줄 아는 겸허한 자세로 시종 임할 것이며, 소신있고 책임질 줄 아는 총무원장으로서의 소임을 다 할 것입니다.

5. 불교 고유한 특성에 맞는 사회적 활동

불교가 미래사회의 가치를 국가와 사회에 제공하는 일을 행함에 있어서 그 행위가 종단의 내실을 기할 수 있어야 하며 종단적 역량에 기초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타종교 따라가기식이나 총무원장 개인의 공명심을 드높이는 사회활동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지선스님은 조계종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종단의 자산과 강점을 극대화하는 사회활동을 개발 전개할 것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본 광고는 총무원장 선거법 제15조에 의한 제29대 총무원장 선거 입후보자 종책광고입니다.

한형조 무문관 방장

71

수산의 죽비①

* 수산화상이 죽비를 들고 대중에게 보이며 가로되, "너희들, 만일 이것을 죽비라 부르면 '범하는' 것이고, 죽비라 부르지 않으면 '등지는' 것이다. 어디 말해보라. 무어라고 불러야 하겠느냐."

* 나 혜개가 말한다. "죽비라 부르면 '범하는' 것이고 죽비라 부르지 않으면 '등지는' 것이다. 말을 해서도 안되고 말이 없어도 안된다. 얼른 말해보라. 말해보라.

* 송하여 가로되, "죽비를 들어올려 죽고 사는 영을 내렸다. 등지고 범하는 것이 어지러이 치달리면, 부처와 조사도 목숨을 구걸할 판.

首山竹 :

首山和尙, 拈竹篦, 示衆云, 汝等諸人, 若喚作竹篦則觸, 不喚作竹篦則背. 汝諸人且道, 喚作甚麼. 無門曰, 喚作竹篦則觸, 不喚作竹 則背. 不得有語, 不得無語. 速道速道. 頌曰, 拈起竹篦, 行殺活令. 背觸交馳, 佛祖乞命.

수산성념(首山省念 926~993). 임제(臨濟)의 5세손으로 앞 39강에서 살핀 풍혈(風穴)의 제자이다. 고향에서 머리를 깎았지만 처음에는 경전에 몰두했다. 특히 '법화경'에 밝아 염법화(念法華)라는 별칭을 얻을 정도였다. 선과의 인연은 나이가 든 그가 우연히 풍혈의 거소에 객승으로 유하게 되면서 시작된다. 어느날 늦은 나이에 눈을 뜬 그는 수산에서 새 문호를 열었다. 제자에 분양(汾陽)이 있고, 그 아래 자명(慈明)에게서 양기(楊岐)와 황룡(黃龍)의 두 걸물이 탄생했다. 송대의 선맥을 이들이 주도하게 됨으로써 풍혈의 우려는 괜한 것이 되었다. 수산의 죽비는 그 선풍을 특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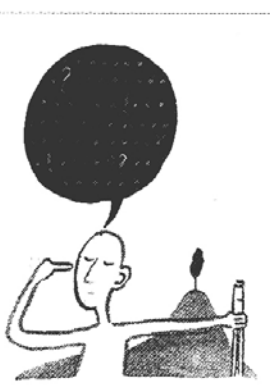


그림 · 문병성

죽비를 죽비라고 불러서는 안된다니. 이게 웬 심술이고 용심인가. 사람들은 우선 그렇게 생각한다. 죽비라고 불러서 안된다면 그럼 대나무 딱딱이라고 부르면 그만이지. 단순한 명칭의 문제로 이리 호들갑을 떨 것이 무엇인가. 대체 이게 선이 추구하고 있는 목표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기독교적 전통을 가지고 있는 곳이라면 또 모르겠다. "태초에 로고스, 즉 말이 있었다"는 사람들은 보편자의 개념문제가 심각한 논란거리였다. "보편은 개체에 우선하고 영원한가." 이 물음에 대해 '영원하다'고 답해야 저 높은 곳에 계신 분을 위한 입지가 선다. 이 신학적 입장을 실재론(實在論 ,realism)이라고 한다. 이때 '실재한다'란 보편으로서의 개념이 그렇다는 것임을 유의해야 한다. (사물이나 개체는 다만 우연적인 존재일 뿐, 실재의 이름에 걸맞지 않는다.) 이런 종교적 통념이 중세 후기에 들면 흔들리기 시작한다. 과학적 인식이 증가하고 회의적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유명론(唯名論 nominalism)이 득세하는 것이다. 개념의 보편적 성격은 개별적 사물에서 단순히 추상된 무엇으로, 관습이나 약정 이상이 아니라고 오캄(Occam)은 말한다. 이 두 입장 사이의 결전을 보편논쟁이라 부른다.

그렇지만 동양에서는 개념의 절대성과 보편성에 대한 인식이 희박했다. 자연과 인간, 그리고 사회를 철두철미 자연주의적 입장에서 바라보았기 때문에 불변의 절대, 영원의 본질에 대한 관념 또한 미미했다. 더구나 이 세계를 주재하고 있는 초월적 인격에 대해서는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무심했다. 중국불교 또한 이 전통을 따랐다. 인도불교가 대중적 설득과정에서 혼입한 다양한 브라만교의 신화적 종교적 제재는 점차 떨어져 나갔다. 대승 가운데서도 반야 공관의 회의주의를 선호하더니 급기야 그 가장 극단적인 형태인 선을 흘범시킨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수산은 바로 그 불교적 혁신을 의식하며 개념의 절대적 성격이라는 테제를 비관의 도마 위에 세운 것일까.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

"설법아닌 설법은 어떤가"

"인연을 쉬는 죽은 재는 아니 되겠습니다"

풍혈이 그를 찾아와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했다. "불행히도 임제의 길이 나에 이르러 끊어지려 하는구나." "아니,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무슨 말이십니까." "총명한 인재는 많은데, 본질을 꿰뚫어본 사람이 없어." "그럼, 저는 어떻습니까." "내 자네를 눈여겨 보아왔는데, 경전에 탐착하느라 내려놓는(放下) 법을 몰라." "그럼, 어디 그 비밀을 알려 주십시오."

풍혈은 당(堂)에 올라 대중을 향해 설법을 시작했다. "세존께서 그 푸른 연꽃같은 눈으로 대중을 둘러보셨다." 화두는 거기까지였다. 풍혈은 "어디 말해보라, 여기서 세존은 대체 무엇을 설하셨는가." 단상 아래에서 듣고 있던 수산은 소매를 떨치고 나가버렸다. 풍혈 또한 주장자를 던지며 방으로 돌아갔다. 시봉이 풍혈에게 물었다. "염법화가 어째서 대답도 않고 나가버렸습니까." "그는 무언가를 알았다." 다음날 자신을 찾아온 수산에게 풍혈이 물었다. "세존께서 말씀하신 설법 아닌 설법이 어떤가." 이 물음에 수산은 이렇게 대답했다. "움직임에 옛 길을 들어, 초연한 기틀에 떨어지지 않습니다(動容揚古路, 不墮 然機)." 수산은 고요에 머물고 인연을 쉬는 죽은 재는 아니되겠노라는 결연한 의지를 내보였다.

아상이 꿈를 부른다

잭 콘필드가 쓰는

재가자를 위한 팔정도

31



'욕망'이라는 장애물은 흥미로운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해결되는 순간 행복감을 느낄 수 있지만 오래도록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좋은 예가 있다. 우리는 어느 순간 피자, 파스타, 아이스크림 등 특정한 음식을 먹고 싶을 때가 있다. 우리는 처음에는 참아내려고 하지만 결국 집을 나서게 되고, 그 음식을 파는 가게를 찾아가 음식을 먹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때 어떤 갈증이 해소되는 느낌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느낌, 행복감이라 할 수 있는 그 느낌이 오래 지속될 수 있을까?

수행의 장애②

한 입 베어무는 순간부터 우리의 욕당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하고 있다. 우리는 새롭게 생겨난 욕망을 오래 묵혀두지 못한다. 욕망이 고(苦)라는 사실은 이 과정을 자세히 살피면 알게 된다. '욕망'은 어떤 과정 혹은 상태가 끝나는 곳에서 분명하게 나타나며, 그 바람을 좇는 자체가 우리에게 고통을 준다는 것이다.

사실 욕망은 세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른 장애물보다도 친숙하다. 다른 장애물이란 분노, 졸음, 불안, 불신 등이다. 이 네가지 장애물은 '도피'라는 말로써 갈무리할 수 있다. 우리의 경험을 돌이키면 이 장애물들은 싫은 일이 목전에 닥쳤을 때 생기는 반응이다. 이 장애물들은 우리의 능력 범위 안에서 사물을 설명하고 정직하게 노력할 때 이길 수 있다. 그리고 삿된 감정은 놓아버려야 한다.

삿된 '똑똑함'을 버리자
오물이 가득한 컵
비워야만 쓸 수 있어

'나'의 가족이니 '나'의 수행이니 하는 식으로만 생각하는 자기 중심적 견해는 또 다른 고(苦)의 원인이 된다. 이것은 탐·진·치라고 부르는 번뇌들의 표면상 나타난 이름과 모양일 따름이다. 마치 발우를 보고 크다 작다, 예쁘다 하는 것과 같다. 큰 발우를 원하는 사람은 어느 발우든지 작다고 할 것이다. 바로 탐·진·치 삼독 때문에 우리는 그런 개념들을 만들어 내고, 그로 인해 차별심을 일으키는 것이다. 그러나 진리는 그저 있는 그대로일 뿐이다.

우바이는 남성을, 우바새는 여성을 지칭한다. 그런데 만약 '그것은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구별해 놓은 것'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토를 달 사람이 있을까? 자기라는 존재는 실상 원소들의 결합, 즉 변화하는 집합물의 모임일 뿐이다. 해탈한 마음은 차별심을 내지 않는다.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너도 아니고 나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따라서 모든 장애물은 우리의 내면에서 생겨나는 '견해'라고도 할 수 있다. 모든 유·무정물에 대해, 자기 자신에게 대해, 수행에 대해,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 품고 있는 의견과 생각들이라는 것이다.

생활 여건이 윤택해지면서 우리는 손쉽게 문화와 교육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됐다. 그런데 고등교육을 받고, 사회적 지위도 누리며, 경제적 여유도 있는 사람들이, 세간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이 사찰을 찾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대부분 그들의 마음은 사물에 대한 고정된 견해로 꽉 차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들은 너무나 똑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니 너무나 똑똑한 분들은 얼마 가지 않아서 사찰을 등지기 쉽다. 그래 가지고는 아무것도 배울 수가 없기 때문이다.

수행에 임하는 우리는 삿된 똑똑함을 버려야 한다. 그것은 마치 오물이 가득한 컵과 같아서, 수행의 어느 순간에도 소용이 없다. 썩은 물이 비워진 다음이라야 그 컵을 쓸 수 있는 이치와 같다.

우리들의 수행은 똑똑함도 초월하고 어리석음도 초월해야 한다.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모든 견해를 비워버려야 한다. 우리가 만약 스스로 '나는 머리가 좋아' '나는 돈이 많아' '난 중요한 사람이야' '불교에 대해서 난 모르는게 없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아상(我相)'을 버리지 못한 것이다. 불교는 자아를 버리는 공부이다. 비어있음, 공(空), 열반을 배우는 종교이다. 행여라도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한다면 고통만 당하게 될 것이다.

번역=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불교와 수학

75

불심과 창발

김 용 운

지난호 본란에서는 일본 어느 섬의 원숭이가 고구마를 씻어 먹는 것을 보기로 '창발'에 관해 이야기했었다. 불교에서는 '부처가 자비의 빛을 발할 때가 있음'을 말한다. 불심이 창발됨으로써 사회가 발전하고 윤리성이 한 차원 높아지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창발은 우연처럼 보이는 일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남으로써 야기되는 현상이기도 하다. 큰 지진은 갑자기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그 이전에 몸으로는 느낄 수 없을 정도의 미약한 지진이 수없이 일어나고 간간이 중간크기의 지진이 있은 후에 큰 지진이 돌출한다. 부처님의 자비의 마음이 발휘할 때를 포함하여 어떤 현상이 창발될 때는 이와 같은 패턴을 취한다. 과학사에도 위대한 발명이나 발견이 복수의 사람에 의해서 동시에 나타나는 매우 흥미있는 사례들이 있다.

전화의 발명으로 이름이 높은 A.G. 벨은 잘 알려져 있으나 또 하나의 발명가 E. 그레이의 이름은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이들은 1876년 2월26일 같은 날에 미국 특허국에 '전신에 의해 소리를 전하는 장치'에 관한 특허를 신청했다. 그러나 벨이 시간적으로 좀 빨랐다는 이유만으로 그의 이름은 역사에 길이 빛나게 되었다. 이와같이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이 각기 다른 곳에서 거의 같은 시기에 같은 발명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수학과 과학의 발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 미적분학은 뉴턴과 라이프니츠에 의해 거의 같은 시기에 발명되었다. 당시 사람들은 대 발명이란 천재 한 사람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고정관념으로 절대 두 사람이 동시에 같은 일을 성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어느 한 사람이 남의 것을 훔쳤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뉴턴과 라이프니츠를 탄생시킨 영국과 독일은 각 나라의 명예를 걸고 이 발명이 자국 사람에 의해 먼저 발명되었다고 주장하며 서로를 비방하고 억지를 부리는 진풍경을 연출했었다.

작은 일 겹쳐 큰 질서 형성하듯
천재 · 대발명도 동시에 나타나
불심 창발되면 사회전체 발전

특수상대성이론 역시 아인슈타인만의 독창적인 발명은 아니었다. H.A. 로렌츠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진화론도 다윈과 워래스에 의해 따로따로 생각되었으며, 에너지 보존의 법칙 또한 마이야, 줄, 골딩 세사람이 동시에 발견하였다. 이들은 동시에 전혀 다른 방법으로 각기 다른 나라에서 서로 모르는 상태에서 발견된 것들이다.

C.G. 융은 그와 같은 현상이 개인의 의식과는 별도로 사회, 넓게는 민족, 또는 인류의 집합적 무의식층에 있음을 지적하고 사람들은 무의식의 깊은 곳에서 서로 이어져 있음을 지적한다. 어느날 그 무의식 집합체 속에 있는 생각이 공명함으로써 구체적인 모양으로 세상에 나온 것이다. 그것이 곧 새로운 사회적 현상의 창발이기도 하다. 다시말해 한 사회 속의 낱낱의 구성원은 집합적 무의식을 공유하고 있으며, 그것을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인 어느 천재가 그것을 구체화함으로써 대 발명이 나오는 것이다.

인류사에는 B.C. 4세기를 중심으로 하는 종교혁명의 시기가 있었다. K. 야스퍼스는 그 시기를 추축시대로 이름지었다.

중국에 공자, 맹자를 중심으로 하는 제자백가(諸子百家), 희랍은 소크라테스를 중심으로 하는 희랍 8현인, 유태의 여러 예언가와 이에스, 특히 인도에는 바라문과 힌두 종교운동이 있었고, 그 연장선상에 석가모니가 태어났다. 대예언자가 혼자서 등장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종교적 천재는 민중의 집합적 무의식 속에 있는 윤리적 바람을 끌어내는 성인이며, 그 한사람의 등장에 앞서 여러 명의 종교천재가 있었다. 그것은 마치 몸에 느껴지지 않을 정도의 여러개의 지진과 중간 크기의 지진으로 이어지는 대지진과도 같은 패턴이다.

창발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작은 일들이 겹치면서 무질서로 보여지던 상황이 하나의 질서를 만들어내는 순간이기도 하다. 창발이 되기 전에 작은 여러 개의 공시성적인 일이 있는 것이다. 그런 뜻에서 이름없는 중생들은 큰 천재와 성인을 등장시키는 예비적인 행동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것이며, 그 역할에는 대소의 차이가 있을뿐 본질적으로는 다름이 없다.

특히 불교에서는 누구에게나 불심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으며 중생의 역할을 중요시한다.

〈한양대 수학과 명예교수〉

과학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180



기3호 월탄

※ 본 광고는 총무원장 선거법 제15조에 의한 제29대 총무원장 선거 입후보자 종책광고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제29대 총무원장 입후보자 월탄

제29대 총무원장 출마에 즈음하여 8대 종책을 선언하며

지금 우리 사회는 물질적 고난과 함께 정신적 공황이 극에 달해 민족 고유의 윤리와 가치관이 파괴되어 엄청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종단적으로는 분열과 대립이 고질화되어 뜻있는 사부대중의 경책을 올바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조계종 제29대 총무원장 선거는 종단의 화합과 안정을 기대하는 전 종도들의 여망에 부응해야 할 중차대한 선택의 자리입니다. 또한 불교의 동체대비정신으로 가난하고 소외받는 일체중생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하며 더불어 나누는 정신으로 회향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소납은 종단의 화합과 안정을 위하여 위로는 종정예하와 원로대덕스님을 모시고 그리고 전 종도와 더불어 주어진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대 종책선언은 이러한 소납 월탄의 간절한 발원입니다.

종책선언 1 불교의 시대적 역할을 확대하고 사회의 구제와 계도를 선도하겠습니다.

종책선언 2 사부대중의 경책에 귀기울이고 宗徒를 모시는 正法행정을 펴겠습니다.

종책선언 3 종단의 위계질서를 바로잡고 대화합의 개혁종책을 펼치겠습니다.

종책선언 4 '작은 총무원'을 指向하여 종무행정을 간소화하고, 본사 및 지역중심의 불교를 활성화 하겠습니다.

종책선언 5 원로대덕스님과 종도들의 종무 참여를 과감히 확대하여 실질적인 열린종단을 이끌겠습니다.

종책선언 6 획기적이고도 총체적인 승가교육의 전환을 통하여 21세기 불교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종책선언 7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종책선언 8 한국 불교의 세계화와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미래지향의 불교문화를 창달해 나가겠습니다.

현명한 판단, 준엄한 선택 종단의 내일을 약속합니다 -월탄 三拜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월탄 스님 이력

1955	화엄사에서 정금오스님을 은사로 득도
1955	화엄사에서 정금오스님을 계사로 사미계 수지
1966	해인사에서 길자운스님을 계사로 비구계 수지
1959~63	선원에서 5하안거 성만
1968	동국대 학사 졸업
1969	서울 개운사 주지
1969	조계종 제 4·5·6·8대 중앙종회 의원
1971	조계종 총무원 규정부장
1973	조계종 총무원 총무부장 동국대 석사학위
1974	조계사 주지
1974	불교신문사 사장
1975	조계종 총무원 총무부장
1977	강화 전등사 주지
1978	조계종 중앙종회 수석부의장
1983-1992	법주사 주지
1986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
1986	평화통일정책 상임자문위원
1988-1992	조계종 제9대 중앙종회 의원
1992	조계종 제10대 중앙종회 의원 [현] 동국대 승가총동문회 회장
1994	[전] [사단법인] 한국불교발전연구원 이사장 [현] 동국대 석림동문회 명예회장
1995-98	선원 4하안거 (9하안거 성만)

시방세계

身土不二의 企業
興國農産
⊙ 전 국 (080)064-1300
⊙ 서울본부 (080)070-1300
土種 홍화씨
함양산 土種 홍화씨가 왜 좋은가?
● 지리산자락 함양은 재배의 적지
● 함양은 100여년간의 재배를 통한 원조격 동네
● 끊임없는 연구를 통한 우수 품종 생산



◇랑시인은 합장한 마음을 풀지 않기 위해 늘 집안 법당에서 글을 쓴다.

"시 쓸때와 예불 올릴때 좌절이 용기로 변해요"

산문밖의 선禪 詩作 40년 랑승만 시인

반신불수의 몸이지만
법회 빠짐없이 참석
경전 한줄에 시 한줄
참회 눈물 흘리며 독경
그렇게 업장을 녹였다
마침내 '정토의 꽃' 피웠네

부처님이시여! 저는 보았습니다. 시 한 줄로 마음을 달래며 지탱해 온 지난 세월들은 결국 당신 뜻이었습니다. 그 길고 길었던 시간, 저리도 장엄한 아름다움이 있음을 왜 몰랐습니까. 이제 당신에게 한 송이 꽃을 바칩니다. 당신이 제게 주셨던 꽃봉오리 이제 꽃을 피워 당신께 바칩니다.

광생을 시와 더불어 산 불자시인 여천(如泉) 랑승만(64). 자신의 삶이나 다름없는 시, 그리고 시로 채운 세월 모두를 부처님께 올렸다. 타오르는 향과 같은 미소를 머금으면서.

두껍고 검은 안경테, 백발이 성성한 헝클어진 머리. 지팡이를 짚고 가까스로 몸을 움직일 때야 비로소 그가 반쪽 인간임을 안다. 그렇게 지내온 지 어느새 19년. 울다가 지쳐 눈물마저 말라버렸을 긴긴 세월. 그에게는 아직 흘릴 눈물이 남아있다. 그에게 시는 무엇이며 시를 쓴 40여년의 세월은 그에게 무엇을 남겼을까.

올해로 시를 쓴 지 꼭 42년. 하지만 랑시인은 2년을 빼고 싶다. 시작(詩作) 40년을 기념한 시문집을 얼마전 냈기 때문이다. 시집 한 권 낼 형편이 못 돼 미루고 미루다 지인들의 도움으로 마침내 자신의 열 두 번째 시집 〈정토의 꽃〉을 상재하게 됐다. 그가 부처님께 바친 꽃은 다름아닌 이 〈정토의 꽃〉이었다.

〈정토의 꽃〉 일사귀엔 그의 눈물이 가득 배어 있다. 고통과 회한의 19년 세월 갈목길목마다 걸어 놓았던 좌절과 희망, 바늘귀를 빠져나온 가느다란 한숨을 달래며 오늘이 있기를 얼마나 기다렸는가. "그래도 용기를 잃지 않고 살았노라"고 말해 줄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56년 〈문학예술〉 12월호에 시 '숲'으로 등단, 문단에 발을 들여 놓으며 외향적인 활동을 펼쳐온 랑시인은 80년 1월 한국잡지협회 이사회에 참석후 귀가도중 뇌졸중으로 쓰러졌다. 1년반동안의 투병생활. 부처님을 찾기 시작했다. 동국대 국문과 학부시절 불법을 만나기는 했지만 절실하지는 않았다. 죽음 같은 몸살. 그는 당시의 고통을 이렇게 회상한다. 병상을 털고 일어난 자리에 '불법'을 심었다.

반신불수의 몸은 더욱 철저히 부처님과 시에 기대기 시작했다. 늘어진 한쪽 팔과 다리를 끌면서 인근 사찰의 법회에도 빠지지 않고 참석했다. 경전 한 줄에 시 한 줄. 하루하루가 그렇게 채워졌다. 온종일 독경만 하기도 하고 새벽까지 부처님전에 꿇어 앉아 참회의 눈물을 흘렸다. 그렇게 도 두터웠던 업장을 조금씩 녹여나갔다.

육신의 고통으로 병고에 시달리다 보면 그리움은 더욱 깊어지기 마련. 그 그리움을 불교로 승화시키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관음의 미소를 보았다.

한 새벽 꿈길에/이슬 한 방울 굴리시며/관음의 ㅁ 소로 피어나신다/연꽃 한 송이…(중략)
지극하신 자비의/지순한 연꽃 한 송이시여
이리도 뜨거운 아픔을 주심은/이는 정녕 극락을 여심인가 -〈정토의 꽃〉中 '그리움'에서-

불구의 몸을 딛고 낸 시집은 모두 열 권. 서정적이기만 했던 그의 시세계는 어느덧 부처님을 향하고 있었다. 시와 불법은 그에게는 병마와 싸우는 힘의 샘이며 삶을 지탱케 해 주는 버팀목이다.

20여년전 아내는 어려운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집을 나갔다. 덩그러니 남은 어린 두 아들과 병마. 삶 길이 막막했지만 그래도 오직 시만을 생각하고 시만을 토해냈다.

그러던 87년, 산골소녀 옥진이로부터 한통의 편지를 받았다. 전신마비 장애아 옥진이를 위해 성치않은 몸을 끌고 전북 고창까지 직접 찾아가 위로하고 〈산골소녀 옥진이 시집〉을 내주었다. 장애인들과의 인연은 이렇게 시작됐다. 전북 이리의 장애자 채혜주씨(36), 재소자였던 김충호씨(43), 뇌병인 문학청년이었던 김진탁씨(38), 입으로 그림을 그리고 타자를 쳐서 시를 쓰는 함미순씨(44), 근육질환장애자 정인순씨(44), 뇌성마비 장애자 최명숙씨(34) 등 20여명의 장애인들을 자식처럼 돌보았다.

자신도 온전치못한 시인이 돌보기엔 벅찬 사람들. 하지만 오히려 이들에게서 희망을 보았고 용기를 얻었다. 열심히 불법을 전하고 그들에게 생명력을 불어넣어주려 애썼다. 이들을 위해 90년과 95년 두 차례에 걸쳐 중광 수안 설봉 스님과 내로라 하는 예인들의 작품을 내놓고 '랑승만 바라밀 사회전'을 열기까지 했다.

그는 비로소 자신의 삶의 무게를 알았다. 그렇게 갈구했던 정토의 땅, 그곳은 바로 여기였다. 부처님 뜻을 따라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뒹굴던 자신의 마음에서 연꽃이 피어나고 있음을 느꼈다. 그것은 시를 토해내며 그토록 찾아 헤매이던 진정한 자유이었다.

랑시인의 시세계가 인간존중과 윤회사상에 천착하고 있음은 바로 그의 끈질긴 생명력에 있는지도 모른다. 시 곳곳에서 좌절과 실의의 여린 가락이 마주치기도 하지만 이것들은 대개 끈질긴 생명력과 처절한 의지로 수용된다. 그리고 그 바탕엔 불교사상이 짙게 드리워져 있다. 고통받는 중생과 아픔을 함께 나누는 곳이 바로 피안이라고 그는 생각한다. 랑시인의 시가 갖는 미학은 바로 여기에서 나온다.

전에 살던 '서천암(西泉庵)'이라 부르던 집에서 몇달전 은행대출을 받아 마련한 13평의 새 보금자리로 옮기면서 '풍림사(楓林寺)'라 이름짓고 부처님도 모셔 놓았다. 동림사라 이름 지은 까닭은 동쪽에서 뜨는 해를 바라보는 수풀처럼 언제나 희망을 잃지 말자는 의미에서다.

랑시인은 말한다. "시 한 권을 쓰면 10년은 더 살고, 시 한 권을 세상에 발표하면 20년은 더 살며, 시집 한 권 묶어내면 30년은 더 살 수 있다"고. 그는 오래 살기를 절규한다. 죽음과 맞바꾸며 눈물로 써 온 시. 그에게서 시는 곧 눈물이고 눈물은 곧 시다. 눈물이 마를 때까지 살고 싶단다.

그는 지금 합장조차 할 수 없다. 왼 손이 모아지지 않는다. 하지만 마음은 언제나 합장하고 부처님을 향한다. 몸은 조석예불도 빠뜨리지 않고. 랑시인의 부처님을 향한 마음엔 정신생명의 부활의지가 꿈틀거린다.

신체적,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남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기에 그는 부자요 자유인이다. 시인이란 본래 이래야 된다고, 물제자는 본래 이래야 된다고 그는 굳게 믿고 있다.

한명우 기자(mwhan@buddhapia.com)



◇집안에 쌓여있는 서화 · 병풍들.



◇시작 40년 동안 펴낸 12권의 시집들.



◇96년 포항에 사는 전신마비 장애인 이상열 시인(52)을 찾아가 위로금을 전했다.

취재수첩

'장애인돕기 바라밀전' 잇단 실패

지난 90년 장애자와 재소자들과 숙식을 같이 하면서 준비했던 '장애자 · 재소자돕기 기금마련 랑승만 바라밀전'은 5백여만원의 빚과 상처만 안은 채 끝났다. 96년 두 번째 연 '장애인돕기 랑승만 바라밀전' 역시 실패. 두 번의 실의끝에 남은 것은 성월스님의 불경병풍 등 시서화 90여점을 합해 1백50여점의 작품들. 이 작품들은 현재 랑시인의 집에 그대로 보관돼 있다.

81년 세 번째 시집 〈우수재(雨水祭)〉를 냈을 때만 해도 역경을 딛고 일어선 시인으로 언론의 주목을 받으면서 각계의 도움으로 그럭저럭 생활을 이어왔으나 몇 년 전부터는 사람들의 기억속에서 멀어지면서 어려운 생활은 더욱 궁핍한 처지가 되었다. 신경성 우울증을 앓고 있는 큰아들 정(33)과 오랫동안 간염을 앓고 있는 차남 효정씨(26)가 경제 능력이 없어 예년보다 더욱 춥겠다는 올 겨울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벌써부터 걱정이 태산이다.

랑승만 시인은 "보관하고 있는 작품이라도 사주는 사람이 있다면 생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텐데…"라며 부처님의 자비를 구한다. 연락처 (032)875-2878

불화와 성화비교 33장면 19 신성과 권위 상징

용

용은 상상의 동물로 몸은 뱀과 비슷한데 날개와 뿔이 달렸고 발이 4개라고 한다. 깊은 못이나 바다속에 살며 공중에 올라가 풍운의 조화를 부린다.

용은 불교의 팔부중(八部衆)의 하나로 수용되어 호법불교와 어울려 불법을 보호하고 국가를 수호하는 신장으로 부각되어 호법룡이자 호국룡으로 믿어져 왔다. 동양에서는 용을 신비한 영물로 여겨 최고의 신성과 권위를 상징하게 되어 왕을 나타냈다. 이집트 시리아 유대인과 서양 신화에 등장하는 용은 죽음이나 죄악과 관계가 깊은 괴물로 나올 때가 많고 가뭄이나 서리 등으로 피해를 주는 존재로 여겨졌다.

왼쪽 그림은 대나무가 있는 바닷가에 백의관음보살이 여의주를 희롱하는 용을 타고 가는데 좌우에 해상용왕과 남순동자가 합장하고 있다. 오른쪽은 흰옷을 입고 두건을 쓴 비너스(천사)가 여의주를 문 용을 타고, 주위에 어린 천사들이 지켜보고 있는 모습으로 두 그림의 구도가 비슷한 점이 이채롭다.

학림〈예천 법화암 주지〉



◇관음사 벽화 해수관음상. 조선시대.



◇티에폴로作 '비너스의 승리' 1762~1765년. 프라도미술관 소장.

★ '시방세계'는 불자들의 관심과 시선이 가는 법계소식을 집중 조명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제보 · 문의를 기다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22-0698

다시 푸는 경서

42장경

(11)
(佛言)飯惡人百 不如飯一善人
(불언)반악인백 불여반일선인
飯善人千 不如飯一持五戒者
반선인천 불여반일지오계자
飯五戒者萬 不如飯一須陀洹
반오계자만 불여반일수다원
飯百萬須陀洹 不如飯一斯陀含
반백만수다원 불여반일사다함
飯千萬斯他含 不如飯一阿那含
반천만사다함 불여반일아나함
飯一億我那含 不如飯一阿羅漢
반일억아니함 불여반일아라한
飯十億阿羅漢 不如飯一辟支佛
반십억아라한 불여반일벽지불
飯百億辟支佛 不如飯一三世諸佛
반백억벽지불 불여반일삼세제불
飯千億三世佛 不如一無念無住無修無證之者
반천억삼세불 불여일무념무주무수무증지자

'악인 백명을 먹이는게 착한 이 한 명에게 공양함만 못하고, 선인 천명에게 공양함이 오계지킴이 한명에게 공양함만 못하고, 오계지킴이 만명에게 공양함이 수다원 한명에게 공양함만 못하고, 수다원 백만명에게 공양함이 사다함 한명에게 공양함만 못하고, 사다함 천만명에게 공양함이 아나함 한명에게 공양함만 못하고, 아나함 1억명에게 공양함이 아라한 한명에게 공양함만 못하고, 아라한 십억명에게 공양함이 벽지불 한명에게 공양함만 못하고, 벽지불 백억명에게 공양함이 삼세제불 한명에게 공양함만 못하고, 삼세불 천억명에게 공양함이 무심도인 한명에게 공양함만 못하다'

"마음에 티끌이 없어 이를 지키면 지극한 도를 깨우칠 수 있다"

(12)
(佛言)人有二十難 貧窮布施難 豪貴學道難
(불언)인유이십난 빈궁보시난 호귀학도난
乘命必死難 得覩不經難 生値佛世難
기명필사난 득도불경난 생치불세난
忍色忍欲難 見好不求難 被辱不瞋難
인색인욕난 견호불구난 피욕부진난
有勢不臨難 觸事無心難
유세불임난 촉사무심난
廣學博究難 除滅我慢難 不輕未學難
광학박구난 제멸아만난 불경미학난
心行平等難 不說是非難
심행평등난 불설시비난
會善知識難 見性學道難
회선지식난 견성학도난
隨化度人難 覩境不動難 善解方便難
수화도인난 도경부동난 선행방편난

'사람에게 스무가지 어려움이 있다. ①빈궁한데 보시하는 것 ②돈많고 지위 높은데 도 배우는 것 ③목숨던져 죽기로 각오하는 것 ④경전을 구해 보는 것 ⑤부처님 세상에 태어나는 것 ⑥색심·욕망 참는 것 ⑦좋은 것 보고 탐내지 않는 것 ⑧욕을 보며 화내지 않는 것 ⑨세를 갖고 써먹지 않는 것 ⑩경계마다 무심으로 대하는 것 ⑪널리 배우고 두루 참구하는 것 ⑫아만심을 없애는 것 ⑬무식한 이 업수이 여기지 않는 것 ⑭항시 평등심 갖고 대하는 것 ⑮시비를 가리려 들지 않는 것 ⑯선지식을 만나는 것 ⑰자성불을 만나 도 배우는 것 ⑱상대에 따라 나투어 제도하는 것 ⑲경계에 부딪쳐 평상심 유지하는 것 ⑳방편을 두루 통달하는 것. 이 스무가지가 어렵다.'

(13)
沙門問佛 以何因緣 得知宿命
사문문불 이하인연 득지숙명
會其至道
회기지도
佛言 淨心守志 可會至道
불언 정심수지 가회지도
譬如磨鏡 垢去明存 斷欲無求
비여마경 구거명존 단욕무구
當得宿命
당득숙명

한 사문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어떤 인연으로써 숙명을 알고 지극한 도를 깨닫게 됩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다.
'마음에 티끌이 없어 이를 지키면 지극한 도를 깨우칠 수 있다.
비유하자면 거울을 닦아 때를 벗기면 본래의 밝음만 있는 것 같이 욕심을 끊어 마음에 구함이 없으면 마땅히 숙명을 알고 도를 깨닫게 된다.'

龍眼

큰스님 수행한담

"생각만하고 행으로

청소스님 〈석탄사 주지〉



약력
- 1921년 충남 청양 生
- 1951년 예산 수덕사에서 지선 스님을 은사로 득도
- 문경 대승사, 선산 도리사, 승주 송광사 등에서 참선 수행
- 1991년 정읍 석탄사 주지 취임
- 現 정읍 석탄사에 주석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낳아준 부모에 대한 은혜를 갚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누구나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으면 부모보다는 자식을 위해 온갖 정성을 다 기울입니다. 이것은 이치에 안맞는 일이예요.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근본을 생각한다면 금방 이해가 갈 겁니다. 부모한테는 많은 빚을 졌는데 오직 자식만 생각한다는 것은 옳지 않아요. 일체중생을 다 자식처럼 사랑하면 그것이 곧 대자비지요. 자식만 사랑하고 부모를 받들지 않는 건 편중된 것이기 때문에 가치가 없는 자비입니다. 따라서 아무 북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부모나 형제 자매, 친지, 이웃들이 가깝다 하여 무심한 경우가 많지요. 그러나 가까운 이들일수록 예의를 갖추고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스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기본 도리인 5계중 한 계라도 파한다면 부처님 말씀을 배반한 것이기 때문에 입적하는 그 날까지 꼭 지켜야 합니다.

나는 5계중에서도 특히 '살생을 금하라'는 덕목을 스님뿐만 아니라 평소 신도들에게도 강조합니다. 인간이 내 목숨같이 사랑하고 보호해야할 미물들을 마구 잡아 먹으니 그것 자체부터 틀려진 겁니다. 자신의 생명이 귀중하면 남의 목숨도 존귀하게 여겨야지요.

생명 존중은 우선 스님들부터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스님들은 모든 중생의 부모요 스승이기 때문에 항상 행동을 되돌아 봐야 합니다. 부모가 고기를 먹는데 안 먹을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스님들은 고기를 먹으면서도 일체 걸림없이 본분만 잃지 않으면 된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건 자기 합리화를 위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부처님말씀엔 그런 것이 없어요.

하지만 계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만 하고 있으면 생각끝에 떨어지기 쉽습니다. 처음부터 계를 잘 지킨다면 그것이 부처지 중생이겠습니까? 참고 또 참으면서 실천에 옮기는 것이 계를 잘 지키는 비결입니다. 다시 말하면 극기를 통한 자기 확신을 가져 마음을 다 잡아야 합니다.

절을 할 때 삼천배를 목표로 잡고 시작하면 이천오백 배쯤 되면 고비가 오고, 천 배를 계획으로 잡고 시작하면 칠백배쯤 되어 고비가 옵니다. 목표가 삼천배였을 때의 천 배는 수월하지만, 천 배를 목표로 했을 때는 같은 천배지만 더 힘듭니다. 즉 처음 출발할 때의 마음가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요. 천배를 하더라도 아예 삼천 배를 할 작정으로 시작한다면 천 배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이란 자기가 다잡기 나름입니다. 극기로 자신을 통제하면 새로운 자신감과 용기가 생깁니다. 어떤 유혹에 빠졌을 때 '내가 물리쳐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하려고만 한다면 온 몸에서 솟아나는 힘으로 과감히 뿌리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불자들도 계를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생각만 열심히 하고 실천이 뒤따르지 않으면 망상이 됩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불가와 인연이 깊었던 것 같습니다. 유년시절을 충남 공주에서 보냈는데 14세 되던 해부터 틈만 나면 수덕사에 와서 지냈습니다. 며칠을 살다보니 나도 모르게 절이 좋아져 시간 가는줄 몰랐지요. 그때마다 나를 찾으러 온 부모님 손에 이끌려 다시 집으로 돌아가곤 했어요. 이렇게 사찰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다보니 스님들에 대한 동경과 수행자들의 삶에 강한 호기심을 느꼈어요.

6·25전쟁이 발발한 이듬해 수덕사에 들어가 본격적으로 행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50여년의 수행 생활을 돌이켜 보면 특별히 은사스님을 두고 정진하기 보다는 홀로 포행과 참선을 통해 부처님의 진리를 깨우치려고 노력했지요

"염불을 기복적으로 하면 나약한 마음 때문에 원치 않는 불행 올 수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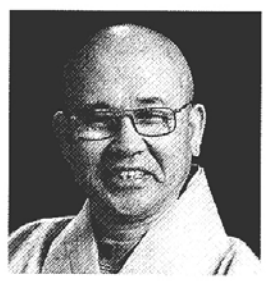
그래서 유일한 나의 은사스님이였던 수덕사 지선스님의 가르침은 평생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하루는 은사스님이 나를 불러 "남전스님에게 조주스님이 말하기를 '마음은 부처가 아니요, 지혜는 도가 아니다(心不是佛 智不是道)라면 허물이 있습니까?' 하고 물었거든. 그러니 남전스님의 말씀이 '있다'고 대답하자 다시 조주스님이 '허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하니 남전스님이 '마음이 부처가 아니며 지혜는 도가 아니다'라고 똑같은 대답을 했어.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느냐?"하고 물었습니다.

말 뜻을 이해하지 못한 내가 록묵부답하자 스님이 설명하셨지요. "마음이 부처가 아닐 것 같으면 마음을 내놓고 뭐가 있겠어. 그런데 허물이 있다고 했거든. 그것은 우주 자연 만상이 그대로 도(道)란 뜻이지. 개구즉착(開口卽錯), 즉 입을 열면 틀렸어. 시비를 가리는 것 자체가 옳은 일이 아니야." 그래도 내가 이해 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을 짓자 스님의 말씀은 계속 이어졌지요. "부처님께서 팔만대장경을 설하였는데 나중에는 한마디도 설한바 없다고 했거든. 그 도리를 잘 파악해야 해. 하지만 우주 자체가 그냥 그대로 도이지만 말을 안하면 어리석은 중생에게 보여줄 방법이 없잖아. 모두가 방편이지. 비유컨데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려면 손에 물이 묻어야 되며 불에 탄 사람을 구하려면 손에 연기도 쐬야 하고 불도 손에 닿아야 하는 것처럼 연기도 불도 모두 방편이야. 하지만 방편이 없으면 중생에게는 보여줄 도리가 없는 거야." 하시면서 한가지 일화를 더 말해 주셨습니다.

"조주스님의 제자가 스님에게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하고 물으니 조주스님이 '없다'고 했거든.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에게 불성이 있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자 또 '무(無)'라고 대답했어. 또 있어. '무엇이 조사가 온 뜻입니까(祖師西來意).' 하니 '관치생모(板齒生毛)니라"하고 말했어. 어떻게 널

※ 본 광고는 총무원장 선거법 제15조에 의한 제29대 총무원장 선거 입후보자 종책광고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제29대 총무원장 후보자 설조스님



기호 4번

"나라를 구하는 교단을 만들겠습니다"

— 소납 설조의 종단운영 기본종책은 이렇습니다 —

94년 종단 개혁불사는 다시 있어서는 안될 엄청난 진통과 희생을 안고 출범했지만 아시다시피 그 염원을 담지 못하고 유명무실하게 된 것이 현실입니다.
제 갈길을 가지 못하고 혼란을 겪고 있는 종단을 올바로 잡고 또 대내외적으로 실추된 불교의 위상을 바로 세우는 일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납 설조는 이같은 현 종단상황을 마냥 손놓고 바라볼 수 만은 없어 오랜 고민 끝에 종단을 바로 세우는 대임의 수행을 자청하고 몇가지 종책을 구성하였습니다.
소납이 구상한 종책이 여러 부문에서 부족한 점이 없지 않겠지만 미흡한 부분은 제현의 일깨움으로 충당하고자 합니다.
또 종책 실천에 대한 곧은 의지와 굴하지 않는 교단의 기틀을 다지고 반듯하게 하는데 김히 토대가 되고자 합니다.

1. 종무(관리)분야
현 총무원의 방만한 기구를 축소하고 교구본사 중심으로 통제와 보완을 하여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교단내 인사와 재정이 합리적으로 운영돼 침체의 늪을 벗어나도록 도약의 발판을 만들겠습니다.

2. 교육(도제양성)분야
기성세대보다 나은 다음세대를 위하여 도심에 위치한 교육기관은 수행자 교육기관으로서의 분위기를 갖추도록 하고 산중의 전통교육 기관은 학과의 양을 늘려 사회지도자로서의 품위와 수행인의 자질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선원은 선지식 중심으로 정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으며 복지분야도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하여 수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번번이 이어져 오는 정통선맥이 발양되어 인류구원의 본분을 자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 포교분야
각 사찰의 주지스님들이 포교를 외면하고는 '민족불교', '호국불교', '전통불교'를 아무리 외쳐도 소리없는 메아리에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교단의 위상을 정립하고 복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포교의 활성화는 그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갑자기 포교사를 양성할 수도 또는 대량 수입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이의 해결책으로 각 사찰의 주지스님들을 대상으로 먼저 재교육을 실시하여 수행과 가람수호는 물론 기본 법회봉행으로 포교의 발판을 다지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4. 역경분야
교단의 중요교육기관의 하나로 역경사 양성기관을 설립하고 역경된 한글대장경을 각 사찰에 의무적으로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역경사를 지속적으로 배출하겠으며 번역된 경전을 의무적으로 비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한글경전 비치는 포교와 역경의 활성화를 기하는 일거양득의 성과를 얻으며 특히 역경사업을 활성화 시키는 초석이 될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우선 큰 분야별로 긴급한 것만을 제시하였습니다. 소납은 앞으로 사계의 전문가와 관계분야 종사자들의 고견을 수렴해 보다 완벽한 종책을 만들어 한국 불교를 '민족의 불교',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는 종교'로 이끌것입니다.
소납 설조는 원로 큰 스님들과 중진 대덕스님들의 인격을 믿으며 현명한 선택으로 오늘의 상처를 잘 치유하고 도약의 기틀을 마련할 기회를 만들어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라나이다.

설조 스님 이력

수 계 1948. 4. 15 충남 예산군 덕산면 정해사에서 금오스님을 은사로 사미계 수지
1966. 9. 23 경남 합천군 해인사에서 자운스님을 계사로 비구계 수지
학 력 1970. 2. 25 동국대 행정대학원 기획행정과 수료
경 력 1966. 3. 26 대구 동화사 총무재직
1967. 1. 31 충북 보은군 법주사 교무재 직
1971. 11. 7 총무원 교육국장 재직
1972. 7. 16 중앙종회의원 재직
1975. 10. 25 학교법인 동국학원 감사 취임
1981. 1. 12 미국 샌프란시스코 여래사 주지 취임
1992. 9. 27 중앙종회의원 재직
1994. 4. 10 조계종 개혁회의 부의장
1994. 7. 19 불국사 주지 취임
1997. 7.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1997. 10. 생명의 숲 가꾸기 공동대표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큰스님 수행한담

옮기지 않으면 망상"

"오계 잘 지키는 비결은 '할수 있다'는 확신으로 참고 또 참으면서 실천에 옮기는 것입니다"



◇100여년전 정음 석탄사 인근의 산으로 나가 포행정진중 바위에 걸터 앉아 휴식을 취하고 있는 청소스님.

"염불이든 참선이든 매일 밥먹듯 꾸준히"

선업 쌓는 일 불자로서 꼭 해야 할 수행

빤지 이빨에 털이 날 수가 있겠어. 그런데 바로 이런 두가지 화두가 아주 뚜렷하고 크게 보여주는 소식이야. 그러니까 우리 불법은 무자에 떨어져도 안되고 말머리에 떨어져서도 안돼." 이 말이 끝나자 나는 무엇엔가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그 날부터 내 화두는 '판치생모'가 됐지요. 참선하는 사람들이 무엇엔가 애쓰다 보면 의심이 자리잡게 됩니다. 이것이 곧 의정이요 의단입니다. 바로 그때가 중요합니다. 화두를 참구하는 수행자는 철저히 의심해 그 의심을 뭉치고 뭉쳐 의단(疑團)을 형성해야 합니다. 의단은 의심이 크고 견고해 일체의 잡 생각이나 집착, 욕망 등이 조금도 일지 않게 됨을 말하는데, 의단이 굳건해지면 자신도 세계도 하나의 의심덩어리일 뿐 다른 것은 추호도 없게 됩니다. 조주선사의 '무'자를 예로 들면, '무!' 하는 화두를 들면서도 조주스님의 말뜻을 여의면 안됩니다. 말머리에 떨어지지도 말고 무에도 떨어지지 말라는 뜻이지요. 그냥 '무'만 가지고 있으면 그건 무기입니다. 무기공(無記空). 그래서는 제대로 공부를 못합니다. 소되고 말되어서 시주빚 갚을 일밖에 없지요. 그러니 항상 조주스님의 뜻을 여의지 않고 나아가다 보면 힘이 생기고 말머리가 줄고 그냥 보입니다. 그때가 바로 묵조(默照)의 경지예요. 이렇게 화두를 올바로 들어 참선을 하다보면 나중에는 그냥 보게 됩니다. 하지만 작은 깨달음과 단계적 수행경지를 인정하지 않는 화두 참구는 '중생 아니면 부처'식의 극단적 가치관을 형성시켜 불교의 보살도 정신, 보시정신, 포교의지를 등한시 하게 됩니다.

참선 장소는 꼭 절이 아니어도 됩니다. 자기 마음자리를 잡은 사람은 토굴이나 개인 선방과 같이 혼자 있는 곳이 좋습니다. 하지만 마음 자리를 못잡은 사람은 가능한 절에서 훌륭한 선지식에게 가르침을 받으면서 수행하는 것이 좋겠지요.

참선도 중요하지만 초발심자들에게는 염불 하기를 먼저 권합니다. 불교를 처음 접하는 이들이 제대로 된 화두를 들지 않고 참선을 하다가 부처님과의 인연을 끊는 경우를 많이 보았기에 드리는 말이예요. 참선이 곧바로 가는 길이긴 하나 어렵고 체득 기간이 많이 걸리는 반면 염불은 돌아가긴 해도 탄탄대로라 최소한 악도에 떨어질 염려는 없어요. 다시 말해 염불은 헛길이 없이 한 만큼 공덕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염불을 할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부처님께 의지하려는 마음에 의해 기복적으로 염불을 한다면 그 의지하려는 나약한 마음 때문에 원치 않는 불행이 가중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약한 마음을 뜯어고쳐 주는 방법은 오직 고통 밖에 없다는 것을 '내면의 부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부처가 되기 위해 염불을 한다면, 그 거룩한 행위는 '유유상종의 법칙'에 의해 좋은 결과를 낳게 됩니다. 유유상종의 마음법칙은 같은 성질끼리 서로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기 때문이예요.

참선과 염불은 깨우친다는 도리에서 보면 같은 맥락입니다. 참선하다 염불하면 다를줄 알았는데 결국 그 둘의 도리가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없이 긴 시간도 한 생각이고(無量遠劫卽一念), 한 생각 또한 한 없는 시간(一念卽時無量劫)이라는 법성게의 도리 그대로죠. 참선이든 염불이든 일념이면 돌이 아닙니다. 목적은 틀리다 하더라도 올바로 관찰해 나가는 것은 같은 겁니다. 그 자리가 바로 생사가 끊어진 자리이자 여래의 자리입니다. 선은 도달하면 깨달아버리는 자체가 있고 염불은 삼매에 들면 모든 티끌이 벗어진다는 것이지요.

흔히 선법문 하는 것을 보면 '염불은 관문이 아니다. 선만이 관문이다'하는데 그건 말에 떨어진 것입니다. 염불도 올바로 한다면 관문이 안 나올리 없지요. '응무소주 이생기심(應無所住 而生其心)', 이 한 구절로도 홀연히 깨친 도리를 보면 참선문이나 염불문이나 간경문이나 다 같은 보리의 문이지요.

참선과 염불을 통한 정진도 중요하지만 일상 생활속에서 선업을 쌓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불자로서 꼭 해야될 일입니다. 착한 일을 하되 상을 남기지 말아야 합니다. 해와 달이 만물을 환하게 비추지만 비춘다는 상을 내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예컨대 지나가는 사람에게 뺨을 맞으면 황당해 하면서도 사소한 일로 치지만, 자신이 잘해준 사람에게 뺨을 맞으면 오래도록 분한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 사소한 예지만 내가 남에게 무엇인가를 주었다는 착이 남은 탓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잘 하되 했다는 상이 남아 있으면 업이 쌓입니다. 아상이 남아 있으면 선의 나무를 심었어도 잘못되면 악의 과를 거두게 되지요. 그러니 일체 상을 여의어야 합니다. 이처럼 모든 상을 여의는 것이 바로 불법입니다. 이 법은 그림자 없는 나무로 불을 때서 일체 운해를 말리는 도리입니다. 즉 그림자 없는 나무로 불을 때서 안개, 구름 같은 잡티를 말리듯이 열심히 수행 정진해 모든 번뇌 망상을 없애는 것입니다.

나는 공부가 안되거나 번뇌망상이 들면 혼신을 다해 지장보살님께 매달립니다. 관음기도도 좋지만 지장 기도를 해보니 힘이 많이 생겼습니다. 왜 이제야 지장보살님을 찾았나 하는 생각도 들었죠. 부처님 말씀에도 관음·문수·보현 보살을 비롯해 모든 부처님은 백겁을 두고 모셔왔더라도 한치 앞에 있는 지장 보살을 불러 소원성취하는 것이 빠르다고 했습니다. 부처님 말씀엔 헛된 것이 없음을 깨달았지요.

진언에는 관세음보살 멸업장진언이 있고, 지장보살 멸정업진언이 있는데 그 진언에는 두 보살님 밖엔 없어요. 관세음보살님은 그냥 업장을 멸한다고 했지만 지장보살은 정해진 업도 멸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지장보살의 공덕을 안 뒤로는 하루에 십이만번씩 지장보살을 외며 염주를 돌리고 있습니다. 꾸준히 하다보니 틀이 잡히고 힘도 생겨 겉으로 하지 않아도 마음속으로 염주를 굴리며 기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가 밥을 의식해서 먹는 것이 아니듯 염불이든 기도든 매일 식사를 하듯이 꾸준히 해야 공덕이 쌓입니다.

우리 불자들도 많은 시간은 아니더라도 자신을 반성하고 선업을 쌓기 위해 하루 한 번이라도 열심히 정진하세요. 꼭 절에 가야만 수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예요. 언제 어디서라도 몸을 낮춰 절하고 참선하는 장소가 바로 법당이요 도량입니다. 자기일을 하면서도 틈틈히 마음을 한데 모으고 간절하게 염불이나 참선 기도를 하면 불법의 진리에 한걸음 다가서는 것입니다.

정리=김주일 기자
(jjkim@buddhapia.com)

나의 수행일기



유 홍 근

〈강서구청 자원봉사계장〉

무언가 쫓기는 듯한 생활의 연속

마음공부 시작하며 조금씩 안정

서른이 넘은 나이로 공직에 몸 담은 지 어언 10년이 흐른 어느 늦은 가을, 책 2권을 동료로부터 선물 받았다.

소설 형식으로 쓰여진 〈도〉라는 책을 읽으면서 주인공인 큰스님과 같은 분이 정말 계실까 하고 반신반의했었지만, 이어서 스님의 설법으로 이루어진 〈무〉라는 책도 읽게 되었다. 그러나 〈도〉와는 달리 이상하게도 〈무〉는 읽어도 읽어도 싫증이 나지 않고 살아 숨쉬고 있는 듯한 매력을 느낄 수 있었다. 그 길로 한마음선원을 찾아 나선 것이 88년 정월이었고, 정월 셋째 주 법회는 내게 있어서 난생 처음 법문을 듣는 순간이 되었다.

법좌에 오른 큰스님의 법문은 평이한 내용의 말씀 같으면서도 그리 쉽게 내 마음에 이해되진 않았다. 그러나 뜻은 알지 못하나 마음은 한없이 편안해지고 무엇인지 자꾸만 더 듣고 싶어졌다.

이렇게 시작된 나의 불법 인연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불법을 만나기 이전의 나는 경직된 공직사회 환경속에서 근무해 마음은 여유가 없고, 항시 무언가에 쫓기는 듯한 초조한 생활의 연속이었다. 닫힌 내 마음의 내면에선 무언가를 항상 찾았고, 나 자신의 성취감에 대한 불만족스런 생활속에서 방황해 왔다.



그러던 중 큰스님의 법훈록인 〈영원한 나를 찾아서〉라는 소책자를 대하고부터 나의 마음은 서서히 위안을 찾았다. 그래서 책 맨 뒷장에 이런 글귀를 써 놓은 적이 있다. "오랜 방황끝에 인생의 참 뜻, 참 스승, 참된 삶을 찾아 만났으니 이젠 영원히 정착하자"

이때부터 불법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큰스님의 가르침대로 마음의 주인인 주인공이라는 주장자를 마음에 두고 열심히 보고, 듣고, 생각나는 일체를 다 주인공이 한다고 믿고, 놓고, 말기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러나 한마음선원에 다닌지 1년이 넘도록 신행생활을 해왔지만 마음의 큰 변화는 없었다. 그래서 집사람에게 철야정진을 한 번 해 보자고 제의했다. 집사람은 매일 선원에 다니고 있는 중이라 쉽게 동의했다. 우리 부부는 저녁마다 서울 화곡동에서 안양 선원까지 매일같이 철야정진하기를 근 3개월쯤 하고 나서야 내면에서 조금씩 믿음이 서가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쉽게 마음에 확 잡히는 것도 없었고, 또한 깨달음이란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한번은 철야정진 기간 중 직장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유흥을 즐길대로 즐기고, 그래도 선원에 가서 철야정진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 새벽 2시에 집에 와 보니 집사람은 먼저 선원에 가고 없었다. 뒤따라 술이 채 깨지도 않은 채로 선원 새벽예불에 참석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어이없는 일이었다. 천방지축으로 감히 마음공부 한다는 자가 술먹고 법당에 들어가서 예불을 드린다고 하는 모습이라니 정말 가관이었을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새벽예불을 끝내고 버스를 타고 집에 오던 중 버스가 급정거 하는 바람에 버스안의 손잡이 고리가 내 손등을 탁 쳤다. 그 순간은 별로 아프지 않았으니 집에 돌아와 보니 오른 손 가운데 손가락이 약간 부어 있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일주일이 지났다. 그런데 웬일인지 가운데 손마디가 자꾸만 부어오르고 움직일 수가 없었다.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의사가 "이렇게 손마디의 뼈 조각이 떨어진 것은 백만명 중의 하나가 나올까 말까 하는 상처"라고 했다. 상처는 한달이 지나도 낫질 않아 참회하는 마음으로 정진했다. 그 후 다친 손은 언제 상처가 있었더냐 하듯이 감쪽같이 나았다. 이런 일이 있고 나서부터는 자연스럽게 술과 완전히 멀어지고 마음공부수행은 더욱 깊어져 갔다. 〈계속〉

※ 본 광고는 총무원장 선거법 제15조에 의한 제29대 총무원장 선거 입후보자 종책광고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제29대 총무원장 후보자 법열스님



기호 5번

금일의 종단 이대로는 안된다 !!
법열스님과 함께 종단 제3정화 불사에 동참합시다.

우리불교는 민족문화를 꽃피어온 종교로서 시대의 주인공이 되어야 하며 국민정신을 계도하는 구심점으로 우뚝서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의 교단은 대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시련과 도전에 직면해있습니다. 힘을 결집하여 시대적 소명에 현명하게 대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호 모략과 분열로 인하여 제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심각한 실정입니다.
오늘의 종단은 21세기 미래를 바라보는 중요한 싯점에서 반드시 승가 가풍은 되찾아져야 하며 계층간, 문중간 존중된 위계질서와 화합승가의 자세는 반드시 확립되어야 되겠습니다.
미래의 힘찬종단과 한민족 통일을 열어가는 민족종교로서 지도자를 뽑는 중요한 선거의 자리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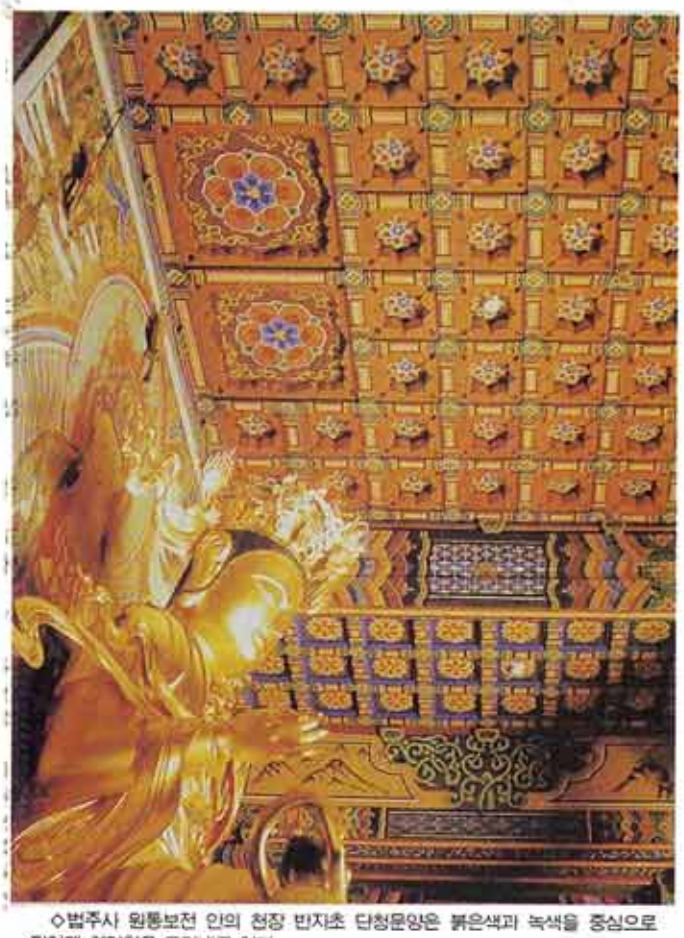
■ 화합승가의 가풍을 세우는 종책을 펼치겠습니다.
1. 종정, 원로대덕 큰스님을 받들고 아래로는 후학들을 자혜로 이끌어주는 출가사문의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 문중간, 계층간화합과 위계질서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3. 중징계를 받은 스님일지라도 선별해 대사면을 단행하여 화합차원에서 종단발전에 동참시키겠습니다.
4. 종정 중심제를 환원시켜 흔들림없는 전통 수행가풍을 반드시 이어 나가겠습니다.
5. 지방자치시대에 맞추워 교구자율권을 부여하므로서 최대한 공정한 인사행정이 이루워지도록 하겠습니다.

■ 21세기 미래의 힘찬종단과 한민족 통일을 열어가는데 앞장서겠습니다.
1. 승가교육의 체계적확립과 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풍토조성을 펼치겠습니다.
2. 재가신도의 체계적 교육과 조직의 극대화로 정토구현을 이루겠습니다.
3. 대도시에는 조계종 불교 종합회관을 건립하여 그지역에 있어서도 중심역할을 하여 종단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4. 불교방송, 케이블 T.V 및 불교병원설립에 적극지원하겠습니다.
5. 사설사암에 있어서도 종단발전차원에서 동참하도록 문호를 점차 개방하여나가겠습니다.
6. 스님들의 노후를 위하여 승무비 지급을 위한 복지정책을 적극 펴나가겠습니다.
7. 정부의 불교재산과리법에 있어서도 우리의 자주권을 반드시 지켜나가겠습니다.

법열스님 이력
- 조계사에서 경보화상을 은사로 득도 (57년)
- 범어사에서 동산화상을 계사로 비구계 수지 (62년)
- 제방 각지에서 10하안거 성만 (63~73년)
- 불교중앙교육원 제2기 수료 (72년)
- 조계종총무원규정부 정보과장 (77년)
- 대한 웅변인협회 운영위원 (75년)
- 대공투쟁 동지회 제2부장 (71년)
- 활인방생운동 중앙총본부장 (80년)
- 한국불교반공연합회 충남도지부장 (82년)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무량광명 가르침 황금빛에 비유



◇법주사 원통보전 안의 천장 반자초 단청문양은 붉은색과 녹색을 중심으로 장엄돼 화려함을 드러내고 있다.

월2회 연재

상징으로 보는 **불교문화** 18

색

먹물빛 옷은 수행자의 상징이다. 예로부터 출가하지 않은 세속의 사람을 백인(白人)이라 하고, 세속을 떠나 치열한 구도의 길에 들어선 수행자들은 검게 물든 옷을 입었다 하여 치인(緇人)이라 했다.

불전에 모셔진 불상은 모두 황금빛으로 장엄돼 있다. 금빛, 즉 노란색은 옛부터 귀함의 상징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금구(金口)라 하고, 부처님의 몸을 금신(金身)이라 했다. 황금빛은 무량광의 가르침을 상징하며 불상은 어떤 자료로 만들었던 간에 그 표면은 금니나 노란 도금을 해 신성과 권위를 상징했다.

자주빛 안개가 서려 있는 문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불국사 '자하문(紫霞門)'. 자주빛은 자금색으로 부처님의 몸 빛깔을 상징하는데 자하문 또한 부처님의 몸에서 풍겨 나온 자색 서기가 구도자에게 안개처럼 피어오름을 상징한 것으로 부처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이란 뜻이다.

사찰을 한층 아름답고 기품있게 장엄하는 단청은 노랑 파랑 빨강 하양 검은 색, 즉 오방색이 중심이 된다.

■검정

우리나라 스님들은 검정물감이나 숯으로 물들인 회색빛 승복을 입는다. 때가 잘 타지 않고 활동하기에 편리하며, 비용이 적게 드는 등 검소한 복색이기 때문이다. 고려때 왕의 자문에 응하던 승려를 '흑의재상(黑衣宰相)'이라고 했다. 불교에서의 흑승지옥(黑繩地獄)은 팔열 지옥의 하나로, 살인이나 절도죄를 지은 자가 가게 된다.

불교에서 유래된 '묵인(墨印)'은 '먹으로 새겨 두다'의 뜻으로, 먹글로 전수받은 불법을 마음에 새긴다는 의미이다. 이는 여러단계로 구분되는데, 부처님에게서 친히 수지불망(受持不忘)하는 단계, 고승에게서 여러스님들과 함께 수지불망하는 단계, 중생과 함께 많은 스님에게서 듣는 단계 등으로 나뉜다.

먹으로 표현되는 불교의 가르침을 형상화한 것으로 선화와 서예가 있다. 달마나 나한상, 십우도 등이 그것이다. 특히 달마상은 수묵화가 많다. 먹의 농도로써 생략, 압시, 상징 등을 통해 수행의 경지를 나타내며 이러한 선서화에서는 탈속과 이심전심의 직관의 미를 느낄 수 있다.

■괴색

범어 카사야(Kasaya)를 번역한 것으로 부정색(不正色), 탁색(濁色), 탁염색(濁染色)이라고도 한다.

괴색 가사는 인도에서 사계절 평상복으로 착용했으나, 중국에 전래되면서 불교의식 및 법회때 걸치는 의식복으로 사용됐다. 우리나라는 삼국시대 중엽에 흑장삼과 붉은 가사가 전래됐다.

오늘날 가사는 종파와 법계에 따라 그 색과 형태에 엄격한 규정이 있는데, 현재 조계종에서는 괴색의 가사를 착용한다.

■노랑

노랑은 번영과 신성을 상징한다. 부처님의 모습을 나타낸 32상 중 열네번째에 몸이 금빛으로 빛나는 금색상이 설명되어 있다. 모든 부처님의 얼굴빛이 노랗다 하여 선종에서는 황면노자, 황면구담이라 하며 부처님의 유골을 금골(金骨)이라 부르기도 한다.

특히 목조아미타좌상의 금색상은 아미타의 정토가 광명에 의해 장엄됨을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또 노란 종이나 비단에 경문을 쓰고 붉은 막대에 붙여 둘둘 말았던 불교경전을 황권적축(黃卷赤軸)이라고 했다.

노란색에 화려한 수를 놓아 만든 금란가사는 국사 등 아주 높은 지위의 스님들이 입는 가사이다. 자장 율사의 금란가사가 양산 통도사와 정암사에, 대각국사의 금란가사가 선암사에 전해내려온다.

■빨강

붉은색은 푸른색과 함께 단청의 주조를 이룬다. 점음과 정열을 나타내는 색 빨강은 벽사(辟邪)의 괴미가 있어 부적같은데 흔히 쓰인다. 스님들이 입는 전통복식인 가사 가운데 홍가사가 있다. 오래전부터 붉은 가사는 불성과 사자상승하는 정법안장을 상징한다.

■녹색

녹색은 생명력을 상징한다. 녹색 유리배 및 녹색 유리제 사리병에 불사리나 불법을 설한 경전 등을 넣는데 무량한 생명력을 지닌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는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선종에서 쓰는 말로, 화홍유록 또는 유록화홍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인공을 가미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상태를 가리킨 말이다. 꽃이 빨간 것은 자연의 이치를 구현한 것이고, 버드나무가 푸른 것은 자연의 순리로서, 녹색은 자연과 생명력을 상징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섯가지 색으로 상징한 불교기.

■흰색

불교에서는 청정한 마음을 하얀마음이라 하고, 착한 업보를 쌓는 것을 백업(白業)이라고 한다. 석가모니는 정신인 호명보살을 벗어 버리고 도솔천에서 사바세계의 마야부인에게 잉태될 때, 흰 코끼리를 타고 하강했다. 여기서 흰색은 석가모니가 이승에 청정세계를 건설하고자 한 의지의 표상이다. 그리고 사천왕 중에서 동쪽을 지키는 지국천(持國天)의 상징색도 흰색이다. 부처님의 32상 중에 두 눈썹 사이에 흰털이 있다는 백모상이 설명돼 있다.

■불교기

불교기는 1954년 스리랑카에서 열린 세계불교도대회에서 정식 승인되었으며 현재 세계의 불교국가나 단체에서 사용하고 있다. 불교기의 5색의 가로선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나타내고, 5색의 세로선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영원불멸하다는 뜻을 상징한다. 불교기에 사용한 색깔이 상징하고 있는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청색: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부처님의 법을 구하며 살아가는 힘을 의미하므로 정근과 지혜를 뜻한다.

△황색: 찬란한 부처님 몸의 빛과 같이 변하지 않는 마음을 의미하며 금강의 지혜를 뜻한다.

△적색: 대자대비한 법을 닦아 항상 쉬지않고 수행에 힘쓰는 자비와 정진을 뜻한다.

△백색: 깨끗한 마음으로 온갖 악업과 번뇌를 없앤 청정의 지혜를 의미한다.

△등색: 수치스러움과 그릇된 길로의 외입에 칼 견디어 내는 인욕의 지혜를 뜻한다.

■단청

단청이란 여러가지 색을 써서 건조물과 공예품 등에 아름다운 문양을 장엄하는 것이다. 단청은 사찰 등의 건물에 불전으로서의 의미를 부여하고, 목조건축의 결점인 충해피해와 부식을 방지해 오랫동안 보존하는 역할도 한다.

우리나라 단청의 기원은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그 기원을 살필 수 있다. 고려시대 사찰 단청의 채색과 문양은 단순하면서도 우아한 격조로 나타냈으며, 조선시대에는 백채의 사용이 매우 다채롭고 원색적으로 변화하는 등 시대별로 특징을 지닌다.

단청은 동양사상에서 말하는 음양오행설에 근거한 청, 적, 황, 백, 흑의 오채의 조화를 추구하며 발전해 왔는데 그 중요성이 인정돼 1972년 중요무형문화재 제48호로 지정됐다. 현재 지정된 기능보유자는 만봉스님과 석장스님, 홍점석씨 등 3명이다.

이은자 기자(ejlee@buddhapia.com)

노랑 **금골 · 금란가사 등 신성 상징**

흰색 **백업 · 지국천 등 청정세계**

검정 **검소한 수행자상 '흑의 재상'**



◇흰색은 청정함을 나타낸다. 석가모니는 흰코끼리를 타고 나타나 마야부인에 잉태됐다.



◇지장율사가 당나라에서 가져왔다는 석가여래의 금란가사. 통도사에 봉안돼 있다.



◇먹으로 그려진 달마도(조선시대 김명국作). 거침없는 필선과 먹의 농도가 선종의 초조 달마의 기상을 잘 표현했다.



◇물사리를 모신 사리병의 녹색은 무한한 생명력을 상징한다.

※ 본 광고는 총무원장 선거법 제15조에 의한 제29대 총무원장 선거 입후보자 홍보광고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제29대 총무원장 후보자 대우스님



기호 6번

1. 종정교시 봉대

석존의 경률에 따른 종정예하의 교시는 신성불가침으로 절대 봉대하여야 한다.

2. 총무원장 선출방법

총무원장 선출은 비구 · 비구니 직선제로 한다.

3. 비구니 종정 참여확대

비구니 스님들에게 2개 본사를 할애하고 종회의원 현재 10석에서 30석으로 한다.

4. 종정교시에 따른 대사면

비구의 소의율에 위배된 징계는 사면이 아니라 전면 시정토록 한다.

교육부분

불타의 구도서원으로 정진하는 수행자 교육
계율행에 보살서원의 덕목을 실천하는 수행자 교육
상설종도 수행 교육장 개설
연기법에 의한 인류의 자각을 일깨우는 수행자 교육

재정부분

삼보정재는 사부대중에게 공개 공영화 하는 것을 원칙으로한다.
삼보정재의 증식과 합리적 생산을 위해 사업국을 둔다.
삼보정재는 교육, 포교, 60세이상 노후 스님들을 모시는데 일정액 보시와 의료 복지 정책로 쓰도록 한다.

인사문제

말사 주지는 본사 주지가 품신하여 총무원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5년으로 중임, 겸직도 할 수 있다.
본사 주지는 말사 주지스님들의 추천으로 종정이 임명하고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종회의원도 겸할 수 있다.
종회의원 수는 교구별 3명으로 하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겸직할 수 있다.

대우 스님 이력

득 도	1959년 3월 9일	전북선운사에서 운기화상을 은사로 득도
수 계	1967년 9월15일	백양사에서 석암화상을 계사로 비구계 수지
안 거	1969년 4월15일	전남 대보사에서 수선안거 이래 12하안거성만
경 력	1976년 5월 9일	군인정신교관, 전북향승 위원장
	1978년 9월15일	시문학, 한국시학, 수필문학 회원(시인)
	1980년11월29일	제24교구 선운사본사 주지
	1983년 7월 5일	내소사 주지
	1985년 5월24일	은적사 주지
	1987년 4월 3일	전라북도 경승단장
	1988년 3월 7일	군산시 시정자문위원
	1988년 5월 1일	KBS 군산방송국 자문위원
	1988년 6월 7일	제 9,10대 중앙종회의원
	1989년 6월 9일	서울신문 KBS 법무부 제정 교정대상 수상
	1990년 9월21일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포교부장
	1991년 2월25일	동국대학교 불교교육대학원 수료
	1991년 7월 2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교무부장
	1991년10월10일	경찰청 경승실장
	1991년10월13일	중앙 승가대학 이사
	1992년 6월	불교방송국 상무
	1992년 8월	법사불보신문 주필(현)
	1992년10월21일	대통령 표창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길을 묻는 이에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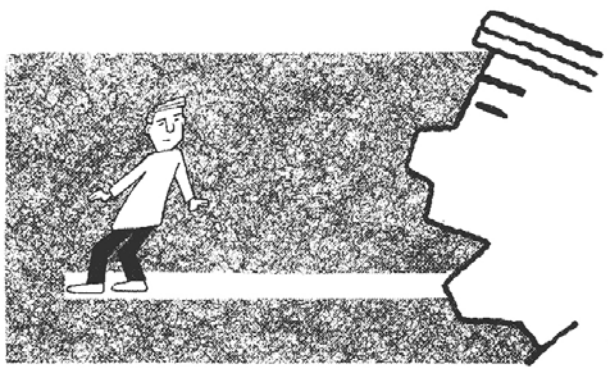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FAX: (02)737-0697/8
● PC통신: 인터넷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nmaum

나는 쑥 빠진채 놓고 지켜보는게 '관'

나를 발견하기 위해 조용히 앉아 '네가 있다는 증명을 해보라'고 관하는게 바로 들어가는 관법


그림 · 최주현

생활하면서 정진하는 법

문 정진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전에 스님께서 저녁때 잠들기 전에 하루를 되돌아보고 반성을 하고 자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시간을 제대로 살면 하루를 제대로 살게 되는 거겠죠. 자기 전에 반성하고 잠들고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가지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루를 살 때 순간순간을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큰 정진이 되는지 한 말씀 해주십시오.

답 그냥 생활선법이 아닐까요. 우리가 생활하면서 하되 앉으나 서나, 자나 깨나 그냥 내 주인이 그렇게 시키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 주인을 감사하게 생각하라는 게 참선입니다. 그냥 그대로 참선이예요. 공부를 하는데 있어서 나를 발견 못했으면 진짜 공부를 못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를 발견하기 위해서라면 저녁이면 조용한 틈을 타서 한 30분이라도 앉아서 '네가 너 있다는 증명을 할 수 있는 거지 누가 증명을 해주느냐?' '당신만이 당신이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해줄 수 있는 거지, 누가 증명해 주느냐?' 하고 관하세요. 그것이 똑바로 직속 들어가는 관법이 거든요. 물론 좌선도 되지만 그게 관법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발견하지 못했을 때 지극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도리죠. 그리고 살림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에 한해서는 특히 더하죠. 우리가 이 도리를 발견할려면 첫째, 다섯 가지 요소가 다 거기서 나오고 빚어진다는 거를 알아야돼요. 또 관습이라든가, 습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마찬가지요. 본래 살던 습성이 나오면, 그냥 나오는대로 생각하게 돼 있거든요. 나오는대로 말하고 나오는대로 하거든요. 그걸 한번 굴리지 못하니까 습성이 떨어지지 못하고 그 이 차차 없어지죠. 그러고 등글어지고 둘로 보지 않게 되고 빨리 그 몸통 안에서 벗어날 수 있죠. 몸통을 통이라고 그냥 하죠.

일감 적을땐 점심 굶으며…

문 제가 조그만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하다보면 어떤 땐 일감이 적게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점심을 안먹고 '저 일감 가지고는 내가 이렇게 함부로 밥을 먹을 수 없으니까 너희들이 나가서 더 벌어들여 오든지 일을 더 많게 하든지 하라' 그러구선 어떤 땐 굶어 버립니다. 그랬을 때에 그것이 공부와 관련해서 내면과의 대화가 되는 것인지 여쭙습니다.

답 만약에 내가 당신이라면 이렇게 하겠어요. '점심을 먹게 하는 것도 너고, 먹지 못하게 하는 것도 너니까 알아서 해.' 그게 배우는 과정에서 톡톡한 맛이 나는 도리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만약에 그렇게 안됐으면 굶으라는 거로구나 하고 굶고, 또 먹게 되면 먹게 했구나 하고 감사하게 먹고, 하다보면 들고 나고 들고 나고, 안되고 되고 되고 안되고, 이것이 나중에는 그냥 막 돌아가버려요. 그렇게 한참 돌아가야 뭐가 되는 거니까 부지런히 관해보세요.

하여튼 모든 분들이 내가 볼 때는 지극히 하시기 때문에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고기들이 바다에서 벗어나지 못하듯이 인간도 공기 주머니에서 절대적으로 벗어나지 못하고, 죽어도 거기, 살아도 거기, 모습만 달리해서 나오고 벗어나지 못하거든요. 내 몸뚱이 안에서 살아서 벗어나지 못하면 죽어도 여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니 더우면 더운대로, 추우면 추운대로,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운대로 그냥 '네 놈 알아서 해, 난 너 심부름이나 할 거야 그냥 꽉' 하하하….

인간의 몸뚱이는 전부 고깃덩어리에요. 그러니까 진짜로 여러분의 주인한테다 삼배 올리시고 정리하시고 그러세요.

자재를 자주 도난 당해요

문 자성본래불에 귀의합니다. 평소 현대불교 지상을 통하여 큰스님께서 불자들에게 자상히 일러 주시는 생활의 지혜 법문을 매주 접할 때마다 크나큰 위안과 감사를 느끼고 또 느낍니다.

살던 습성 떨어지지 않으면 열쇠 못받아 일념으로 관하면 자면서도 깨어 있게돼

말씀드리기 송구스럽습니다만, 저는 고등학교 행정 책임자로 있으면서 학교 내 중요기자재가 자주 도난당하여 책임 차원에서 고뇌스럽습니다(범인은 출입하는 학생으로 추정됩니다만 확증이 없음).

무슨 인연의 도리인지 전생의 업연으로 생각되면서 고민스럽습니다.

도난당하게 한 것도 거기, 다시 그 자리에 그 물품이 돌아오게 하는 것도 그 자리라고 주인공에 맡겨놓는 노력을 되풀이 합니다만 해결이 안 되어 고충입니다.

원컨대 이 문제 해결의 가르침을 청하오니 하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답 편지를 보냈으면 답장이 올겁니다.

다만 왜 빨리 안 올까 하고 조바심을 내서는 안되지요.

구구절절 간곡한 사연을 적어 보내셨다면 꼭 걱정하십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이 공부는 믿음이 첫째입니다. 그리고 한치도 에누리가 없는 공부입니다. 그러니 굳게 믿고 또 믿어보세요.

부모님 생사 · 이름 모릅니다

문 저는 워싱턴 지원의 이광훈입니다.

혜양스님의 보살핌으로 지원 신도 모두 잘 지내고 있습니다. 혜두스님께서도 어린이 법회를 잘 이끌어 주시고 계십니다.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주인공의 입장에서 보면 네 부모 네 형제가 따로 없이 모두가 하나인데 때가 되면 자기네 조상님들을 위해 불을 밝혀 드립니다. 저는 저의 부모님의 생사도, 이름도 모릅니다. 성도 모르는 저의 조상님들을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혹시 저의 친부모님께서 불자시라면… 하는 마음에 이글을 씁니다(이광훈: 63년생 출산 후 바로 그 당시 서울 수경사에 계시던 육군 현병 대령집으로 입양됨).

답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길을 가시다가 해골무덤을 보시고 절을 하셨다는 얘기를 아실겁니다. 그것은 바로 어느때든 내 부모 내 조상이 아니었겠느냐, 그러니 내 부모 네 부모가 둘이 아니다 하는 말씀이셨죠.

조상님들의 얼굴도 모르고 어떤 분이셨는지를 모른다해도 부모님이 계셨으니까 지금 내가 확실하게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남들 하듯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조상님과 마음으로 감응이 되고 통신이 될테니까요.

'관' 공부와 활구참선 다른점

문 스님의 '법공양 페이지'를 열심히 읽으며 배우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해태심이 날때마다 많은 에너지가 되는 스님의 가르침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데 스님의 그 '놓고 관하세요'라는 그 말씀을 접할때마다 강하게 일어나는 의문점이 있어 이렇게 감히 편을 들었습니다.

'놓고 관하는 법'과 '간화선' 즉, 의심참구법(활구참선)과의 차이점 입니다.

그둘은 서로 어떻게 다른지요?

스님의 '관하세요'라는 말씀을 소위 '관법'으로 해석하면 되는건지요?

그리고 그 관하는 것도 많이 훈련되고 익어졌을땐 '몽중일여' 즉, 잠을 자면서도 가능 한건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답 어떤분들은 이뭐꼬나 무자 화두를 따로 들게 하는 줄 압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그 자체가 이미 화두이고, 이 몸뚱이 이렇게 움죽거리는게 바로 화두라고 말이죠.

부처님께서도 그러셨죠. 행주좌와 일거수 일투족을 지켜봐라. 숨 쉬는 걸 지켜보고 발걸음 떼어놓는 걸 지켜보고 말하는 걸 지켜보고…. 그렇게 하나도 빼놓지 말고 지켜봐라. 그래야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고 말입니다.

본래는 하나도 고정된게 없기 때문에 '나'라고 할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과연 무엇이라고 해야 하고 어디 있다고 해야 하는가? 그걸 알려면 '내가 나로 소이다' 해가지고는 영원히 알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나는 쑥 빠져라, 놓고 지켜보아라, 그래야 볼 수 있고 알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게 하는게 관하는 겁니다. 이름이야 뭐라하든 말입니다. 그렇게 아주 일념으로 가다보면 잠을 자면서도 깨어있게 됩니다.

맡겼으면 간섭 않아야 되는지요

문 저희 아버지는 잔소리가 좀 심하신 분입니다. 제가 무슨일을 하려해도 중간에서 자꾸 일일이 간섭을 하기 때문에 짜증만 나고 될일도 안된다고 느껴왔습니다. 나도 생각이 있는 사람인데 왜 일거수 일투족을 간섭해서 의욕을 꺾고 사람을 불안하고 초조하게 만들까… 하고 불만을 가져왔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나도 그러는건 아닐까? 내 주인공도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는데 자연스레 맡기지 못하고 쓸데 없이

☞ 16면으로 계속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 본 광고는 총무원장 선거법 제15조에 의한 제29대 총무원장 선거 입후보자 증책광고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제29대 총무원장 후보자 종후스님

"불씨 하나가 광야를 태우리"


기호 7번

만남을 …
강물이 바다를 만나면
저절로 그 폭이 넓어지는 것처럼
작은 내 마음
바다에 점 찍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양심적으로 일함으로서
불교 발전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 선교 양종의 수행풍토 정립
—. 불교계의 사회 복지 활동의 활성화
—. 육화합 정신에 입각한 선별적 사면 복권

종후 스님 이력

득 도 월산 큰스님 은사,
석암 큰스님 계사

경 력 노적사 주지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수석 부회장
불국사강원 총동문회 회장
대한불교 사설사암연합회 회장
고양시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영등포교도소 불교교화위원회
수석 부회장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FAX: (02)737-0697/8
● PC통신: 인터넷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nmaum

법공양 페이지

잘되는 것도 안되는 것도 주인공의 몫았

☞ 15면에서 계속

사로운 생각으로 자꾸 간섭하기 때문 자동으로 될 일도 힘을 잃고 멈추는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되든 잘못되든 맡겼으면 군말없이 퇴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답 그렇지요. 그렇게 '나'라는게 붙질 않는 겁니다. 본래 고정됨이 없이 돌아가니까 '나'라는게 없지만 사람은 일거수 일투족에서 나, 나의 것이라는 생각에 아주 찌들어서 그런 생각에 젖어 있다는 것 조차 모르고 지냅니다.

그래서 애초부터 '나'가 붙질 않게 하면 잘되는 것도 주인공에 맡기고 안되는 것도 주인공의 몫으로 돌려서 놓고 맡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섭을 않게 하는 것도 주인공이 알아서 하라'고 놓고 또 놓고, 그렇게 거듭거듭 놓고 맡겨야 하지요.

주인공 발현을 바라는 이유

문 질문한 내용에 대해 답변을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저의 형은 이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데 형이 말하길 "하루에 아무 때도 조용한 가운데 자기의 주인공이 발현되어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으로 되돌리는(참선이라고나 할까요)그러한 것을 시간을 내어서 꼭 하는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지역법회에서 가장 권하는 것이라고 하며 저에게도 이것만은 반드시 해야한다고 권장 합니다.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자신이 존재하고 세상이 존재하는것이 주인공이 있음을 나타내는 확실한 증거인데 굳이 마음으로 주인공이 발현되기를 바라며 마음으로 되돌리는 작업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자연의 모든 것을 보고 주인공이 있다 확신하는 그 이상의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인지요?

답 그렇게 '아는 것'과 맛을 보는 것은 다르지요.

이론으로야 온갖 경전말씀도 있으니 웬만한 사람이면 다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다릅니다. 지가 그런줄 알더라도 확연치 않으면 본래로 행동 따로가 되고 말지요. 그건 지혜가 아니라 알음알이 일 뿐입니다. 이것은 깨닫고 실천하는데 있습니다.

가령 중국집엘가서 메뉴판을 보고 무슨 무슨 요리를 파는지 금새 알았다해도 먹어보아야 제 맛을 알지 않겠습니까?그래야 그 집 짜장면이 맛이 있다 없다라고 말할 수 있고 다시 먹으로 갈 수 있지 그 집에서 짜장면을 파느냐 안파느냐만 알아서야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스스로 확신이 섰다면 스스로 증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욕하는것 같아 법회 못갑니다

문 스님, 기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제 개인적인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법회에 가는 일입니다. 법회에 가서 스님 말씀을 듣고 싶으나 자꾸 그곳에 오신 신도님들이 왜 저렇게 인상을 구기고 있나? 기분 나쁘게…, 저 밖에 모르는 놈이다…등등으로 저를 욕하는것 같아… 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주인공 너만이 괜찮게 할수 있잖아하고 맡기고 있지만 왠지 주인공의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지난 법회를 보고, 현대불교신문에 실린 스님의 글도 보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꼭 마음 편히 스님의 법문을 남이 욕한다는 생각 없이 듣고 싶습니다. 이것을 고칠려고 신경정신과에도 다녀보고 했습니다만… 별로 소용이 없었습니다. 전생을 기억해서 고친다는 곳에 한번 가보고도 싶지만 현대불교신문에서 스님이 어느 독자의 그것에 대한 말에 그렇게 과거에 매달려서 되겠습니까?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주저주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왠지 과거에 지은 것이 현재에 나오는것이라는 스님의 말씀과도 일맥상통하는것도 같아 한번 가보고도 싶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인공이 하는 것이라 굳게 믿으며 나아지기만을 기다리겠습니다. 참… 전에 스님 친견을 한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그마음이 너의 본래의 마음이 아니야! 하셔서 제딴에 생각하기에 나의 진심이 아니라는 말도 같고 나의 마음을 여원 한마음이라는 말도 같아서 '한마음 말입니까?' 했더니 스님께서 '그렇지' 하셨습니다. 그럼 한마음이 나타날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속지 말라고도 하셨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주인공, 너만이 할수 있잖아?'라는 말씀을 붙들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말을 하다보니 두서가 없이 되었습니다. 이메일 보내는것도 주인공이 하는거라 믿으며…병이 낫던 안낫던 맡기겠습니다.

답 스스로 병이라고 규정지으면 병입데지만 주인공에 놓고 맡기고 사신다면 병 붙을 자리가 없습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것을 걱정하시는데 눈 달린 사람들이니 제 가끔 그렇게 저렇게 볼려면 보고 말려면 말겠지요.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설사 이목구비가 번듯하지 않다해도 생긴대로 보이겠지요. 그런데 무얼 걱정하십니까? 보고싶은 대로 보라고 내 버려두고 스스로는 그런 걱정을 놓고 관하기만 하면 됩니다.

목이 돌아가서 불편합니다

문 저는 큰스님의 가르침으로 계속 놓고 관하는 공부를 하고 있읍니다. 몸에 관하여 몇 말씀 여쭙고자 합니다. 그전에 군대에 갔다올때까지는 차려자세나 거울을 보고 있을때나, 남과 대화할때도 턱이 흔들리지는 않았읍니다.(약간 좌우로 흔들립니다)

사진을 찍을때보면 사진사가 약간 얼굴을 수정하는 것으로는 목이 약간 정면에서 틀어 진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 관하고는 있으나 이 부분은 오래도록 고쳐지지 않아 생활에 불편이 있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요즈음 와서는 컴퓨터등 정면을 보고 있으면 사팔뜨기처럼 자꾸 오른쪽으로 눈알이 치우치는 느낌을 가지고 있읍니다. (근일중 처가에 조카(장애아동)가 있는데 사팔로 눈을 뜨고 어려운 모습을 짓기에 마음이 격하였습니다)

어떻게 공부하여야 하는지요! 가르침 바라옵니다. 항상 감사하옵니다….

답 전에 목이자꾸 돌아간다며 비슷한 일로 고민하는 분이 찾아왔더랬습니다. 그래서 그랬죠. 날 더러 어떻게 좀 해달라고 하시지 말고 나온 자리에다 되 말기는 도리를 실천해 보라고요.

모든게 다 업식 놀음이고 그런 증세도 다 업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온자리에 되 놓아야 전자에 녹음 되었던 것이 지워지듯이 바로 잡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건성으로 해서는 아무리해도 효과가 없고 놓고 맡기되 지극 정성이어야 합니다. 파도 속에서도 배를 바르게 몰아갈 수 있는 사람은 선장입니다. 승객이라면 선장을 철석같이 믿고 그에게 맡겨야 하겠지요.

마음껏 타락해 보고 싶습니다

문 아무리 공부를 한다고하여도 말만 앞설뿐 행동은 세속적 욕망을 향하여 치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 욕망도 주인공이 만들어냈으니 주인공 너의 책임이다하고 책임전가를 하고 마음껏 타락하고 싶은 생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모든것들을 만들고 관장하는 주인공이 죄도 받고 상도 받고 …죄도 청천도 깡그리 지워버릴수 있지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답 책임전가를 하신다니요? 놓고 가는데 책임을 전가하고 욕심대로 한다는게 어디있습니까? 놓고 다 맡겼으니 나는 다만 하인일뿐인데 제멋대로 하신다고요?

내가 짓고 내가 받게 되어 있기에 업을 녹이려면 몽땅 놓고 맡겨서 스스로 매이지 않게끔 되어야 한다고 누차 말씀드렸을 겁니다. 무엇을 놓고 무엇을 맡기느냐? 그 욕망, 타락하고 싶은 마음을 놓고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야 전자의 업이 녹고 새롭게 진화 할 수 있는 계기를 잡게되지요.

그렇게 타락하고 싶다고 멋대로 행동한다면 그게 씨앗이 되어 열매가 맺힐 때는 무엇으로 되 나오게 될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중풍 악화돼 걱정돼요

문 저는 공부에 관한 질문보다 사적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의 어머니가 중풍으로 쓰러지셔서 자리에 누워계시는데 세 번의 뇌수술을 받고도 아직까지 쾌차됨이 없이 오히려 지금은 증상이 악화되어서 말을 못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어머니의 건강이 완쾌될 수 있는지요.

답 나는 의사가 아니예요. 의사는 아니지만 마음 도리를 안다면 몸 속의 중생들의 의식이 본인 마음에 따라주고 작용을 해 주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어떠한 병이든지 내가 낫고자 한다면 안되는 게 없다는 결론이 나오죠. 병 뿐만이 아니라 일체만법이 다 그래요. 그런데 환자는 알 수 없으니 가설이 되어있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세요. 어머니라는 가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인공에 모든 것을 맡기고 내 주인공만이 우리 어머니 병을 낫게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진실하게 가지고 환자가 먹는 음식도 신경을 써서 간호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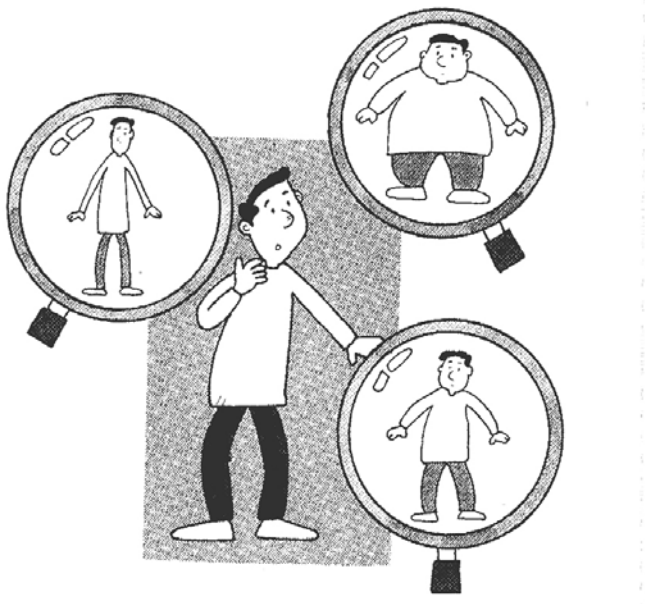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내 잣대로 재지말고 상대방 입장 돼보세요
모든게 업식 놀음이니 나온자리 되 놓아야

나오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지 말고
상대방 생각해서 한번 굴려 놓으면
차차 둥글어져 둘로 안보게돼

협찬 주인공

생활 속의 불교 (191)

소가 될 양이면 코뚜레 안뚫린 소가 되라.

남의 따귀를 한 대 때렸으면 언젠가는 그 따귀 한 대가 되돌아온다. 남에게 밥 한 그릇을 주었으면 언젠가는 내게 밥 한 그릇이 되돌아온다. 그런 되갚음은 철칙이다. 철두철미한 법칙이다. 무심코 떨어뜨리는 생각 하나하나라도 결과가 없는 법은 결코 없다.

업이란 밖에서 안으로 들어와 마음속에 쌓이는 게 아니다. 그것은 한생각을 따라 일어나 채곡채곡 쟁여진 것이다. 본래 주인공 자리는 공하여 업이라는 실체가 없고 그럼으로써 업이 붙을 자리도 없건만 공한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놓을 줄 모르고 생각으로 지어서 제 등짐을 쌓아 올리는 것이다.

그저 자기가 자기인 줄만 알고 '나' '나의 것' 하면서 쌓아 올려 놓고서는 업에 치이고 윤회에 말리고 하는 것이니, 말하자면 제 손으로 제 살을 갈갈이 뜯어 놓고는 아프다 하고 약 발라야 한다고 하는 것이나 같다.

불성이 있기에 만법에 응용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원리 자체가 응보를 하고 사람의 행이 어떠냐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원리가 응보하는 것이다. 사람이 되었다, 벌레가 되었다, 소가 되었다 이러는 것도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다. 그러기에 마음이 중요하다.

세간을 이해하는 데는, 원인 없이 과보가 있을 수 없다는 엄정한 인과 법칙처럼 정확한 것이 없다. 동시에 인연 법칙을 아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아는 것이다.

오직 부처님만이 인과법 위에 영원의 길이 드넓게 열려 있음을 보시고 가르치셨다. 인연의 법칙은 곧 영원한 진리요 영원한 가르침이다.

자기가 먹은 것에 걸린다. 자기가 행한 것에 걸린다. 자기가 말한 것에 걸린다. 육체에 걸리고 삼독심으로 또 걸리고 하니까 그렇게 쌓이고 쌓인 것이 어디로 가겠는가. 그러니까 코뚜레 뚫린 소가 되어 가지고 음메음메 하면서 자기가 한 것을 다 되풀이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소가 될 양이면 코뚜레 뚫리지 않는 소가 되라 하는 것이다.

인과는 썩지 않는 씨앗과 같다. 선한 씨를 뿌리면 선과가, 악한 씨를 뿌리면 악과가 온다. 인과의 씨는 썩지 않고 나고 또 나며 돌고 또 돈다.

업이라는 것은 머리카락 한 올만큼의 어긋남도 없다. 그러므로 제 앞에 닥친 고를 원망하고 탄식할 게 아니라 자신을 되돌아보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자기가 지은 대로 자기가 받는다. 그래서 옛 가르침에 "그릇에 삼독이 꽉 찼는데 어떻게 자비를 받을 수 있겠느냐"고 한 것이다.

번연히 알면서도 지키지 못하는 것은 알면서 받고, 몰라서 지키지 못하는 것은 모르게 받는다.



선업도 업이다. 일단 기록된 이상 그 입력이 거꾸로 나를 지배하게 된다. 악업은 나쁜 과보를 낳고 선업은 선한 업보를 나을 뿐이지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선업과 악업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 비유해 보면 둘 다 노예이기는 마찬가지이다. 다만 한 경우는 나쁜 주인을 만나서 갖은 고생을 하는 노예라면 한 경우는 좋은 주인을 만나서 상대적으로 편안하게 살아가는 노예인 것이다.

과거로부터 지고 나온 습을 채곡채곡 쟁여 놓는다면 비유하건대 저 달 나라까지 가기만큼 그렇게 많고 무거울 것이다.

그것을 짊어진 채로 살고 있으니 억겁 동안 쌓인 노비문서에 짓눌려 사는 꼴이나 다름없다. 그럼에도 자기의 노비문서가 제일이라 하고, 그것을 무거운 줄도 모르고 좋다고 애지중지하고 있으니 그것이 사는 모습인가. 중생들은 그게 사는 것이라고 하나 창살에 갇히고 천야만야한 벽에 갇힌 것이 어찌 사는 것이랴. 자유권을 갖고 자재롭게 살지 못하면서 닥치는 일마다 하나하나에 끄달려 지내니 기가 막힐 일도 많고 불이 날 일도 많은 것이다.

수억겁 년을 거쳐 오면서 죄를 지었든 안 지었든, 좋은 일을 했든 궂은 일을 했든 미생물에서부터 살아온 습으로 말미암은 업식이 뭉치고 뭉친 게 이 육신이다. 이 몸을 집삼아서 수없는 생명이 지금 회전하고 있는데 이 생명체들이 악업 선업으로 뭉쳐 천차만별의 경계를 만들어 내고 있다. 그러면서 인연 따라 내 앞을 탁탁 가로막고 나서니 때로는 고통이 따르고 때로는 잠시 잠깐 웃을 일이 생기고 싸울 일이 생기고 흥했다가 망했다가 하는 것이다.

과거로부터 인연 지어 온 업이 세포 하나하나, 위장 · 심장 · 간장 · 소장 · 대장 · 신장 · 척추 등 구석구석에 집을 짓고 소임에 따라 운행하는데 악업은 악으로만 나가는 반면 선업은 또 선업으로만 나간다. 그러니 악이 많고 선이 적으면 마음속에서, 몸 속에서 악의적인 문제가 수없이 술술 나오게 된다 하던 일이 잘 안되게 하고 남을 미워하고 싫어하게 하니 그것이 악행의 원인인 것이다.

악행이라면 남에게 해를 주는것만 생각하기 쉬우나 항상 둘로 보아 남을 원망하여 내 탓으로 돌릴 줄 모르는 것도 마찬가지라 내가 괴로운 게 악업의 과 보인 것이다.

우리 속에는 악업 · 선업이 다 들어 있다. 그리고 악업 · 선업의 의식들은 잘되고 잘못되고를 모른다. 고로 다스리는 사람의 생각이 거기까지 미쳐야만이 같이 따라 준다. 그래야만이 모든 중생들이 보살로 화할 수 있고 현실의 재입력을 통해 과거의 업장이 다 무너져 자유인이 될 수도 있다.

협찬 : 김 재 환

물자정보 광고는 불자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정보를 만날 수 있는 생활광고면입니다.

불교관련상품, 강좌안내, 구인 · 구직, 각종 소식, 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누구나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생활 속에 함께 하는

불·자·정·보

최소규격 및 가격 : 세로 5cm × 가로 2cm (1회 2만원)
(세로는 고정, 가로 1cm 증가시 1만원 추가)
※ 4회이상 게재시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물자정보 문의 홍보내용을 정하신 다음 전화나 FAX로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02)732-1522(直), (02)737-8881(代) FAX : (02)737-0697
※ 현대불교 전국 지사, 지국 에서도 접수 가능 합니다.

• 건 강 •

암 · 간경화 · 완치 보장

성인 백혈병 · 당뇨
만성 신장병 · 암 · 神病
정신질환 · 원인모를 病
제3의학 · 심요법

보상금제도도입
치료후 병원 검사결과 현저한 호전이나 완치가 아니면 보상금 (치료비+1천만원)을 드립니다.

TEL : 0552-585-8118 · 8128
H.P. : 011-559-8118/8128
경남 함안군 군북면 하림리 우계동

보은암

※ 치료사례 비디오 테잎 무료로 드립니다 ※

특별할인판매(수량한정)

동충하초 + 상황버섯
(1개월분 각 10만원)

■ 셋트로 구입하시면 불로환약을 무료로 드립니다. (판매가 10만원)
■ 암 및 불치병 완치사례 다수 있음.
■ 주문전화(배달 및 통신판매중)
건영백화점 1층
서울 02)926-6981
휴대폰 011)262-6981

病 없는 세계로 가는 길——

선관단식 · 생식

안내책자 무료우송

⊙수련장: 경남 사천시 용현면 와룡산 **용님선원**

♣안내 : 0593)834-1115~6
012)598-1015

불심과 정성으로 보살피는

불자 간병인

◇ 환자 간병 / 산모관리
◇ 12시간 3 만원
24시간 4만 5천원(환자)
◇ 산모관리 숙식1달기준 130만원
출퇴근 1일기준 3만 5천원
◇ 서울 - 무-제-98-1호 허가
◇ 서울시 마포구 아현동 603-15
☎02)363-7884/017)247-7884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 간병인회**

각종 암 · 백혈병 치료

(現代醫化學의 克復, 신비의 효능 책임치료)

▶▶스님의 비법 : 성장 신체의 원동력이 되는 무려 30여종의 항생물질이 형성되며 그 중에서도 특히 쯔세포에만 달라붙는 아미티로진 또는 아지티르진 같은 특수한 물질이 형성되는데 암세포만 발견하면 즉각 달라 붙어 쯔세포를 에워싸므로 3일이면 쯔세포 활동이 중지되고 한달이면 쯔세포가 자동적으로 인체의 체세포로 전환도니다 백혈병 5~6개월 완치

⊙ 당뇨병, 간질병, 위, 십이지장, 폴립, 심장질환, 고혈압, 동맥경화, 풀면증, 팔다리 아픔, 피로, 비만, 근무력증 등의 환자는 한달치료로 가능하다. (대도시권 배달가능)
⊙ 유방암, 자궁암은 말기라고 해도 3개월이면 치료됨.
⊙ 각종 암 수술후 재발방지 필요한분
☎ 011)707-5934

기와 황토쑥뜸 치료

인생상담 - 질병상담
문제아 무료상담

■ 병마로 고생하시는 사부대중(스님도 환영)
난치병, 고혈압, 심장병, 속병, 간병, 두통, 부인병, 전신마비, 수족떨림,신경통, 당뇨, 비만증 초조불안, 공포증, 정신이상(神病), 스트레스로 인한 모든 병 기적같이 고쳐짐.

051)468-9632/011)453-8611
부산광역시 동구 수정1동 **옥천사**
주지 대원 합장

• 강 좌 •

전통불교의식 학인모집

●기본과정 : 도량석, 종송, 예경, 불공, 시식등
●중급과정 : 대령, 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특별의식
●어산작법 : 초급과정:바라무, 나비무 작법, 어산초급과정
●원왕생과정 : 불교식 장의 장례(다비의식)
출가상담및 교육과정<기본의식 교리, 승의>
반야심경, 금강경<10폭 병풍> 사경법회
※각 과정 통신생 모집 ※ 학인스님특별반 모집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77-1 원방BD 4층 (봉은사옆)
☎ 02)511-0108
대한불교조계종 **전통불교의식연구원**

풍수학, 동양철학, 침술 수강생 및 통신생 모집

◇모집기간 : 현재 접수중◇연령, 학력 제한없음
◇수업기간 : 3개월(24시간)
- 이수자 졸업장 수여
- 주간 : 오후 3시~5시-야간 : 7시30분~9시30분
◇개인지도 수강자는 시간 및 진도 특별조정함
◇강사 : 스님(철학박사, 승가대교수)
◆풍수, 운명, 침술, 감정시무하고 있음
(철학관 및 포교원 개원시 지원 배려함)
(출가관심자 승려 수계득도 지원함)
0331)264-4582
대 · 불광사, 승가대학 교무처
(위치: 경기도 수원 용인지역임)

수맥,온천 탐사 및 강좌

지하수,온천 개발을 위한 탐사
'수맥과 건강' 상담
■ 현장 실습교육,방문교육 가능
(펜듈럼과 엘-로드 사용법)
016)235-9220/02)455-9220
고려 수맥 탐사

역 학 강 의

개인지도 ○명
1~2개월이면 앞이 훤히 보임.
"팔자를 알면 출세하고 운을 알면 돈을 번다"
의 저자가 직접지도
염라 철학원
02)424-0064~5

활법선원 교육생 모집

◇내용 : - 선불교교리
- 명리학(사주학, 성명학)
- 기공(법륜공)
- 자연치유학(활법-척추교정술, 경혈지압 및 맛사지, 자연건강법)
◇특전: 교육 수료후 선법사, 활법사, 명리역학사 자격증 발급
※스님은 특혜 있음
(위치:7호선 상봉전철 1번출구앞)
교무처:02)434-7576/F.434-7576
생활선불교교육원(대학)

• 불교용품 •

◆보 리 수◆

취급품목 | 각종 수입향 염 주 불교악세사리 | 일체

남대문 자유 수입상가 구84호
전 화 : 778-5345
팩 스 : 777-1917

• 수련원 •

◆ 청학사 수양원 ◆

■ 수양 · 요양 · 기도 · 공부
■ 경전강의, 참선기도
■ 月 숙식비 ₩300,000
■ 1인 1실-침구 일체 완비
0595)883-2933
011)446-2933
경남 하동군 악양면 노전마을
청 학 사

용회사 수양원

수양 · 요양 · 기도공부
경전강의 참선지도
월숙식비 30만원
1인 1실, 침구일체완비
0591)746-9921
경남 진주시 집현면 정수리
용 회 사

• 기 타 •

전통사찰 건축

(문화재 기능인 등록 제 962호)
기둥은 육송으로만 사용합니다.
※시공사찰 : 수덕사, 진관사, 승가사, 칠보사, 보광사, 사자암, 원각사, 김용사, 대원사, 망월사
경북 영주시 풍기읍 서부 3리
0572)636-2509
011)507-3629
이 민 과 합장

全國 佛子님께
氣龍 達磨圖를 나눠드립니다.



혜월당 회향암 합장
0564) 33-2037
017) 531-2929

달마보급 안내



연락처 :달마보급 선양회
011)841-3591

염불전용녹음실

⊙ 법당 앰프, 마이크 설치 ⊙

●평소에 염불을 녹음하고 싶었으나 비용과 음질 때문에 망설였던 스님
●현재 사용하고 계신 마이크에 불만을 갖고 계신 스님
●직접 법당내에서 평소에 하시는 염불을 녹음하시고 싶으신 스님
※ 수십년간 법당에서 좋은 염불을 하고 맑고 고운 음질의 마이크는 없을까 연구하였습니다.
(그리고 평상법회를 할 수 있는 명상음악과 법요의 식용 찬불가 음반이 필요하신 분)
전화문의(法音寺) 김 광덕 합장
0417)551-1562

장례관련상담

갑자기 상을 당하시어 경황이 없으신 분들 전화주십시오.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불교식 장례 · 묘지
납골당 안내
한마음 서비스
080)4444-111

• 구인구직 •

공양주 보살 모십니다

여수시 중흥동
흥국사
0662)685-5633~5

• 사찰안내 •

포교당 안내

◇위치 : 서울 홍은동 4거리
◇법당 : 20평, 방, 주방5평
◇보증금 1,300만원,월세 30만원
◇시설비 절충, 즉시 법회 가능
◇욕실 및 일체시설완비, 급히 양도

사찰 안내

◇ 위치 : 동대문 요충지
◇ 면적 : 33평 옥상사용
◇동불 및 후불 A급
가스보일러 시설일체완비
◇즉시 법화가능
◇ 가격 : 전세 6천 5백
(절충가능)

⊙ 전국 사찰 ·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상담전화 02)723-4082/011)232-4082
광 진 불 사

포교당 인수하실 분

◆위치 : 부산 동래 온천 입구
◆평수 : 대지 77평, 연건평 92평,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
◆가격 : 3억 1천 5백만원
※은행융자 1억 6천 5백만원 포함
051)556-4932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금정구 남산동 (신건물4층)
◇ 법당 : 72평 (방2개,주방,욕실,화장실2개)
◇ 보증금 : 6,750만원(월40만원)
※시설완비, 즉시 입주가
051)516-9104/625-4656

사찰안내

◇위치 : 장호원 (서울에서 약1시간거리)
◇대지 : 437평
◇총건평 : 83평
- 법당(27평), 사무실(15평)방4가,
- 요사채(41평)방11개, 주방, 화장실
◇가액 : 3억 3천만원
◇특징 : 발전 요충지의 명당
※ 직접면담 ※
0446)877-9051
012)925-6118

◆ 토굴팝니다

◇ 위치 : 경남 하동군 청학동 근처
◇ 대지 : 90평
◇ 건평 : 15평(황토흙방 3)
◇ 가액 : 3천 7백만원
◆ 최고의 명당
(황토흙 방 3개)
◆ 차도 전기 미설치
0595)882-6407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시 북구 복현동 (주차시설완비)
◇ 법당 : 2층 43평, 옥상사용가능
- 개금3존불(넉자),
- 후불신중탱화 집기일체 포함
- 주지실 공양실 욕실등 완비
(입주즉시 법회가능)
◇ 가격 : 3천만원(보증금+시설비일체)
월 40만원
016)519-9551/053)957-9551

토굴겸 암자안내

◆ 위치
양평 유명산 입구
011)750-7222

포교원(토굴) 안내

◆위치 : 충남 홍성군 광천읍 상정리 (서울에서 열차 2시간거리)
◆조건 : 좋은 위치에 목조기와 단독주택(전면주택과 후면임야 대발)
◆대지 : 774-1번지 등기분 95평내에 기존건물 약50평, 775번지 등기 90평
◆구조 : 법당1, 살존불, 탱화4점, 방 3, 거실 및 조리장1, 샤워 및 보일러실 1, 마루 현관 있음. 옛날 기와집터현재 밭으로 사용
◆특별할인가 : 총 3600만원
0451-641-7569/011)401-8259

寺, 꼭 필요하신 분

◆ 울산 경주간 7번 국도변 분지형의 길상지
◆ 법당, 산신각, 요사3동(방사12),옥외 석조대불
◆ 경내지 350평, 매가 절충가능
◆ 향후 발전가능성 많음
0561)775-0545

사찰부지안내

◇위치 : 대전시 동구 상소동 (대전역에서 20분거리)
- 임야 : 9,777평(도로인접)
- 밭 : 323평
- 묘자리 가능
◇가액 : 1억 3천만원
※사정상 급히 안내(시세 1/3가격)※
042)585-1101
011)429-0222

포교원 안내

◇위치 : 서울 도봉구 방학2동
◇평수 : 24평,삼존불, 후불탱화, 신중탱화,칠성탱화
◇ 가격 : 2천 8백(월세없음)
◇ 시설비: 천만원(절충가능)
※꼭 하실분만 연락바람
02)954-1289

토 굴 (건물만)

◇ 위치 : 충남 공주시 부근
◇ 건물 : 황토집-남향집 양명함. (방2, 재래식 구들방, 부엌)
◇ 가격 : 건물만 1,500만원 (대지 불포함)
※ 꼭 필요하신 분만 전화주세요.
0416)841-5195
(저녁 7시이후 전화요망)

사 찰 안 내

◆ 위치 : 노원구 상계동
◆ 평수 : 국유지 400평. 법당 30평. 방6개, 미륵불, 주차장.
◆가격 : 1억 8천(조정불가)
02)937-7241

포교원(전세) 안내

◆ 위치: 지리산 뱀사골 절터매매 부산 문현동 로타리 부근 전세 3천.전세 있음
◆ 평수: 40평 화장실,욕실,법당 진주,사천,고성,충무,마산,창원, 진동,경북,외관 절 다량보유
절 접수안내 수시로 받습니다.
012)760-4549/011)842-4549
0552)584-4881

사찰안내

◆위치: 충남 ◆요사: 25평,
◆법당: 20평 ◆대지: 400평(문중)
◆가액: 3천만원
⊙ 전국의 사찰,포교당 다량 확보하고 있으며 다년간의 경험으로 양도, 운영 하실분에게 성심껏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부전스님 및 공양주 보살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사찰(포교당)운영하실분

◇위치 : 대구광역시
◇대지 : 48평
◇총건평 : 1층-30평 2층-30평 반지하식당-13평(공양칸)
2층 : 법당 - 1층 : 요사(방3, 주방 욕실, 종무소, 석가모니불, 동불 5자, 입상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후불 · 신중 · 산신탱화, 집기일체 포함)
◇ 입주즉시 법회 가능
◇가액 : 매가 1억 3천만원
011)790-7162/053)656-6609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북 김제시
◆ 부지 : 370평(아담한 산속)
◆ 법당 : 39평(주불 약사여래 6자)
◆ 요사 : 30평
◆가격 : 9천만원
0658)542-5859

포교원 안내

◆위치: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요사: 25평. ◆법당: 8평
◆대지: 310평
◆가액: 3천만원(전세)
0694)857-8955
0694)858-1815
0599)32-4727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기도 시흥시 시와 신도시 아파트 밀집지역
◇ 건물 : 3층(40평), 법당, 방3
◇ 가격 : 전세 2천 2백
◇ 시설비 약간 (즉시 법회가능)
0345)433-2429

포교당 안내

◇ 위치 : 부산최고요지
◇ 법당, 사무실,공양실,방3개,창고
◇ 평수 : 50평
◇ 가격 : 1000만원 월60만원
◇ 시설비 : 2300만원
◇ 시설A급, 신도카드 400매 삼존불,동불봉안
051)441-6773/011)825-1662

사찰 안내

천 약 사
◇ 위치 : 진주시 사봉면 북아성리
◇ 법당 : 20평
◇ 평수 : 약 130평
◇ 가격 : 4,500만원 (절충가능함)
◇ 대웅전,산신각,요사채2칸
0591)754-5607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시 서대문구
◇ 법당 : 삼존불,후불탱화, 신중탱화,칠성탱화 약15평(법회가능), 방2,부엌2,화장실
◇ 가격 : 전세가 아주 조그마한 사찰이나 포교하시는 스님께 약간의 전세금만 받고자합니다.
02)823-0788

사찰 및 부지

◇ 위치 : 경남 진주시
◇ 부지 : 약 2,000평(평토작업완료)
◇ 요사 : 28평(임법당 14평, 방4개) 7평(부엌, 욕실, 창고)
◇ 가 격 : 2억 5천
◇ 특 징 : 계곡앞에 저수지, 양쪽 암반계곡, 기도처나 선원용도 진주시내 15분, 마산 I.C. 20분, 부산 1시간 거리, 전화 · 전기 · 도로 있음.
016)589-0560
0591)758-3445

사찰안내

◆위치: 강원도 삼척시 노곡면
◆평수: 100여평
◆건물: 요사채2동
◆암자: 법당10평1동
◆매가: 1500만원
※산세 좋고 물 좋고 수려 만불사주지 석진범 합장
0397)574-1358

임야 · 사찰부지안내

◇ 위치 : 경북 상주군 외서면
◇ 표고버섯재배,밤,감,잣나무 있음 좋은물도 있음
◇ 법당 : 15만평,30만평,45만평중 선택할수 있음
◇ 가격 : 평당 2,300원
051)625-6359

포교원운영하실분

◆위치: 서울 노원구 상계5동
◆평수: 50평 3층건물(3층) 방2,주방1(주차유)
◆가액: 보증금 2,500만원 (월45만원)
◆시설비: 상담후 결정요함
◆특 징: 주변전철역 2분거리 교통편리, A.P.T주택밀집지역 포교에 최적지임
02)939-3647/012)341-3647

사 찰 안 내

◆ 위치 : 강남구 논현동 영동시장 입구 4거리 코너
◆ 평수 : 17평(공양칸1,방1,법당1)
◆가격 : 전세 1천 5백만원, 월 55만원, 시설비 9백5십만원
◆ 4월 초파일 법회 행사 했었음.
02)549-1129

전통 고찰 운영하실분

◆위치 : 서울시 경계지점 ◆부지 : 5,300평
◆건물 : 전토목조 법당,사무실(종무소),요사채,선행방 일주문,관음전,산신당, 미륵전,진신사리탑,용왕당,종각,북각,연신/창건 :500년전 태종대왕 원년
◆가액 : 답사후 절충 ◆시설 : 시설일체 무상기증 천년전 조성된 천신불상
◆특징 : 전통 고찰로서 충분한 천연약수 및 지하 암반수 천리한 교통환경 (버스,지하철 연결),납골묘원, 및 영탑공원의 최고요지로 관광기도 사찰로 홍보가 이미 되어있고 태종대왕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원하였던 도량으로 500년 깊은 내력을 지닌 부처님의 가피가 내려진 전통사찰
※ 본 도량은 정법도량으로 스님의 일반인 보살무속인 대리상담 및 투기목적의 상거래는 절대 사양합니다.
21세기 불교문화를 선도하는 기업
(주)동국불사 담당 : 조법사 합장
서울본사 : 02)512-4447/ 011)736-4447

순수한 경면주사로 쓴
운장법사의 생필(眞本)
'五色광채'의 氣를 발하는 신비한
반야심경





운장법사의 초능력적인 「신비의 禪筆」 최초로 공개.

⊙신기·영기를 발하는 佛자 달마그림, 龍자그림 (수맥파 차단)

특별보시!

특 전
전수중 일정한 기간에 불교문화원 회원과 한국불교 선묵가협회 초대작가로 추천함.

정통으로 배우는 서예 사군자 달마 佛字, 龍字그림 전수자 수시모집!!

한국 수맥파 방지 총연합회 인증 100% 효과

사업실패, 가정불화, 자녀문제, 부부갈등 등 답답하고 고민하시는 분 서슴없이 전화하세요!

생명의 전화 : (주)(02)242-0331,242-0255
(야)216-0307, 011-471-1996

●주문 신청방법 국민은행 042-21-0582-499 조정순
※ 전화로 주문하시면 곧 보내 드립니다.

韓國佛教藝術文化院
韓國佛教禪墨家協會

건국 사찰
심야전력기기
시공전문업체 金剛機電

■심야전력기기란 :
「한국전력공사」에서 야간 시간에 남아도는 전기를 일반전기의 약 1/4~1/10수준으로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 전기로 일반 기름보일러보다 약 1/3~1/4수준의 난방비로 따뜻하고 쾌적한 24시간 난방을 할 수 있는 전기 보일러, 온돌, 온수기, 온풍기등을 말합니다.

한국전력공사협력업체

■ 심야전력기기는 목조건물이 많은 사찰의 특성상, 가장 경제적인 난방비로 연료주입, 저장의 불편함이 없고, 화재·폭발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청정난방기기입니다.
전국 각지 여러사찰에 심야전력기기를 보급, 사후관리해온 저희 '금강기전'은 천년을 이어갈 사찰의 '난방공사'에 작은 보탬이 되겠습니다.

"라니냐현상"으로 길고 춥다는 올겨울
山寺의 겨울난방준비는 金剛機電으로…

▸심야전기 보일러
기존 기름보일러와 교체공사만으로 값싼 심야전기 난방을 할 수 있습니다.

▸심야전기 온돌
보일러실이 필요없고, 열손실이 없고, 동파의 염려가 없습니다.

▸심야전기 온수기
미리 저장된 온수를 사용함으로 추운 날씨에도 일시에 많은 양의 온수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심야전기 온풍기
화재의 위험이 없고 깨끗한 실내 공기를 유지함으로 마루법당 난방에 적합합니다.

심야전력기기전문업체
금강기전
于 430-043
본사: 경기도 안양시 석수3동 774-5
전 화 : 0343)468-7200(代)
영업부 : 0343)445-6090
FAX : 0343)445-3370

"심야전기에 대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바로 전화 주십시오"

■ 문의전화 ■
0343)468-7200(代)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 연구원

코스모스

바람결 흔들리는
코스모스

고운자태
홀로 아픈 가슴 묶고

소슬한 바람이
남기고 간 자리에

그리움으로 다가옵니다.

외로움으로 떠오르는
청겨운 얼굴

빈 가슴으로
채워질 때

어느새
가슴 한 구석

가만히 새겨지는
그리움 하나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원장 이 영 숙(본명)

大卒, 초·재혼 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지방에 계신 불자님은 서신과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 인생문제 특별상담합니다!!

현대정보 결혼연구원
원장 이 영 숙 합장(법명:無生子)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5가 18번지 영신상가 3층 317호
대표전화 : (02)634-4910~2
(011)288-4910

난치병치료안내

수백년 비전된 한방의술로 난치병을 치료한 고봉거사는 사암침술과 최고양질의 우리 농산물로 만든 환약(알약)으로 치료합니다.

정신질환, B형간염(만성간염), 중풍(발병후 3년이내), 디스크(좌골신경통), 기관지 천식, 신경성위장병, 신부전증, 관절염, 백혈병 초기 등 탁월하게 치료됨

※당뇨 뚱뚱한 사람은 3개월만 복용하면 20kg이 줄면서 치료됩니다.

※ 난치병 지리산 요양원이 설립되었습니다.

익수영진고
경옥고보다 10배이상 우수한 약효력, 9일간 밤낮으로 불로 다려서 만듬.

왕기치신환
한국에서 유일하게 1200년전 당나라 선도의술의 의성 주진형의 놀라운 비법 알약
※ 100% 우리 농산물로 가공

늦은 가을 전통죽염, 최고급 죽염간장 출시 예정

※ 의사인 고봉거사, 지리산 토송자 신선도인, 인체공학박사 등의 왕진, 출장도 안내합니다.

◆ 문의전화 : (011) 808-8880
(왕진, 출장) (053) 655-3027

기적의 순수한방 재생 크림
탱탱크림이
불자여성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1 기미·주근깨로 고민하시는 분
2 얼굴의 잡티, 또는 여드름 자국으로 고민하시는 분
3 모공이 넓고, 피부가 늘어져서 고민하시는 분
4 눈가의 잔주름, 검은 얼굴로 고민하시는 분

※ 피부가 밝아지면 관상도 변합니다. ※

사용후 3~4일만에 시작되는 피부 재생과정을 거친후 15 일이면 아기 속살같은 맑고 깨끗하고, 탱탱한 피부로 되살아납니다



하루저녁 한번으로 젊음을 찾으세요.

젊은 피부 밝은 얼굴 '탱탱크 림'이 책임집니다.

· 효과가 없으면 전액 환불해 드립니다. ·

체·험·사·례

저는 41세된 주부이면서 직장 여성입니다
아이를 낳고 산후 조리를 잘못해서인지 기미가 짙어지면서, 잡티가 많이 생겨 늘 화장을 두껍게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30대 중반이 되면서, 피부가 늘어지고, 진주름이 많아지면서 여러가지 좋다는 방법을 다했지만 별로 달라진 것이 없어서 늘 고민이었는데, 어느날 탱탱크림 바르신 분의 좋아진 피부를 보고 저도 구입하여 바르게 되었습니다
바른지 11일째쯤 피부가 깨끗해짐을 느꼈고, 15일이 지나고 부터는 기미가 거의 옅어지고, 피부가 하얘지고 맑고, 투명해지는 것을 느낄수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보는 사람마다 5년은 더 젊어 보인다고들 합니다.
저희 남편도 요즘은 화장안한 모습이 예쁘다고 합니다. 지금은 화장도 엷게하고, 또 피부가 좋아지니 모든 일에 의욕도 생기고 자신감이 생깁니다.
이런 좋은 크림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재호엄마)

서울시 광진구 중곡2동 132-10 무궁화B/D 4층
(주) 한 국 원 동
☎.3437-8282

신비의 약용버섯
아가리쿠스버섯

⊙한국에서는 1996년말 농촌진흥청에서 다년간 연구하여 인공재배에 성공 농가에 보급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주)아가리쿠스에서 엑기스화하여 미국, 일본등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FDA 승인 및 한국식품연구원에서 성분검사 결과 아주 우수한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면역력 증강작용, 세포활성화작용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탁월하고 특히 암치료 및 예방에 효과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효과
순환기계통 : 고혈압, 심장병, 동맥경화, 협심증등
소화기계통 : B형간염, 간경변, 만성위염, 변비등
뇌신경대사 : 당뇨병, 관절염등
호흡기계통 : 만성기관지염등
생식기계통 : 생리불순, 갱년기장애, 부인병, 유방염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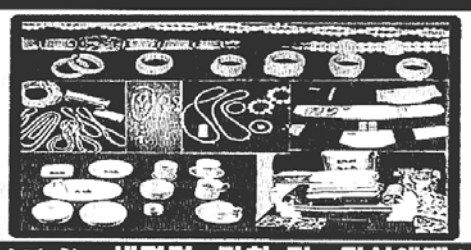
仙氣泉(골드)
· 아가리쿠스 추출액 100% (고형분 5%이상)
· 대용량 : 100ml × 30포
· 가격 : ₩660,000



아가리쿠스 건버섯
· 신토불이 한국산
· 용량 : 300g
· 가격 : ₩250,000

주식회사 아가리쿠스
강남구 역삼동 668-5번지
· 구입문의 ·
(代)02)564-6464

춘천 옥산가 옥의 신비!



氣(기)는 생명력, 강한 기를 당신에게!



▲옥신기 옥목검이 최용 10분후 찍은 손의 분광 파장이 확방하다
연속 사용전 1.5μV 연속사용후 3.0μV로 체내전압 상승

'보석' 인가? '영험한 치료제' 인가!

혈액순환, 고혈압, 당뇨, 신경통, 관절염, 오십견, 두통, 불면증, 심장병, 치매방지, 신장염, 갱년기장애, 피부미용, 생리통, 요통, 스트레스, 홧병, 노화방지….

꾸준히 사용해 보십시오. 참으로 잘 듣습니다.

북경중의원 부속중의연구소 임상실험
중국내 난치병 환자를 상대로 임상실험 결과
불면증 96.9%, 심장질환자 92.9%, 귀울림병 91.3%, 어지러움증 91.3%, 두통 83.3%, 고혈압 77.8%, 관절염 60%의 놀라운 치유 효과를 기록했다 (93 2 17)

玉山家 옥만을 꼭 씹어서 사이만 효과가 있습니다

玉石玉器 玉이불 金賞 수상
미국 지10회 국제보석전시박람회



옥산가 옥이 의약품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의서 本草綱目에 천옥은 백병을 다스린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중구 을지로 2가 50번지
(프레망 백화점 지하상가 입구)
是空 合掌
玉山家®
(02)777-0105(우편판매처)

장가안가길잘했네

베스트셀러
「저거는 맨날 고기 묵고…」
의 저자

· 우학 스님의 새 수필집 ·

「장가 안가길 잘했네」
전 2권 각권 6,500원

마음을 밝혀주는 새 법구경과 함께 더욱 큰 감동을 줍니다.

도서출판 좋은인연
053)475-3706~7

신 간

☞ 구름을 바라보는 물
정가 6,500원 이봉재 소설

☞ 삼천배 삼천부처님
정가 10,000원 우학스님 편저

☞ 마음을 밝혀주는 새 법구경
정가 2,000원 우학스님 편저

황토 토굴

생명의 친화성을 가진 흙중의 흙 - 황토!
황토 토굴은 오랫동안 한곳에서 정진하는 스님들에게 맑은 정신과 편안함을 주며 생체 활동을 활발하게 해줍니다.

황토 토굴은 바로
자연의 숨결을 직접
느낄수 있게 해주는
"생명의 물질"인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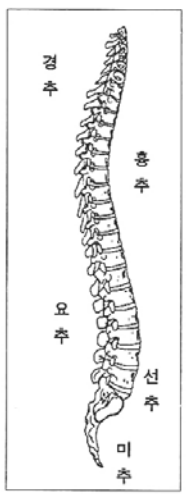
황토토굴의 효능을 체험하십시오
살아 숨쉬는

● 황토 토굴 1 3평형 2 5평형
「선조님들의 토굴방 그대로」
황토의 효능을 느끼지 못하시면 전액 환불하여 드리고, 「무료관리」를 약속드립니다.

우리 황토 토굴 사업부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상남동 1-5번지 대한상가 402호 연합건축사 내
TEL: 0551)282-7629 H: 017)582-7116
FAX: 0551)283-6531

명예퇴직창업

MBC출발 달리는 새아침 김우현회장 활법 6개월간 강좌



경추 1~7번:
두통, 신경질, 불면증, 고혈압, 만성피로, 편두통, 뒷골아픔, 어깨통증, 목덜미가 뻣뻣함

흉추 1~12번:
심장, 폐, 간장, 당뇨, 위장질환, 신장, 불임병

요추 1~5번:
요통, 하지순환불량, 좌골신경통, 하복부통증

선추:
생식기계통, 정력증강

▸특 전
1. 법개정으로 누구나 본협회 자격을 취득후 사무실의 평수와 관계없이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활법원을 운영할 수 있음
2. 교육수료자는 "세계공인활법사 5단증, 사범기공사, 스포츠 맛사지사, 카이로프락틱사, 운동회복사 자격증" 부여

스님·법사·포교원운영자·물리치료사·침구사·대체의학연구자

▸교 육 내 용
1. 활법기초이론 (해부학, 생리학)
2. 활법교정술 (경추, 흉추, 요추)
3. 스포츠맛사지교육 (지압)
4. 카이로프락틱교육 (짝다리교정법,즉시효과)
5. 사지관절교육법
6. 기공술
7. 운동회복법 (저항운동법)
8. 자연건강법
9. 내장부활운동법
10. 협도자극운동법

※연락주시면 안내서 보내드림.

▸교육안내
교육기간:5박6일(속성반), 3개월반.
매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수업시작

준비물:
1. 교육비 및 회비2. 사진 3×4:10매
3. 주민등본:1통4. 신청서:협회에 비치됨

【 특허청등록원 제13235호 】
사회단체 세계건강활법협회
본부연수원: 0571)855-6461/859-4156, 02)522-1122, 011)522-1122

부다피아 쇼핑몰이
스님, 불자님께 드리는 고객 사은 잔치!

016 PCS 최신기종 · 최저가격 · 최고보시
이만한 제품을 이만큼 싼가격에 준비하였습니다.

단말기 사양

※ 각 단말기 공히 신기종이며 통화감도 우수

모델명	G-2(한화)	4300(삼성)	4200(삼성)	4310(삼성)
크기	125×44×26㎜ (H×W×D)	116×45×23㎜	116×45×23㎜	116×45×23㎜
무게	144g (소형 배터리 사용)	105g	105g	105g
통화시간	배터리 S 90분 배터리 M 168분 배터리 L 300분	최대 420분 연속통화	최대 420분 연속통화	최대420분 연속통화
대기시간	배터리 S 26분 배터리 M 48분 배터리 L 87분	120시간	120시간	120시간
사은가격	60,000	115,000	120,000	120,000

가입비 포함

제품모델



신청서 접수
우편번호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부다피아 쇼핑몰 담당자 앞
전화 : 02-732-1522 / 737-8881(대표)
팩스 : 02-737-0697 / 737-0698,0696

은 행	계좌번호	예금주
국민은행	006-01-0783-279	현대불교신문사
농 협	053-01-236053	현대불교신문사
우 체 국	010041-0289770	현대불교신문사

"禪武道로 청소년 탈선 막는다"

김철교수 '선무수련…' 서 주장

심신수련 통해 잠재력 개발·인격 도야
가치관 정립·사회성·자신감 배양 효과도



"청소년들이 선무(禪武)로 심신을 단련하고, 이를 통해 자아를 회복해 나아간다면 청소년들의 사회적 이탈 행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국제선무학회장 김철교수(원광대·사진)가 11월 6일 원광대학교에서 개최된 제9차 국제선무학술대회에서 '선무 수련의 현대적 효용성'을 발표하고 이같이 주장해 주목된다.

행선(行禪)과 무도(武道)의 결합체인 선무는 신라시대 화랑들이 호국 무술의 일환으로 심신을 단련해 왔을만큼 오랜 역사를 지닌 정통무술. 본래 명칭은 불교금강영관(佛敎金剛靈觀)으로 몸과 마음, 움직임과 고요함, 주관과 객관, 나와 너, 나아가 우주와 나의 조화를 강조하는 무도이다.

김교수는 "개인의 인격을 완성시키고 깨우침을 향하게 하는 자력 수행법인 선무는 청소년의 집중성과 인내성을 키우고 잠재력을 계발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청소년이 격고 있는 정신적 고(苦)를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수련법 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교수가 분석한 청소년기의 정신적 고(苦)는 △과도기적 가치관 △의타적 의식구조와 행동 △사회성 부족 등. 따라서 선무 수련법도 이같은 청소년 심신의 역량을 충분히 고려해 불교의 근본사상인 연기론과 중도사상을 토대로 가치체계를 세우고 강인한 체력을 연마시킬 수 있도록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교수는 "선무는 청소년에게 반복적 자력수련을 통하여 자기의 안정을 찾고 배타의식이 아닌 우호와 존경, 동료의식, 인내심, 무아심을 키워, 청소년이 미래에 대한 자신과 희망을 갖을 수 있게 하는 방편이 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김지견박사(前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의 '선(禪)을 보는 시각', 홍기삼교수(동국대 국문)의 '선과 정신주의 시'를 비롯해 철학·문학·예술·의학 등의 분야에서 선(禪)의 가치를 찾는 논문 7편이 발표됐다.

오종욱 기자(gobaoou@buddhapia.com)



◇지난 4일 문을 연 '실직가정 어린이 희망만들기 열린학교'.

실직가정 어린이에 희망을…

이웃을돕는사람들 '열린학교'서 무료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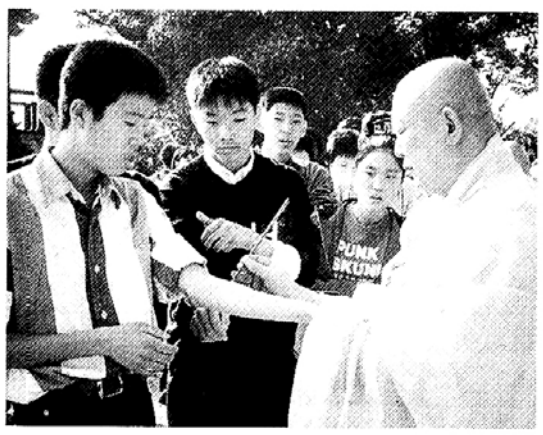
이웃을돕는사람들은 4일 오후4시부터 '실직가정 어린이 희망만들기 열린학교'(교장 신응균)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그동안 실직가정의 자녀를 위한 복지시설이 전무한 상황에서 문을 여는 열린학교는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를 위한 교육·포교사업의 단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아동 자비의집을 개조, 2·3층 60평 공간에 자리잡은 열린학교는 실업극복국민운동(3천3백여만원)과 이웃을돕는사람들(1천여만원)의 지원으로 실시된 것.

'실업극복국민운동'의 실업극복 프로그램에 선정돼 초등학교 어린이 45명에게 무료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열린학교는 우선 서울 미아동 관내 초등학교 3~5학년생 35명에게 한달간 시험적으로 수업을 실시한다. 정식 개교는 한 달여의 시범운영이 끝난 후 가질 계획.

대졸 취업자 6명을 인턴교사로 활용, 취업기회와 공익성 있는 사회활동을 통한 시민의식 함양의 기틀도 마련한다.

(02)945-4200 김재경 기자(jgkim@buddhapia.com)



광주·전남불자 청소년 3천명 수계법회

광주전남교사불자연합회(회장 김진택)는 10월 24일 광주 무각사(주지 광민스님)에서 제3회 광주·전남불교 청소년 수계법회 및 가을대축제를 개최했다. 천운스님(향림사 회주) 등이 계사를 맡은 이번 수계법회에서 전남여상, 나주여상, 벌교상고 등 광주·전남지역 중·고교생 3천여명은 '석가모니불' 정근을 통해 '참나찾기'의 기회를 가졌다.

사회악 치유나선 '푸른불심'

인천·대전청교련 향락산업·폭력추방 캠페인

전북불교회관 낙태근절·생명보호운동 전개

청소년 불자들이 사회 정화를 위해 거리로 나서고 있다. 청교련 인천지부(지부장 선일스님)를 필두로 청교련 대전지부(지부장 종실스님)의 '폭력예방 캠페인', 전북불교회관(원감 회일스님)의 '생명보호운동' 등 청소년 불자들이 대거 참여하는 캠페인이 잇달아 마련됐다.

청교련 인천지부는 10월 31일 부평역 일대에서 '딸·아들 사고파는 향락사업 추방 가두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에 참여한 부광중·고, 인천기계고, 동인천여고 등 4백여명의 청소년 불자들은 거리 홍보, 설문 조사 등을 실시하고, '향락사업추방을 위한 선언문'도 채택했다.

청교련 대전지부도 1일 '건전소비를 위한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 캠페인에서는 서중학교, 중앙고등학교 등 중·고교생 1백여명이 소비 절제, 국산품 애용 등을 호소하고, 거리 미화도 실시했다.

전북불교회관이 9일부터 15일까지 전개하는 '생명보호 캠페인'에도 전북지역 청소년 불자 3백여명이 참여한다. 이들은 캠페인 기간동안 전주시 일대에서 낙태근절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전단 등을 시민들에게 배포한다.

종실스님(대전지부장)는 "청소년이 거리 캠페인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자원봉사'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며, 나아가 자신의 고(苦) 뿐만 아니라 사회의 고를 아파하고 치유한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찬호·박세리 체육훈장 맹호장



◇박찬호



◇박세리

LA다저스의 박찬호와 골프의 여왕 박세리가 프로 선수로는 최고의 영예인 체육훈장 맹호장을 받았다.

2일 청와대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박찬호선수는 "이번 훈장은 메이저리그에서 따낸 15승보다 더한 영광이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골프스타 박세리선수는 갑작스런 입원으로 이날 행사에 불참했다.

청소년 정보화 시설 '문화의 집' 문연다

목동청소년회관 내년 2월

정보화 시대를 대비한 청소년 종합문화시설이 교계에 최초로 마련된다.

목동청소년회관(관장 명우)은 문화관광부로부터 위탁받아 '청소년 문화의집'을 내년 2월경 관내에 설립, 청소년들의 창의적인 자율 공간을 제공하게 됐다.

총 2억원을 지원받아 관내 1층 로비와 3층 소체육관에 설치될 문화의 집은 크게 인터넷을 이용한 자유로운 정보교환을 위한 '인터넷 카페' '문화정보실' '또래 상담실' 등을 비롯해 청소년들의 3개 '취미공간'과 각종 동아리 모임 및 세미나를 위한 2개의 '모임방' '청소년 극장' 등으로 총 9개 공간으로 운영된다.

목동청소년회관은 '청소년 자치운영위원회'를 조직, 민주적 운영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건강 365일 〈35〉 사상자



이만성 〈영재한의원 원장〉

태음인 피부 종기·가려움 치료
여성 냉증·남성 낭습증에 효험

옛날 어느 마을에 괴질이 돌았다.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은 피부에 닭살같은 종기가 생기고 가려움 증상이 나타났다. 전염성이 있는 이 괴질은 얼마되지 않아 이웃 마을로 퍼져 나갔고 마을 사람들은 좋다는 약은 다 써봤지만 백약이 무효였다.

그런데 한 의원이 마을 사람들에게 이 병을 고치는 약초가 백리쯤 떨어진 섬에 있기는 한데 독사들이 많아 접근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의원의 얘기가 끝나자 한 청년은 자신이 그 섬으로 가서 약초를 구해 오겠다며 섬을 향해 떠났다. 그러나 그는 출발한 지 몇 달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그 청년이 독사에 물려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다.

마을 사람들이 실의에 빠져 있을 때 또다른 청년이 그 섬에 가겠다며 자청하고 나섰다. 하지만 독사에 물려 죽을 거라고 사람들은 한사코 만류했다. 그 청년도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산중 암자에 있는 노스님을 찾아가 독사 쫓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간청했다.

스님은 웅황주(석웅황)를 뿌리면 독사들이 도망을 가니 그때 약초를 채집하라고 일러주었다. 웅황주를 갖고 섬에 당도한 그 청년은 무사히 약초씨를 채집해 마을로 돌아와 괴질에 걸린 마을 사람들을 모두 치료해 주었다. 이 약초가 바로 사상자이다.

팔상체질 중에 태음인 체질이 있다. 몸이 냉한 체질을 말하는데, 피부 색깔이 희고 땀구멍이 커서 땀을 많이 흘린다. 또 과묵한 성격이 많아 자기 속 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으며, 차분해 화를 잘 내지 않는다. 대변을 자주 보거나 설사가 잦고 기관지가 약해 기침을 하기 쉬운 것도 태음인 체질의 특징이다. 사상자는 여성들의 냉증에 탁월한 효과가 있으며 남성들의 낭습증에 더없이 좋다.

(02)762-5510

제4회 신행수기 공모

교계에서 정평과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현대불교신문 신행수기 공모가 제4회째를 맞게 됐습니다. 가슴에 묻어두기에는 너무나 뜻깊은 신행의 체험들을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감동적인 신행이야기는 더 많은 불자들의 삶에 귀감이 될 것입니다. 푸짐한 상품이 준비돼 있으며, 현대불교신문 지면에도 게재됩니다.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원고지 30매…마감 12월15일

△주 제: 생활 속 수행 신행이야기
불심으로 고난을 이겨낸 이야기
△분 량: 2백자 원고지 30매 안팎
△접수처: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담당자, (02)722-4162
△당선작 발표: 현대불교신문 99년 신년호
△시상내용
▣유마상: 상장 부상(순금 행운의 열쇠)
▣본사 사장상: 상장 부상(순금 행운의 열쇠)
▣특별상
· 종단협의회장상: 상장 부상(순금 행운의 열쇠)
· 천태종총무원장상: 상장 부상(순금 행운의 열쇠)
·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상: 상장 부상(순금 행운의 열쇠)
▣응모자 전원: 기념품 증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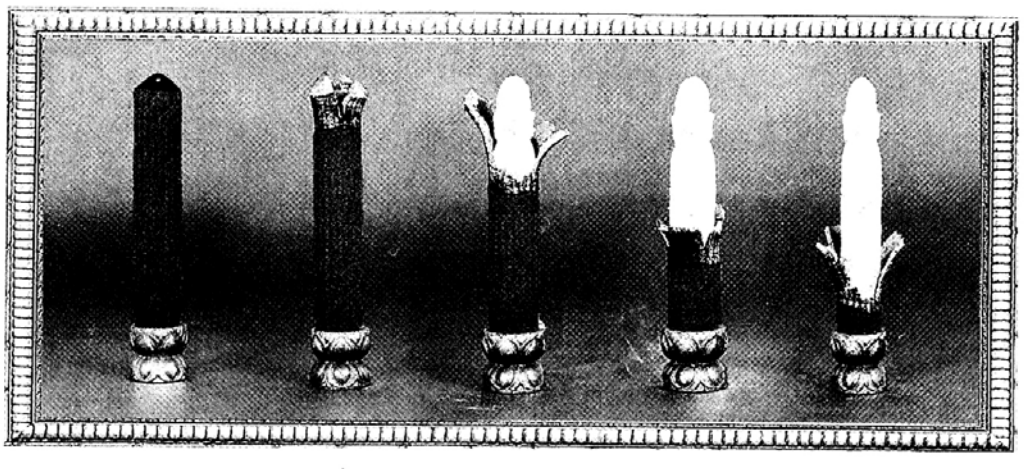
현대불교신문사

◇ '주부신행담' 이번주 기사넘쳐 쉽니다.

떠별로 듣는 금주의 부처님 말씀
인터넷 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

국내최초로 개발한 현상공덕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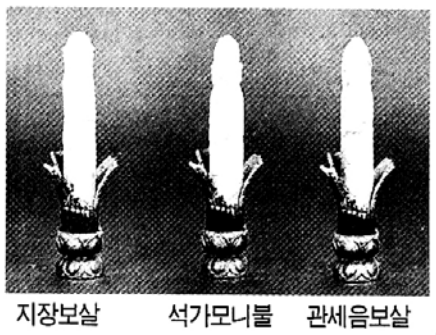
기도와 함께 피워 올린 향에서 부처님이 나투십니다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아미석가모니불 나무시아본사석가모니불

현상공덕향은 외형이 원추형으로 금석의 받침대를 가지고 있으며, 향이 연소되는 시간은 약 1시간 30분 정도이고,
점화한 후에 외형상으로 나무색 향이 연꽃처럼 벌어지며, 내부적으로는 타고 남은 재가 흰색법상의 부처님 형상으로 남게 됩니다.
이 뜻은 외형과 겉모습을 중시하지 말고 「소신공양」 즉 몸을 태워 부처님께 비치는 것이라는 법리와 상통합니다.
현상공덕향은 초하루, 보름, 석가탄신일, 백중, 법회 및 각종 기념행사와 기도에 사용되는 고급향입니다.
향이 타는 도중에 부처님의 법상이 출현하고 부지불식중 마음이 편안해지고 행복을 구하게 됩니다.
- 향은 천연향 제조업체인 취운향당의 천연향재로 제조된 고급향을 사용하였습니다.-

"간절한 기도와 함께 소원성취 하십시오"



지장보살 석가모니불 관세음보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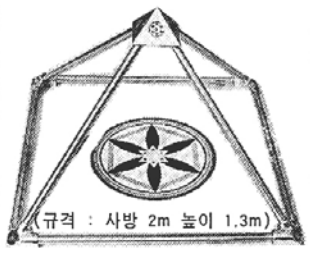
製造原: 金城通商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 4가 84-10
Tel : 051) 466-3731~2 Fax : 051) 466-3733
총판 및 대리점문의

전국지역 판매대리점을 모집합니다.
서울/경기/대전·충청남북/ 광주·전라남북/
부산·경남/대구·경북/강릉·강원/제주

귀 수익금 일부는 불교 발전기금으로 사용됩니다. 귀

신비한 우주 에너지(빛) 발생장치, 명상용 ®

수정 피라밋 히란야!



재질순동 천연수정, 히란야 10개 부착, 대형코팅 히란야 및 고급 기에너지 발생 테이프 증정~!

* 피라밋 히란야「의료용 '氣' 발생기구」: 특허청 의장 특허등록 NO. 204454, 223495, 227171, 227172, 227173

- 피라밋과 히란야 사용시 원인불명의 두통, 불면증이 해소되고 치매예방 및 호전이 가능하고 체질이 급격히 개선된다.
- 깨달음과 영적각성 및 차크라 개발을 촉진시키는 고차원의 빛 에너지가 대량 생성된다.
- 인체에 유해한 수맥을 차단하며 컴퓨터, TV등 전자제품의 인체 유해전자파를 중화 · 소멸시킨다.

우주문명과 피라밋 히란야

문덕 출판사

한국 피라밋 히란야 체질개선 연구회
부 설 문덕출판사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1가 305-1 보라B/D 303호
TEL. 792-0960, 0966
창원지원: 0551)268-5338, 부산동호회: 051)517-0236

염불 禪 주말 수련회 (토요일 저녁9시 / 일요일 아침7시)

왜서 보라! 수행비전의 완벽한 테크닉을!

- 목탁치지 않고 자성의 운률에 맞춰 힘차고 박력있게 경쾌하고 신명나게 재미있고 리드미컬하게 행주좌와 동정간에 자동으로 염불되고 단전호흡되는 한국불교 전래이래 처음 공개되는 염불禪 수행법
- 큰소리로 장시간 염불해도 절대 목이 아프거나 쉬지않고 오히려 목소리가 트이며 말더듬, 실어증이 극복되고 가슴이 탁트여 시원해지며 피로감을 모르는 용맹정진시 용이한 수행법
- 염불 수행시 혀가 이완되어 입천장을 탁탁치면 대뇌가 각성되어 또렷또렷해지며 졸음과 혼침이 극복되고 침은 저절로 넘어가며 중단전의 맺힌 기가 풀리며 스트레스는 저절로 해소되고 올곧은 자세가 계속 이어진다.

♣ 근심 걱정의 악업이 가슴에 맺힌 한이, 병고액난의 괴로움이 번개치듯 녹아내리고 문제해결의 지혜가 순간 떠오르며 간절한 소원은 즉각이루는 기도 수행시 가장 용이한 염불법이다.

- 독경을 잘하려면 세로쓰기 한글 경전을 한줄씩 읽고 왼손가락을 하나씩 헤아리면 오른뇌의 직관이 열리며 집중력 기억력 좋아지고 번뇌망상의 잡념이 현저히 줄어들고 또렷또렷하고 정신맑은 상태로 독경삼매 이른다.

※ 호흡에 맞춰 절하는 법
들숨과 날숨과 숫자를 절 동작에 대입하면 자동단전호흡되고 또렷하게 숫자가 헤아려지며 삼천배를 하여도 절대 숨차거나 힘덕대지 않고 몸살나지 않으며 힘들지 않는 가장 진보된 수행법이며 최고의 건강법이다.

※ 대입수험생을 위한 3천배 100일기도 봉행 : 동참자 사진지참

- 수행내용 : 한글금강경 봉독, 석가모니불 염불정근, 참선, 외선, 행선, 호흡에 맞춰 108배, 도인건강법, 축원기도 7회
- 예약수련 20명, 넉넉한 복장, 초심자 기본수행법교육.
- 불자기업 오스트세이빙테크(주)에서 수련회비 일체를 후원

아름다운 소리산 물빛고운 소금강
법왕정사 수행원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석산리(인이피 마을) 소리산 참선캠프

수행전문상담전화 (0338)771-7745 (오후 1시~8시)

금강산처럼 수려한 소리산 16만평의 영지에 위치한 청정한 수행전문도량임

공 고

본 연합회에서는 오는 21세기 불교 발전을 위해 불교지도자들의 역할이 중요함을 재인식하여 새롭게 창립되었습니다. 1999년도 새해 첫사업을 의논결정코저 하오니 뜻있는 법사 여러분들의 동참 바랍니다.

- 일 시 : 1998년 11월 11일 (수) 오후 6시
- 장 소 : 송현클럽(한국일보 13층)
- 내 용 : ① 새해사업논의
  ② 고문 및 자문위원 위촉
  ③ 기타
- 참가비 : 2만원

※ 법사연합회 신규가입 희망 단체대표 법사께서는 사무국(☎ 732-1218)으로 문의바랍니다.

(단, 포교원운영법사, 불교대학운영법사, 일선현장 포교법사임)

한국불교전국법사연합회

공동대표 선진규 · 한정섭 · 정병조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풍수원리에 맞지않는 주택이나 상가, 사무실등에 적용하면 재운과 복을 일으키는 운세로 바꾸어 놓고,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에 적용하면 생기있는 땅의 명당자리 산소로 변하게 하는 방법이 수록된 책자"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책 자 내 용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⑩ 음택(산소)풍수에 적용하면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 불탑다라니의 신비
⑪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불탑다라니의 산소적용방법
⑫ 이장의 문제점과 그해결 방안으로서의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불탑다라니 처방비법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 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이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내 용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
④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 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 나는가 ?
⑤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일체지 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
⑥ 특별 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⑦ 각 방편들의 내용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 천도 기도방법.
⑨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내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
⑩ 특별 천도재를 지내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상담문의 및 책 자 신 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35)34-9490, 34-9491
야간 : (0342)706-3060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화제의 신간

李道源 求道記

신국판/408면 값 7,500원

그냥 갈수 없는길



"버릇처럼 절간을 찾아 복을 비는 아내를 보고 불교를 알고 싶었다. 믿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내의 신앙생활을 심관하기 위해서였다. 그렇게 불교를 접한 나는 진리 앞에 합장하게 되었고, 경전과 여러 선지식을 통하여 자연과 인생, 그리고 종교에 대한 진실을 얻을 수 있었다. 그리고 이제는 인생이 무엇인지, 종교가 무엇인지를 알고픈 이들에게 그 진솔한 얘기들을 들려주고 싶었다." - 지은이의 말 중에서

이 책은 불교와 처음 인연한 이야기에서부터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을 마치 그림으로 그려내듯 진솔하게 써내려간 이도원의 자전적 구도기로, 책에 담긴 글들을 읽다보면 그냥 갈 수 없는 길,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은이 이도원(李道源)은 1945년 경남 진주생으로 1975년 청담 스님의 밍상록을 읽고 발심, 1980년 범어사에서 성운지효(聖雲智曉) 스님께 수계, 재가불자로서 구도의 길을 걷고 있다. 부산불교교육대학 초대 이사장, 부산불교교등학생연합회 지도위원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현재는 전통개량한복 '고운 우리 옷'의 대표로 경남 천성산 대적선원(大寂禪院)신도회장의 소임을 맡아 그 빛을 나눠가고 있다.

불광출판부 대표전화 420-3200 팩시밀리 420-3400

인 터 뷰

건강식품 '불로화정' 특허



시연스님이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 등 10여종의 첨가물을 7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불로화정'을 상품화하면서 특허를 출원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스님은 이미 10년전에 은사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개발한 불로화정을 그동안 비매품으로 사용해 오다 최근 상용화를 위해 특허를 출원하고 시장화보에 나섰다.

현대인에게 활력과 윤기를 주는 영양물질의 보고, 불로화정(不老化精)은 영험함은 직접 몸속으로 느껴보십시오. 생명의 근원, 간이 튼튼해야 신체가 건강합니다. 인체의 뿌리, 위가 튼튼해야 몸이 좋아집니다.

본사 생산제품
솔선식(2개월 50만원), 솔효소정액(2개월 50만원)
익수영진고(2개월 70만원), 치신왕기환(3개월 50만원)

불로화정(不老化精)

(건강보조식품허가)

오랜세월동안 비전된 방법으로 만든「不老化精」은 원래 산중 사찰의 스님들을 위하여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외에 10여종의 첨가물을 7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으로 40여년전 시연스님의 은사 큰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것입니다.

「不老化精」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특히 노인은 발에 땀이 날 정도로 건강이 호전되고 노화도 지연되며 2개월만 복용하면 다이어트를 안하고 마음껏 먹어도 비만이 안되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모든 위장질환이 치료되고 복부에 주름살이 펴지며 음주를 많이 해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며 피로를 모르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 줍니다

▣ 가 격 : 정가 칠십만원(7년간 발효식품, 2개월분)을 마지막분 선착순 2,000명에게 오십만원에 할인하여 드립니다
▣ 입금구좌 : 대구은행 033-07-172508(대구여래한방)

참깨서 노화억제·암예방 성분 대량추출

농진청 세계 최초로

참깨에서 노화억제 및 암예방효과가 입증된「세사미논」성분을 대량 다. 세사미논은 노화를 막고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인정돼 각광을 받고 있는 새로운 기능성을 물질로 지금까



〈TV에서 성인병, 난치병 특효 설명〉

※식초 한종류 연구로 노벨의학상 3회수상한 사실이 있음.

如來治身自然食品會社

문의전화 : (053)655-2227
(011)808-8880

자연건강식품을 먹고 난치병을 고치게 되어 드리는 감사의 말씀

산승(山僧)은 비구니로 60여년 수도생활을 하고 있는 여든의 늙은이로 현재 대구 반야사 주지로서 어린 장애자를 양육, 보호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20여년간 신경통, 고혈압, 위장질환, 몸이 붓는 증세(浮腫)로 고통을 받던 중, 천일지장기도가 끝나는 날 꿈속에서 뵈온 스님의 얼굴과 똑같은 시연스님을 만나게 되어 한번만 침을 맞은 후 자연건강식품「불로화정(不老化精)을 복용하고 모든 난치병이 완쾌되었으므로 그 너무나 큰 고마움의 말씀을 글로써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구시 반야사 (전화 053-614-7935) 주지 김 혜명 합장

저는 20여년의 수도생활을 하고 있는 52세의 비구니로서 충북 제천시 청해사 주지로 있습니다. 저는 신장병, 골다공증, 위장질환, 호흡곤란 등의 만성질환을 앓는 병주머니의 몸이었으나 우리 농산물로 만든 경옥고(경옥고) 같이 생긴「익수영진고(익수영진고)」를 복용하고 건강을 회복하였으며 몇 가지 병으로 고생하던 모친과 여동생도 같이 복용한 후 건강한 몸을 되찾게 되어 그 말할 수 없는 감사의 마음을 짧은 글로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여깁니다.
충북 제천시 청해사(전화 0443-646-7371) 주지 박 법륜 합장

저는 64세의 나이 많은 여성으로 여러 가지 난치병 때문에 병약하여 많은 고생을 하였으나「不老化精」,「솔선식(松仙食)」,「솔효소정액(松酵素精液)」,「익수영진고」,「치신왕기환(治身旺氣丸)」 등 자연건강식품을 복용한 후 병을 고치고 생기 넘치는 몸으로 생활하게 되어 그 감사한 말씀을 전해 드리게 된 것을 큰 자랑이라고 믿는 바입니다.
대구 거주(전화 011-545-5550) 최 청정심 올림

법회안내



관응스님(직지사 조실) 12일 목요일 오전 11시 관음지일법회. (0547)436-6174



철웅스님(파계사 성전암) 17일 오후 3시 영남대학교 총학생회 초청 특별강연회 '무한성의 개발' 주제 법문. (053)984-4550



법안스님(대불광승가대학 책임교수) 매월 음력 1일 오전 10시 30분 초하루법회. 매월 음력 15일 오전 10시 30분 보름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30분 동양철학 및 침술학 강좌. (0331)264-4582



박완일법사(前 조계종 전국신도회장) 14.15일 오전 11시 제주시 불사리탑 제주붓다 중앙제주클럽 법회. 23일 부산 다보사 오후 12시 30분 3천불에 대한 강의. (051)414-9000



김재웅법사(금강경독송회 지도법사) 14일 오후 3시 금강경독송회 부산법당 정기법회. (051)514-3566

■ 법회안내를 원하는 사찰·단체는 법사 사진과 함께 보내주시면 성실히 게재하겠습니다.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98

신행 캘린더

11월12일 (목)

■칠장사 청룡사 참배=답사여행의 길잡이 터사랑은 오전 8시 소박하고 아름다운 절 칠장사, 죽주산성, 태평미륵과 기솔리 쌍미륵, 청룡사를 찾아 답사기행을 떠난다. (02)725-1284

11월13일 (금)

■송파구청 청화스님 초청법회=송파구청불자회는 오후 4시 구청대강당에서 청화스님 초청, 구민을 위한 기원법회를 연다. (02)410-3365 담당 유중원.

11월14일 (토)

■능인선원 삼천배 철야기도법회=능인선원은 오후 8시부터 대법당에서 삼천배 철야기도법회를 봉행한다. (02)577-5800

■청화스님 초청법회=우리는 선우는 동국대 정각원에서 청화스님 초청법회를 연다. (02)278-8672

■탄허스님 추모기념 학술강연회=탄허대종사 15주기 추모기념 화엄사상 학술강연회가 세종문화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02)237-4438

■장기수 나눔의집 방문=불교장기수후원회 소속 장기수회원 7명이 정신대 위안부 할머니들의 안식처 나눔의 집을 방문해 따뜻한 정을 나눈다. (02)725-8818

■인천 자비의전화 개통 5주년 기념법회=인천 자비의전화가 개통 5주년을 맞아 인천 자비의전화 사무실 4층 강당에서 오후 3시 기념법회를 봉행한다. (032)884-0118

11월15일 (일)

■청담 대종사 27주기 추모 대법회=청담문도회는 오전 11시 도선사 호국참회원 대강당에서 청담대종사 27주기 추모 대법회를 봉행한다. (02)993-3161

■서울불청 단합 가을 산행=서울불교청년회는 오전 9시 북한산으로 가을 산행을 떠난다. (02)730-9108

■차와 우리음악의 다리놓기 공연=16일까지 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 '98차와 우리음악의 다리놓기' 연주회가 열린다. (02)272-2152

■불교문화체험기행=현대불교신문사는 법주사 흥덕사지 고인쇄박물관 등지로 불교문화체험기행을 떠난다. (02)722-4162

■은해사, 거조암 순례=부산불교교육원은 제90차 우리문화기행을 떠난다. 오백나한을 찾아서를 주제로 영천 은해사, 거조암, 경산 환성사를 순례한다. (051)466-4080

■성남포교원 노인요양원 기공식=성남포교원은 오전 11시 노인요양원 기공식을 거행한다. (0342)746-3871

■선암사·송광사·백양사 성지순례=천중사는 16일까지 1박2일간 선암사·송광사·백양사로 성지순례와 국난극복 참회기도를 떠난다. (02)914-3558

■자녀들의 진로모색을 위한 학부모 워크숍=정토불교대학은 오후 1시 홍제동 정토포교원에서 '자녀들의 진로모색을 위한 학부모워크숍'을 연다. (02)379-1650

11월16일 (월)

■국난극복기원 태고종 법회=오후 2시 태고종 선암사에서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주최로 국난극복을 위한 기원법회가 봉행된다. (02)745-2030

11월17일 (화)

■대흥사 성보박물관 개관=해남 대흥사 대웅전 중창불사 낙성식 및 성보박물관 개관식이 봉행된다. (0634)34-5588

■팔공산 갓바위 입시기도 철야법회=용진항공여행사는 대구 팔공산 갓바위로 수험생 입시기도 철야법회를 떠난다. (02)279-1191



◇무르익는 가을 각종 기도법회에서 불심을 더욱 키우자. 사진은 지난해 도선사서 열린 3천배법회.

■〈산은 산 물은 물〉 출판기념회=성철스님 문도회는 오후5시 광화문 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성철 큰스님의 이야기를 소설화한 정찬주씨의 〈산은 산 물은 물〉 출판기념회를 봉행한다. (02)731-7544

11월18일 (수)

■태고 보우국사 전서 완결판 출판기념법회=태고 보우국사 전서 완결판 출판기념법회 및 태고보우국사 연구 2차 학술 발표회가 오후 1시 불교방송국 3층 대법당에서 열린다. (02)732-3920

종단소식

조계종

약천사 종단등록 기념법회

제주 약천사는 25일부터 26일까지 양일간 종단등록 기념대법회 및 주지 진산식을 봉행한다. 10교구 은해사에 종단등록한 약천사는 이번 법회기간동안 성공스님 주지 취임식을 비롯 수륙영가천도재, 철야기도, 방생법회, 일타스님(은해사 조실)초청법회 등을 각각 실시한다.

양진암 관음전 낙성

대구 팔공산 동화사 양진암(도감 일홍)은 5일 관음전 낙성식 및 42수 관음보살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관음전은 지상 2층 연건평 1백20평 규모로 1층 식당, 2층 법당으로 되어 있다. 양진암은 12월 지상 2층의 요사채건물인 육화당도 완공할 예정이다.

태고종

충북교구 승려 연수교육

충북교구종무원(원장 각성)은 10월 27일~28일 양일간 충북 괴산 다보수련원에서 '승려, 교임 연수교육 및 주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연수교육은 전국 승려 및 교임연수교육에 미처 참가하지 못한 충북종무원 산하 종도들을 위해 마련됐다.

한편 연수교육 후 열린 주지회의에서는 선암사서 개최되는 국난극복 기원법회에 적극 동참할 것을 결의했다.

서울 불국사 무료급식



서울 강남 불국사(주지 영길)는 10월 24일 탑골공원에서 실직자 4백여명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을 실시했다.

천태종

성룡사 창립 28주년법회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성룡사(주지 석구)는 3일 원통보전에서 창립 28주년 기념법회를 가졌다.

이날 법회에는 총무원장 운덕스님을 비롯해 교무부장 춘광, 교육부장 도원, 재무부장 도재, 구강사 주지 월제스님과 신도 1천5백여명이 참석했다.

월강사 원통보전 낙성

안산 월강사(주지 정해)는 10월29일 관음존상 일천오십삼불 봉안 및 원통보전 낙성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월강사는 연건평 6백평에 지하 1층 지상 2층의 규모를 갖추고 지하 1층과 지상 1층은 다목적 요사채, 지상 2층은 원통보전으로 조성했다.

한편 이날 기념법회에서는 원통보전 단청문양의 개별적 해설과 불교적 의미는 물론 각종 금문의 해설과 요사채 벽화 해설 등을 주지 정해스님이 엮은 책 〈우리절 단청〉을 선보였다.

진각종

서울·대구서 보살수계

교육원(원장 일정)은 9일과 10일 각각 서울 탑주심인당과 대구 희락심인당에서 삼매야계단 보살십선계 수계관정불사를 봉행했다.

수계지원을 신청한 신교도를 대상으로 행사 당일 오후 1시~2시에는 습의불사를, 오후 2시~4시에는 수계관정을 했다.

선혜심인당 교수회 창립

경주 서부동에 위치한 선혜심인당에 다니는 위덕대 교수 15명이 불자회를 결성하고 10월27일 창립법회를 가졌다.

초대 회장 이승국 교수(위덕대 교양학부)는 "학문적 성과와 정보를 교류하고 신행을 도모하는 모임이 확산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국법륜종

동원사 중창불사 낙성

광주 무등산 동원사(주지 지각)는 4일 중창불사 낙성식 및 만등불사를 봉행했다.

동원사는 92년 12월 가공식을 가진 이래 2백여평의 대지에 6년여 동안 일주문, 법당, 요사채, 산신각 건립불사를 진행해 왔다.

소등종

경남 동부교구 개원

총무원(원장 송정)은 10월 29일 울산시 정암사동부포교원에서 경남 동부교구(교구원장 마하) 현판식을 가졌다.

알림 본란은 각 종단의 주요 공지사항 행사 등을 알리는 '종단소식'란입니다. 각 종단 총무원 및 지방 종무원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게재해 드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8

게 시 판

♣ 알림

△구성애 '올바른 자녀 성교육' 특강=중리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16일 오후 2시 마산시청 대강당에서 내일신문 성교육센터 구성애 소장 초청 특강 '올바른 자녀 성교육'을 실시한다. (0551)231-8017

△무료이용서비스=신도림복지관에서는 매월 셋째 수요일 저소득층의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무료파마와 컷트 등 이미용서비스를 실시한다. (02)631-9792

△무료합동결혼식=옥수종합사회복지관은 26일 오후 2시 복지관 5층 무료 웨딩홀에서 가정형편이 어려워 식을 올리지 못한 지역주민을 위한 무료 합동결혼식을 한다. (02)282-1100

△상담실 운영=제천장애인종합복지관은 재활정보와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장애인들의 재활과 자립의 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상담실을 운영한다. (0443)652-0900

△장애인 어울림 마당=공창종합사회복지관은 13일 김해 박물관에서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을 대상으로 장애인 어울림마당 및 간담회를 개최한다. (051)363-2063

♣ 강좌

△성인무료 메이크업=길음종합사회복지관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성인무료메이크업 강좌를 실시한다. 2개월과정. (02)985-0161

△무료 불교레크리에이션=불교레크리에이션포교회는 '부처님 품안 즐거운 우리절'이라는 주제로 무료 레크리에이션 강좌를 12월 5일 양재동 구룡사에서 실시한다. 선착순 1백명이다.(02)575-7766

△산스크리트어, 힌두어, 티벳어, 팔리어 강의=연등국제불교회관에서는 산스크리트어, 힌두어, 티벳어, 팔리어 강좌 수강생을 모집한다. 11월 말 개강 예정. (02)735-5347

△손뜨개 교실=옥수종합사회복지관은 매주 월, 수요일 오후 2시 주부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손뜨개교실을 연다. (02)282-1100

♣ 모집

△머리미용 수강생=구로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국가기술자격시험대비 머리미용 야간반 수강생을 모집한다. 컷트, 파마, 셋트를, 웨이브 등을 지도한다. (02)852-0525

△주거환경개선사업 후원자=청담종합사회복지관은 시흥지역 일대 저소득가정의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도배, 보일러 점검 서비스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후원자를 모집한다. (02)806-1376

△성인피아노교실 수강생=본동종합사회복지관은 기초자를 위한 바이엘 2개월 완성코스와 중급자를 위한 반주 단기 완성코스 성인피아노교실 수강생을 모집한다. (02)817-8052

△재가복지 사랑의 후원자=본동종합사회복지관 부설 재가복지봉사센터에서는 생활보호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가정의 자립자활 지원을 위해 그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자 사랑의 결연후원자를 모집한다. (02)817-8052

△전문 호스피스 간병인 교육생=충북불교자원봉사교육센터에서는 18일~12월 24일까지 제 6차 호스피스 간병인 교육을 실시, 교육생을 모집한다. (0431)254-2258

♣ 화촉

△본사 기획관리부 이신정씨가 15일 일요일 오후 1시50분 경북 포항 대왕예식장 6층 영빈실에서 조수원씨와 화촉을 밝힌다.



윤장대(보물 제684호)를 돌려서 무명을 밝히자

예천군 용문면 소백산에 신라시대 이후 부처님 가르침을 지켜온 법보대찰 용문사가 있습니다. 1,200년동안 경전을 수호하고 널리 알려온 화엄도량 용문사의 사적은 한국불교의 역사와 정신을 대표하는 근본도량으로서 이천만불자의 자존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용문사에는 우리나라 유일의 회전식 장경각인 윤장대가 보존되어 있고, 대장전, 목불좌상, 목각탱화 등 많은 국보급 보물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구산선문의 5백명 스님들이 모여 담선회를 열어 한국불교의 정통선맥을 잇고, 고려 명종 때에는 3만명의 스님들이 위기에 빠진 조국을 구하고자 3만승재 대법회를 여는 동안 이러한 보물들은 함께 호국과 한국불교 중흥에 앞장서온 불교인의 정신인 것입니다. 특히 부처님의 가르침을 읽고 배우고 싶어도 그럴 기회조차 주어지지 못했던 이 땅의 대다수 중생들에게 대장전의 윤장대는 부처님을 대신하여 자상하고 자비로운 가르침을 일천년동안이나 설해 왔습니다. 모든 정성을 모아 기도하며 윤장대를 돌리는 동안 부처님의 가르침은 중생들에게 복덕과 지혜의 길을 열어 주셨던 것입니다.

용문사에서는 근대 이래 최초로 윤장대를 공개하여 윤장대 윤전 대장경 불사를 시작하려 합니다. 윤장대를 돌리면서 업장이 소멸되고 각자 구하고 원(願)하는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며, 남북통일과 IMF 국난극복이 원만히 성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특히 수험생을 둔 부모님들과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경전을 읽는 공덕을 지어 업장을 소멸하고 지혜가 구족하여 학업이 성취하며 사업이 번창하도록 꼭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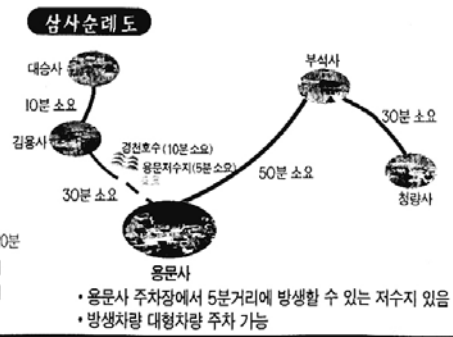
주지 청 안 합장



용문사 가는길

버 스 : 동서울터미널 출발(06:10~6:30, 40분간격)
3시간 30분 소요 ⇒ 예천에서 하차 ⇒ 택시(용문사) 20분

비행기 : 대한항공(서울 ⇒ 예천) 오전 9시 5분 오후 5시
이시아나(서울 ⇒ 예천) 오전 8시 오후 6시



• 용문사 주차장에서 5분거리에 방생할 수 있는 저수지 있음
• 방생차량 대형차량 주차 가능

• 일 자 : 1998(불기2542)년 11월 23일(음 10월 5일) 오전 10시 • 회 향 : 1998(불기2542)년 11월 29일(금 10월 11일) 오전 10시

• 등(1인1등) 5,000원 • 영가 위패(1위당) 5,000원 • 대장경을 이고 법성도를 돌면서 윤장대를 윤전하실 분만 동참금 1만원을 준비하십시오.
• 동참 온라인 구좌 농 협 : 747028-51-009313 예금주 : 용 문 사 • 당일은 혼잡하오니 미리 전화로 접수하여 주십시오.

윤전 대장경 초청 법회 : 영허 록원 큰스님

대한불교 조계종 법보대찰 **소백산 용 문 사**

문 의 : (0584)655-8695(종무소), 655-1010, 8405
(02)582-4665, 522-0770 서울포교당 청 안 사

조계사앞 버스출발 안내 11월 23일~ 11월 29일까지 매일 오전 7시 출발(당일 왕복) ☎ : 720-1656 (전화로 출발일을 접수하여 주십시오)

'계율사상' 재조명

부산·경남언론인회 세미나

부산경남 불교언론인회(회장 이상철)는 10월 23일 통도사부산포교원에서 제1회 국제불교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스리랑카 국립 팔리 불교대학교 한국분교 주관으로 치뤄진 이날 행사에는 가야사 주지 마성스님, 이종군 금정중학교 교법사, 곽만연 동아대학교 교수, 난다 스리랑카 국립팔리대학교 교수 등이 발표자로 주제강연을 가졌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지계사상'을 주제로 한국불교에서의 계율사상을 살펴보고 지계사상을 현대적 관점에서 재조명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부산경남 불교언론인회가 선정한 제1회 불교언론인상으로 불교부산방송의 이준식 아나운서가 수상했다.

천미희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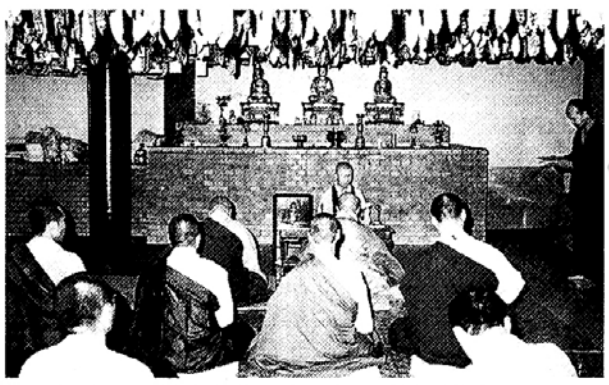
네팔에 한국불교문화원 개원

초대 이사장 금정스님…한국불교 보급

룸비니 지역 불교 유적지 조사 발굴

한국불교와 전통문화 홍보를 위한 한국불교문화진흥원이 네팔 카투만두에 설립됐다.

한국불교문화진흥원은 10월25일 네팔 룸비니 대성석가사에서 창립법회를 갖고 초대 이사장에 금정스님(前중앙승가대학장)을 선임하고 공식 출범했다. 이 자리에는 견산(백련암 주지) 법신(네팔 대성석가사주지) 범산(영주암 주지) 종삼(향일암 주지) 도완(법흥사 주지) 선진(도솔암주지) 영경(네팔 보광선원주지) 등 스님들과 김성태 주네팔한국대사관영사, 사상호 부산불교신용협동조합이사장, 김운경방송작가 등 50여명의 한국불자와 네팔인 불자등 1백여명이 참석했다.



◇한국불교문화진흥원은 10월 25일 네팔 룸비니 대성석가사에서 창립법회를 갖고 공식 출범했다.

추진위원장이며 초대 이사장에 선임된 금정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부처님의 탄생성지가 세계문화유적지로 지정된 것을 계기로 각국의 불교문화가 꽃피우고 있는 추세에 맞춰 한국불교문화의 위상을 정립하고 홍보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제시하고 "대부분 방치되어 있는 유적지에 대한 조사 연구를 토대로 보호 보존 및 개발의 주요성을 온 인류에게 알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황부흥한국대사의 격려사, 정덕용문화재보호재단 이사장 등의 축사가 있었다.

네팔에 본부를 둔 한국불교문화진흥원은 국내에도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 광역시와 제주도 등 주요도에 8개지부를 두는 한편, 세계불교문화 연구와 교류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고 소식지를 발간하는 등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한편 네팔에는 현재 한국 종교관계 문화원이 기독교계통으로 2개뿐이며 불교계 문화진흥원이 설립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위영란 기자
(yryui@buddhapia.com)

우리절 불사 부여 무량사



◇부여 무량사 천불전은 건축불사를 마무리하고 내부 불사가 진행돼고 있다. 원내는 주지 지연스님.

임란때 불탄 천불전 복원

국고 4억 들여 내년 낙성

대웅전·김시습기념관 추진

백제사찰 옛모습 재현

고난은 중생을 슬프게 한다. 현세에서 괴로움을 겪는 인간에게 해탈을 이룰 수 있게끔 도와주는 관세음보살. 이 관세음보살이 IMF 관리체제에서 고통받고 있는 중생들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한분도 아닌 천분이 충남 부여 만수산 자락에 나투실 채비를 하고 있다.

무량사(주지 지연)는 4년전 극락전(보물 제156호) 왼쪽 1백여미터 지점에 약 30여평의 부지를 마련, 천불전 기공식을 갖고 불사에 착수했다. 불사비용(3억4천여만원)은 전액 국비보조를 받았다. 때문에 국제통화기금으로 모든 사찰이 어려움이 겪고 있지만 무량사 천불전 불사는 순탄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천불전에 관세음보살을 모셔야겠다는 발원을 해서인지 어려울 때마다 순조롭게 진행됐다. 이로인해 무량사 천불전은 현재 건축불사와 단청까지 마무리하고 내부불사만 남아있는 상태다. 천불전에는 백의·선관음·수월관음보살을 원불로하며 약 24cm크기의 관세음보살 천기가 봉안된다. 이 불상은 은행나무로 조성되며 현재 4백기가 완료된 상태이다. 또한 불단도 제작중이며 주변 조경불사도 곧 시작할 계획이다. 예정대로라면 내년초 무량사를 찾는 참배객들에게 웅장한 천불전의 모습을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무량사에는 창건당시 천불전이 있었지만 임진왜란 때 소실돼 현재는 그 자취를 찾아볼 수 없다. 무량사측은 이번 불사가 신축불사라기 보다는 복원불사에 초점을 두고 있다.

무량사는 천불전불사에 이어 대웅전(54평), 제석문, 김시습기념관(50평) 등의 불사를 추진, 백제불교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사찰로 사격을 갖춘다는 복안이다. 이를위해 현재 사찰 각 시설들에 대한 실측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중이다.

지연스님은 "관음의 대자비는 그 어떤 불·보살의 자비보다도 길고 넓다. 현실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중생교화의 자비행을 실천할 것이다"라며 대자비의 발원인 관음보살 천분을 봉안하는 의미를 설명했다.

김중근 기자
(gamja@buddhapia.com)

WFB 부회장에 양장운씨

호주대회서 …WFBY 부회장엔 이상대씨

'오계파지' 상설위 구성



◇양장운씨



◇이상대씨

호주 남천사에서 열린 세계불교도우의회 제20차 및 세계불교청년우의회 제11차 총회가 20여개국 60여지구가 참여한 가운데 3일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세계 본부 임원을 선출한 이번 총회에서 양장운(국제포교사회장)씨는 세계불교도교우회 부회장에, 전팔근(세계불교도교우회 원불교지구)씨는 상임이사에, 이상대(대한불교청년회장)씨는 세계불교청년우의회 부회장에 각각 선출됐다. 세계불교도우의회 및 세계불교청년우의회 회장에는 반 와나메티(아센 사무총장·태국)와 소마이 콘사코(달마카야 재단·태국) 등이 당선됐다.

이외에도 이번 총회에서는 박동기회장(세계불교도우의회 한국지구)이 94년 태국에서 열린 WFB 총회에서 발표한 '팔차실라(오계파지)'의 중요성이 이번 총회에서 새롭게 부각돼 부설 위원회로 상설되기도 했다.

세계불교도우의회 양장운 부회장은 "이번 총회는 한국불교가 96년, 98년 '불교도우의회 총회 무산'이라는 오점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발판을 만들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고 "세계 불교계에서 한국불교가 더욱 성장하기 위해서는 한국불교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대한불교조계종의 세계불교도우의회 가입이 절실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총회에서 한국대표단은 세계불교도우의회 부회장 선거에 양씨와 김광태씨(한국불교연합회지구 회장) 2명이 동시에 출마하고, '판차실라' 위원회 신설에 대해 찬·반으로 대립하는 등 불협화음을 연출했다.

세계불교도우의회 및 세계불교청년우의회 차기 대회는 2년후 스리랑카에서 개최된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참사람 수련생 130명

도반만남의 날 행사

고불총림 백양사(주지 지선)는 10월 31일부터 1일까지 1박2일간 수행관에서 '참사람 수행결사 도반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97년 7월부터 98년 10월까지 15차례에 걸쳐 실시된 수행결사 수련생 4백76명(남 2백77명·여 199명)가운데 1백30명이 참석, 수행의 소감 및 체험이야기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행사는 '참사람 수행결사 수행자의 자세(일수 운문선원장)'에 대한 강의와 좌선, 수행결과보고, 산행, 좌담 등이 진행됐다.

한편 이날 참석한 수련생들은 참사람 수행결사 도반만남의 날을 매년 1~3차례정도로 정례화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중근 기자

화엄종 승가장학재단 20돌

'장학재단史' 출판…1천3백여명 학업지원

불교인재양성을 위해 78년 설립된 화엄종 승가장학재단이 20주년을 맞아 3일 인천 약사사에서 〈화엄종 장학재단史〉 출판기념법회를 가졌다.

화엄종 승가장학재단은 20년전 정희수씨(중앙종회 의장, 장학재단 이사장)가 구하스님(화엄종 종정)과 함께 남북통일시대를 대비해 승려 및 군법사, 불교학자를 양성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해 설립했다.

화엄종 승가장학재단은 79년부터 1천3백여명의 고등학생에게 매년 4백만원에서 1천4백여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해 왔다. 6년 전부터는 공익법인 화엄종장학회를 설립, 서울대 법학과와 동국대 불교학과 학생들에게도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화엄종장학회'는 장학기금을 증자해 기존 장학금전달사업 외에도 화엄학 종지 발현을 위한 화엄학 연구지원사업도 벌여 나갈 계획이다.



정희수 이사장은 "화엄종 장학회 20년을 되돌아보고 점검하는 동시에 불교인재양성을 위한 불교·각계의 노력이 활발하게 전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화엄종 장학재단사〉를 편찬하게 됐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도필선 기자
(psdo@buddhapia.com)

달라이라마 티벳 1국 2체제 제안

중국과 협상…외교·국방외 자치권한 요구

망명중인 티벳의 정신적인 지도자 달라이 라마가 홍콩식의 '1국2체제' 자치방안을 중국과 협상카드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달라이 라마는 독립을 포기하는 대신 중국이 티벳지역으로 규정한 지역이 아닌 원래의 모든 티벳지역을 영토에 포함시키고 홍콩보다 더 많은 자치를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4일부터 열흘간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달라이 라마가 이런 내용의 '티벳민족지배안'이 담긴 성명서를 마련했다고 3일 보도했다.

티벳망명정부 의회의장 삼동린포체는 1일 "홍콩식의 1국2체 제방안을 부분적으로 티벳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티벳망명정부가 구상하는 티벳민족지배 방안은 외교와 국방은 중국정부가 맡고, 경제·사회·문화·교육정책은 티벳이 권한을 행사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달라이 라마는 40년만에 중국을 방문, 불교성지인 산시성 우타이산에서 강택민 주석과 만날 예정이다.

오종욱 기자

3만여 불자 국난극복 결의

삼광사 창립 29돌…실직자 돕기등 행사

부산 삼광사(주지 덕수) 1일 지관전 불교문화회관에서 창립 29주년 기념 경제난 극복과 국민화합 대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천태종 총무원장 운덕스님 비롯 3만여 불자가 동참해 국난극복의 의지를 모았다. 특히 이번 법회는 그동안 열려온 경제난 극복기원 법회중 전국에서 대규모여서 관심을 끌었다.

기념법회에 이어 유치원생들의 재롱잔치, 합창단의 음성공양 등의 문화행사와 사회복지성금 및 실업자 돕기를 위한 알뜰장터가 이어졌다.

한편 삼광사는 69년 창립법회 이후 총부지 3만5천평에 건평 6천여평의 규모를 갖춘 사찰로 문화, 포교, 교육 등 부산 불교계에서 중추적 역할을 해나가고 있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전북불교총련 체육대회

전북불교총연합회(회장 도영·금산사 주지)는 1일 전주연초제조창 운동장에서 제1회 전북불교 총연합회장기 쟁탈 전북지역 불교대학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체육대회에는 군산, 남원, 익산, 전북, 화엄불교대학을 비롯 금산중·상고 교직원 및 가족등 1천3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축구, 삼각경기, 줄다리기, 민속경기(널뛰기 제기차기 등), 대동한마당등을 비롯 참생명살리기 서명운동(낙태반대운동)을 펼쳤다.

김중근 기자

숭림사 중창불사회향 25일 만등불사 대법회

전북 익산 숭림사(주지 지광)는 25일 중창불사 회향식 및 만등불사 대법회를 봉행한다.

90년부터 시작된 숭림사 중창불사는 8년에 걸쳐 보광전(보물 825호) 정혜원 우화루 나한전 영원전 보수및 범종각, 산신각, 요사채인 안심당 등을 신축했다. 또 진입로 포장, 답장, 석축공사등 주변을 정리했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대한불교삼론종 총무원 청사이전 및 개원 대법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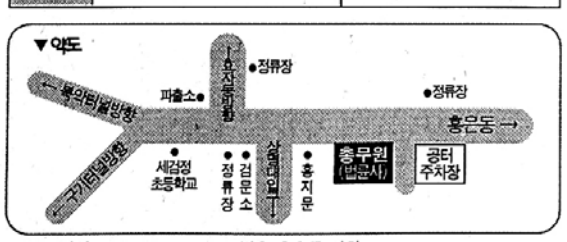
그간 본종 총무원이 지방에 주재하고 있어 교계 유관기관이나 단체의 행사나 포교활동에 적극 동참하지 못한점 깊이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총무원 이전을 계기로 종단 전 임직원은 심기일전하여 종단 중흥과 교계 발전에 적극 이바지 할 것을 천명합니다.

대한불교 삼론종 총무원 이전 안내

본종 총무원을 아래 장소로 이전하오니 유관기관이나 단체에서는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일시	불기2542(1998)년 11월 10일 11시	
장소	신(이전장소) 총무원	전총무원
	서울 서대문구 홍은2동 4-8	충북충주시 교현2동 539-21
전화	(02)3216-0165	(0441)44-3000
FAX	(02)3216-0166	(0441)845-5150



● 노선버스 : 8, 8-1, 522-2, 59번은 홍은동 방향
135, 135-1, 2, 3, 136은 효자동 방향

종정 승정 부종정 승정원장 총무원장 대산 지암 지인 청진 대성 지덕 혜대 대대 각석 봉산 겸도 연봉 봉봉 봉정 운마 청일 월진 호화 봉수 해아 봉광 봉수 경운 진봉 도봉 운봉 혜관 봉심 월범 연심 담담 강화 현지 원우 성치 자대 성태 정지 추대 지지 법청 혜택 신지 대

교리연구원장 문화부장 문화원장 수지 련부장 부수 선장 교부 학원장 교육원장 감부 찰원장 호부 법원장 포부 교원장 포교 원장 부재 정원장 부사 정원장 중앙종회의장 홍보회장 사무부장 교육부장 총무부장 부원장 종무원장

삼론법비구니회장 삼론법보후원회장 삼론교구종무원장 경남교구종무원장 경북교구종무원장 충남교구종무원장 충북교구종무원장 경기교구종무원장 강원교구종무원장 울산교구종무원장

대한불교 삼론종 총무원 원장 이 혜 공

"주지취임식대신 노인잔치로"

공주 마곡사 어울마당 2천여 노인 흥겨운 하루

"내년에도 또 옵시다." "두말하면 잔소리지…."

공주 마곡사(주지 진허)가 10월 30일 마련한 '98어울마당 노인위안 잔치에 참석했던 두 할머니가 헤어지기 아쉬운 듯 법당을 향해 연신 합장례를 올리면서 이렇게 말했다.

마곡사 창건 이래 지역 노인을 초청, 경내에서 노인잔치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 그러나 주민들이 무엇보다 뜻깊게 생각하는 것은 새로 부임한 주지스님이 취임식 대신 지역 어르신들을 모시고 인사를 했다는 점이다. 이를 두고 지역 노인들은 "큰스님은 큰스님인가봐요." "보잘것 없는 우리들에게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다니…"라며 주지스님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주지 진허스님은 "지역주민들에게 마곡사를 우리 절이라고 생각토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노인위안잔치의 취지를 설명했다.

트럭을 타고, 자전거를 타고 또는 걸어서 마곡사를 찾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먼저 부처님을 찾아 삼배를 올렸다. 대부분 노인들이 오랫만에 마곡사를 찾았다고 털어놓았다.

심봉수 할아버지는 "이런 자리가 없었다면 이생에는 마곡사를 찾지 못했을 것이다"며 "젊었을 때는 자주 왔었는데 지금와 보니 절이 많이 변했다"고 회고했다. 이날 행사에는 마곡사 인근 사곡면등 4개면을 비롯 각 말사의 노인불자 2천여명이 경내를 가득 메운 가운데 4시간 동안 성대하게 진행됐다.

최윤희 무용단의 한량무, 태평가, 살풀이가 이어지는 가운데 노인들은 덩실덩실 어깨춤을 추며 흥겨운 어울마당의 주인공이 됐다. 특히 사회자의 맛깔스런 재담에 노인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폈다. 특히 지역 노인들이 참가하는 노래자랑 시간에는 박수를 치며 흥겨워했다.

마곡사는 이날 회향식에서 권옥경(99) 할머니를 비롯 각 지역 최고령 노인 5명에게 위로금을 전달하고 매년 노인위안잔치를 개최할 것을 약속했다. 김중근 기자 (gamja@buddhapia.com)



◇공주 마곡사는 주지 취임식 다신 노인 위안잔치를 열었다.

국립공원 오수 44% 무단방류

국감서 조성준의원 주장
사찰 오수발생율 2.7%

국립공원내 오수가 44% 이상 무단방류되고 있으며, 이중 사찰 오수는 2.7%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3일 국회 환경노동위에서 조성준의원은 국립공원관리공단 국감에서 "18개 국립공원내의 건물에서 하루에 방류되는 오수량은 6만7천9백톤(t)이나 이중 정화처리되는 오수는 3만7천7백t에 불과 44.4%(3만1백t)가 무단방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오수정화시설 설치 대상업소 5백47개소 중 2백26개업소가 정화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오수를 무단방류하고 있다고 조의원은 밝혔다.

또 국립공원내 건물에서 발생되는 오수는 일반건축물이 43.9%로 가장 많고 식품접객업소 28%, 숙박업소 23.7%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찰(2.7%) 목욕장업소(1.1%) 산장(0.2%) 등은 매우 적은 양의 오수를 발생시켰다. 조의원은 이밖에 국립공원 사법경찰제를 선진국의 '공원경찰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국보 미륵사지석탑 붕괴 위험

기단부 기둥 균열…지반 보강등 대책 절실

익산 미륵사지 석탑(국보 제11호)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붕괴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도청 의뢰로 탑의 안전 진단을 맡은 한국건설안전기술원은 4일 미륵사지 관리사업소에서 개최된 '미륵사지 석탑 학술보고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다음 달 최종 용역조사 결과가 나오면 공청회를 거쳐 12월말 최종 복원안을 확정키로 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권경원 책임연구원은 "249개의 탑재에 대해 등급을 나눈 결과 양호한 상태가 76개, 보통 45개, 불량 128개로 조사됐다"면서 "외부에서 큰 충격이 가해지지 않는 한 당장 붕괴 위험이 높은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오강호 수석연구원은 '구조상태를 고려한 조치 방안'에서 "일부 기단부 기둥에서 압축 파괴로 보이는 균열과 육안으로도 확인되는 경사진 기둥이 발견됐다"며 "미륵사지가 구조적으로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탑은 그대로 놔두고 지반만 보강하는 것이 좋다"고 주장했다.

장경호 경기도립박물관장(문화재 전문위원)은 "석재의 노화(피로도)는 외부 계측이 주로 이뤄지는 용역사의 비파괴 검사만 가지고는 판단하기 어렵다"며 "석탑의 겉부분이 많이 손상됐어도 내부 석재는 잘 보존된 경우가 많으므로 철저한 조사가 보강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대전 춘천 포교거점지역 지정

조계종 전법의 해 조직위
온양 옥련암은 시범사찰

조계종 전법의해 조직위원회(위원장 월주)는 4일 대전과 춘천을 포교 거점지역으로, 온양 옥련암(주지 종인, 마곡사 말사)을 포교 시범사찰로 지정했다.

이로써 포교거점지역은 지난해 지정된 인천 목포를 포함해 4곳, 포교시범사찰은 7곳으로 늘어났다.

이번에 지정된 대전지역은 중앙행정부서의 이관으로 행정의 중심지와 지방화시대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음에도 지역불교를 이끌 역량이 비축되지 않아 포교취약 지역으로 분류되던 곳이다. 춘천지역도 도청소재지로 강원지역의 중심이지만 지역불교 역량이 미약한 실정이다.

조직위원회는 두 지역의 교구본사인 마곡사와 신흥사에 전법책임과 지원을 요청해 포교활성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춘천지역에는 지역사찰 연합체를 구성하여 전법도량을 개설할 계획이다.

조직위원회는 새로 지정된 전법도량에 이달 중 지원금을 전달하고 내년 봄 전법도량 현판식 및 순회법회를 봉행할 계획이다. 정성운 기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 추진키로

종교계 사회복지협의회

종교계사회복지 대표자협의회는 4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제1회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7월1일 제정된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을 폐지시키고 이를 보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을 새로 제정키로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번 심포지엄은 지난 6월5일 8개 종교계(9개 단체)가 함께 하는 협의회를 발족시킨 후 실직노숙자 대책을 위해 정부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 온 종교계가 종교사회복지사업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폭넓은 의견교환과 정보교류를 이루는 계기가 되었다. 김재경 기자

봉은사 신도 1백여명 승가대 항의 방문

봉은사 주지 임명과 관련, 봉은사 신도들과 중앙승가대동문회간의 마찰이 계속되고 있다.

봉은사신도회와 봉은사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신도 1백50여명은 2일 중앙승가대학을 방문, 승가대동문회와 일부 학인들의 10월30일 봉은사 진입시도에 항의하고 "또다시 불법적인 사태가 발생할 때에는 강력히 대처나갈 것"임을 밝혔다.

이와관련 중앙승가대동문회(회장 효종)는 "신임 주지 임명 전까지 무상스님이 주지직을 수행하는 것이 마땅하며, 10월 30일 상황은 무상스님이 정당한 권리행사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이은자 기자 (ejlee@buddhapia.com)

북한산 사찰출입금지
인근 사찰-신도들 반발

북한산 국립공원내 사찰에 차량출입이 전면 금지돼 사찰과 신도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삼성암 주지 법보스님은 "얼마 전까지 토·일요일 등 등산객이 많을 때만 출입을 통제해오다, 최근 들어 평일에도 지정차량 이외의 모든 차량의 출입을 금지한 것은 신도들의 신행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립공원관리공단의 한 관계자는 "자연환경보존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는 만큼 불자들의 양해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재경 기자

동국대생 1천명 농성
재단 '무효 절대불가'

송소구 총장 재선출과 관련, 동국대 총학생회(부학생회장 이미성)는 3일 중앙도서관 앞에서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재단의 일방적 총장낙점 전면무효화 동맹휴업 성사대회'를 갖고 총장실을 점거, 6일 현재까지 농성 중이다.

또 교수회와 교직원노동조합도 이사회의 송석구 총장 일방적 재임결정에 반발, 10월29일부터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5일에는 교수회와 직원노조, 총학생회, 대학원총학생회, 송재운 재단사무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재단이사회의 비민주적 총장선임 결정에 대한 공개토론회'가 열렸으나, 재단이사회측이 '무효화 절대불가' 입장을 고수,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한편 교수회는 총장직선제를 추진키로 하고, 11~13일 후보 등록과 함께 오는 12월9일 총장선거를 실시한다. 김정은 기자 (jekim@buddhapia.com)

목탁소리

50만원 든 한국불교 알리기

정 성 운
〈춰재1부 차장대우〉

'저비용 고효율', IMF시대가 아니더라도 기업과 가정 등 경제주체는 물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체라도 외면할 수 없는 주제이다. 더구나 지금은 허리띠를 바짝 조여야 할 때, 이런 가운데 저비용으로 한국불교를 여러 나라에 알리는 성과가 나타나 화제가 되고 있다.

조계종총무원 사회부(부장 일화스님)는 지난 9월 미국, 영국, 프랑스의 주요대학 도서관과 박물관 38곳에 영문판 〈코리안 부디즘, Korean Buddhism〉을 우편발송했다. 미국 예일대학, 하버드대학, 스탠포드대학 도서관, 의회도서관, 스미소니언박물관, 영국의 옥스퍼드대학, 캠브리지대학, 런던대학 도서관, 프랑스 파리 1, 3, 4, 7 8, 10대학 도서관(인문학에서 강세를 띠고 있는 대학) 등이다.

책자를 받아본 곳에서 감사편지를 보내는 등 좋은 반응을 나타냈다. 워싱톤대학 도서관에서는 "학생들과 학교의 여러 기관에서 연구자료로 소중히 사용될 것"이라고 알려왔다. 옥스퍼드대학 도서관에서는 "발간된 책 가운데 구입할만한 서적이 있으면 목록을 보내달라"고 조계종 총무원에 요청했다.

한국불교를 컬러사진과 함께 소개한 〈코리안 부디즘〉의 발송비용은 약 5만원, 책값은 1만2천원으로 모두 합쳐 50만원이 채 들지 않았다. 지난해 5월 발행된 〈코리안 부디즘〉은 한국불교의 역사와 미래, 통도사 해인사 송광사 조계사 불국사 석굴암 금산사 법주사 범어사 화엄사 직지사 정암사 등 사찰, 불교예술 등을 소개하고 있다.

사회부 홍민석계장은 "한국불교 존재 자체를 알려야겠다는 생각에서 이 일을 기획하고 실행했다"고 밝혔다. 사회부는 성과가 좋음에 따라 2차로 50개 해외기관을 선정, 〈코리안 부디즘〉을 보내 한국불교 알리기를 계속할 계획이다.

조계종총무원장 선거로 견지동 주변이 어수선하다. 서로 헐뜯는 양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그래도, '50만원으로 한국불교 알리기' 소식을 전해주며 탄식이 잦아들길 바란다. (swjung@buddhapia.com)

뉴스 & 뉴스

조계종 신도단체 등록접수

조계종단 산하 전국규모의 신도단체가 되려면 포교원에 단체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조계종포교원은 10일 신도단체 등록을 공고하고 30일까지 전국단위 신도단체 등록 접수를 당부했다. 기존의 등록단체도 구비서류를 갖춰 새로 신청해야 하며, 미등록시 조계종단 산하 신도단체로서의 효력을 상실한다.

신도법에 의하면, 전국단위 신도단체를 특별시 또는 2개 광역시, 3개 도 이상에 30개 이상의 지부를 두고 동일한 명칭과 규약 아래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곳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성운 기자

14일 화엄사상 학술강연

탄허불교문화재단(이사장 전창열)은 탄허대종사 열반 15주기를 맞아 14일 세종문화회관에서 화엄사상 학술강연회 및 〈화엄경론회석〉 출판기념회를 갖는다.

'화엄사상 학술강연회'에는 △이통현장자의 화엄사상(각성스님·삼일선원 지도법사) △화엄사상 연구와 탄허대종사(정병삼·숙명여대 교수) △한국역사와 화엄사상(최병헌·서울대 교수) 등의 주제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02)237-4438 김정은 기자

장기수와 위안부의 만남

불교장기수후원회(회장 지원) 장기수회원 7명이 14일 나눔의집을 방문, 종군위안부 할머니와 만남의 시간을 갖는다.

장기수들은 1박2일 동안 정신대할머니들과 함께 생활하며 영욕의 세월에 대해 환담을 나눌 예정이다. 도필선 기자(psdo@buddhapia.com)

징용희생자 유골 천도재

나눔의집(원장 혜진스님)은 3일 연화법당에서 일제치하에 중국 해남도에서 강제노역을 하다 살해·매장된 영령에 대한 천도재를 봉행했다.

이날 천도재에서는 해남도 철광에서 강제노역을 했던 장달웅 옹이 지난 2월 해남도에서 조계사로 유골을 옮겨 봉안한 것을 자화유골연구소가 자화사리(사리형태로 가동한 자화유골)로 가공해 나눔의집에 안치하는 의식도 봉행됐다. 김재경 기자

사명대사 친필문집 공개

사명대사 유정스님(1544~1610)의 친필 문집 〈용담유고(龍潭遺稿)〉가 처음으로 공개됐다.

초서 23장, 행서 14장 등 모두 37장으로 이뤄진 이 문집은 사명대사가 임진왜란이 끝난 뒤인 1599년 용산(지금의 경북 안동시 예안면)에 머물던 중 함께 의병을 일으킨 의병장 임흘선생의 한시(漢詩)에 감복, 옮겨 적은 것이다. 중천 임씨 선무랑공파 종친회는 4일 〈용담유고〉를 밀양시에 기증했다. 김정은 기자

訃 告

海印叢林 第12敎區 本寺 海印寺
前 住持 東光堂 明振 大和尙께서
佛紀 2542년 11月 1日 午後 2時
世緣이 다하여 入寂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永訣日時 : 佛紀 2542年 11月 5日 午前 11時
■ 永訣式場 : 伽倻山 海印寺
■ 茶 毘 場 : 海印寺 蓮華台

大韓佛敎 曹溪宗
海印叢林 葬儀委員長 普 光

東光堂 明振大和尙 海印叢林葬 葬儀委員會

증 명 : 법전, 혜암
지도위원 : 일타, 도견, 지관, 송월, 고봉, 정원, 운범, 일미, 천제, 도선, 종진, 중천
호 상 : 봉주
장의위원장 : 보광 장의부위원장 : 원융, 수진
장의위원회 : 원명, 대일, 성진
원택, 순민, 각안, 혜관
원각, 원경, 지원, 혜원, 현종, 도허, 법산, 청우, 원진, 원해, 지명, 영주, 보행, 지환, 청봉, 정진, 원효, 환주, 순민, 원인, 반야, 인각, 지산, 환암, 태허, 벽해, 성후, 해일, 능도 혜오, 현조, 정휴, 학유, 돈기, 정각, 법연, 원천, 원영, 성광, 지담, 장일, 성법, 원효, 일화, 혜범, 효남, 인효, 태성
성원, 혜안, 불필, 법모, 묘관, 청조, 성월, 현일, 자원, 묵연, 지원, 종인, 선운, 법계, 종각, 행석, 보덕, 원만, 정견, 묘각, 학봉, 성원, 정연, 선문, 직묵, 구봉, 경현, 응진, 평타, 은규, 묘혜, 원정, 능현, 원해, 효정, 수미, 명준, 동성, 정법, 민성, 용환, 선재, 용현, 지해, 지훈, 현오, 도영, 보은, 묘안, 수현, 혜선, 수만, 일운, 자원, 선각, 상용, 정수, 보선, 도정, 정지
집 행 부 : 도 감 - 종성, 원타 법 법 - 정우,
의 전 : 선용, 무관
지 빈 : 법장, 해월, 수경, 영도, 선원대중, 강원대중, 율원대중, 권부현, 노재정, 삼매화, 해인심
재 무 : 수완, 수인 접 수 : 무문, 여적
섭 외 : 정재, 경성, 조영신 경 호 : 심우 원 주 : 정오
영 선 : 김용재, 황병선, 변막조, 정종진, 김종열, 박기석, 임재천, 주삼용, 강진웅, 김만석, 성계웅, 노태영, 김인화
문중대표 : 천운
은법상좌 : 덕운, 보타, 법륜, 무학, 일륜, 길상, 선해, 석우, 견불, 혜원, 혜관, 길남, 해일, 덕해, 해종, 일라, 선일, 광해, 석철, 성묵, 보운, 덕진, 석전, 대일, 원일, 현지, 해광, 보일, 지선, 지밀, 보문, 지정, 지광, 해웅, 앙지, 정진, 동운, 길장, 법장, 진우, 상현
손 상 좌 : 선각, 선지, 선관, 진운, 기철, 지운 재가제자 : 혜인, 보해, 해진, 길조

◆문의 및 연락처 : 해인사 ☎ 0599-931-1011,2,5 팩스 0599-931-1010
東光堂 明振大和尙 海印叢林 葬儀委員會

인사말씀

大韓佛敎 曹溪宗 第12敎區 本寺 前住持이신 東光堂 明振大和尙 永訣式 및 茶毘式을 海印叢林葬으로 佛紀 2542年 11月 5日 宗團의 元老스님 및 大德스님과 在家佛子 및 各界 人士 諸賢을 모시고 엄숙히 奉行하였습니다.

公私間 多忙하심에도 時間을 아껴 參席하여 주심에 대하여 眞心으로 感謝드리오며, 일일이 찾아 뵙고 人事드림이 도리인줄 아오나 우선 紙面을 빌어 심심한 感謝의 人事를 올리오니 慈悲로운 마음으로 攝受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원장 출마를 선언하며

一. 안정과 화합의 기조 위에서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심부름꾼이 되겠습니다.

한국불교는 지금 21세기 새로운 천년이 열리는 시대의 벽두에서 선정과 지혜의 힘으로 역사를 장엄할 힘있는 불교로 거듭나느냐, 아니면 역사의 뒤안길에 떠밀려 혼란과 안일의 낡은 구태를 반복하느냐 하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문명사의 대전환이라 일컬어지는 역사의 조류는 그 변화의 흐름이 급격하면 급격할수록 우리들 불자대중에게 역사구원의 영겁기단이 될 교단 수호의 결연한 의지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끝없는 자기개혁과 중생회향의 대승원력을 요구합니다.
그간 우리 종단은 94년도 개혁불사를 통해 분규의 이미지를 떨쳐내고 안정과 화합의 바탕을 이루어 왔으며, 21세기 인류구원의 종교로 도약할 교단의 제도적 터전을 다져왔습니다. 그러나 개혁은 결코 일과성 행사에 그쳐서도 안되며 작은 성과에 만족하여 정체의 길에 안주해서도 안됩니다. 개혁은 과거의 낡은 관행에 대한 끊임없는 반성을 통해 꾸준히 이어져야할 발원과 정진의 길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우리는 지난 4년 종단이 이룩한 개혁의 성과를 송두리째 부정하고 과거로 돌아가려는 입장과 개혁조급증을 넘어서서 안정과 화합의 기조 위에서 꾸준히 보다 나은 미래를 기획하고 전망하는 개혁만이 바른 개혁임을 확인하는 바입니다.
이에 본인은 닦은 바 모든 공덕을 깨달음과 역사에 회향하라는 불조의 부촉과 안정과 화합 동사섭의 정신으로 개혁불사를 반석 위에 올려놓길 바라는 종도들의 뜻을 받들어 다시 종단 운영과 개혁의 심부름꾼 노릇하기를 청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종단 운영의 공과에 대한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위로 종단 원로 대덕스님들을 모시고 중진들의 경륜과 참신한 뜻을 결집하며 종도 대중과 손맞잡고 21세기를 열 영광된 조계종단 건설에 온 몸 바칠 것을 삼보전에 두 손 모아 다짐하는 바입니다.

一. 역사의 부름과 대중의 여망에 부응하는 불교건설에 앞장서겠습니다.

한국사회는 현재 국제통화기금체제라고 하는 일찍이 없던 어려움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대중은 세기말의 불안과 미래에 대한 기대, 희망과 절망의 소용돌이 속에서 정신적 혼돈을 겪고 있으며 분단현실 등 갖가지 갈등구조 속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불교는 이 땅의 지나온 역사 속에서 늘 국난을 극복하는 진리의 힘이 되고 사회의 병폐를 다스리는 법의 약이 되어 왔습니다. 불교는 고대국가에서 국민통합의 중심이념이 되었고, 고려건국의 사상적 기초가 되었으며 때로 외침을 막는 호국의 칼이 되고 민족정기를 지키는 사상의 보루가 되어왔습니다.
오늘날 나라의 위기 상황과 고통현실 속에서도 국민대중은 불교로부터 위기를 극복해 낼 용기와 지혜를 바라고 있으며 고난의 현실을 타개해 낼 불교교단의 사회적 실천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머뭇거리거나 지체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교단의 온 역량을 기울이고 불교대중의 힘을 한 데 모아, 국민대중에게 지혜와 삶의 용기를 주며 중생회향(衆生廻向)의 실천으로 이 땅을 해탈의 공동체로 만들어 나갑시다.
이제 소납이 삼처회향(三處廻向)의 불사에 앞장서길 지심으로 발원하는 바이니 종도 대중은 함께 힘을 모아 삶의 짐에 눌려 지친 국민대중에게 힘을 주고 미망과 절망 속에 헤매는 이에게 지혜와 희망을 주는 불교를 세워 나갑시다.

一. 지난 개혁의 성과와 전통을 이어 못다 한 개혁의 과제를 이루겠습니다.

불교가 사회 구원과 중생회향의 건강한 불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불교대중의 자각과 교단의 간단없는 개혁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해방이후 우리 교단사를 돌이켜 보면 불교의 사회적 실천역량이 확대되는 과정은 바로 교단개혁과 자주화 실현의 과정이었습니다. 5,60년대 불교정화운동은 왜색불교의 잔재를 청산하고 청정한 승풍과 수행가풍을 진작시켰으며, 80년대 10·27 불교법난 이후 불교자주화운동은 교단의 자주권수호의 운동이자 사회민주화운동에 합류했던 대중적 실천이었습니다. 그리고 94년 우리가 이루어 낸 개혁불사는 자주적 교권수립의 실질적 체험이었으며 민주적 교단운영을 법적 제도적으로 확실하게 보장해낸 최초의 경험이었습니다.
본인이 총무원장 소임을 맡아 행했던 지난 4년의 교단 운영은 94년도 개혁입법을 제도적으로 정착하고 개혁내용을 실천해 가는 지난한 과정이었습니다. 또한 본인이 그간 꾸준히 제창해 온 '깨달음의 사회화 운동'은 정화운동이 이루어 낸 교단의 보리회향을 중생회향과 하나되게 하는 사상적 기초와 실천의 토대를 마련해 왔습니다.
해방이후 교단사가 보여주듯 교단의 멈춤 없는 개혁과 자주역량의 수립이 없이는 이 땅을 정토화 하려는 종도 대중의 대승원력은 실현될 수 없습니다. 지난 4년 우리가 성취해낸 개혁의 성과를 계승 발전시키고 아직 이루지 못한 개혁 내용을 보다 더 결집된 힘으로 실천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먼저 우리는 교단운영체계를 말사와 본사, 본사와 중앙종무기관이 유기적 일체를 이루어 서로 협의하고 조언하는 민주적인 종단운영체계가 되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가겠습니다. 선과 교, 선과 사회적 실천의 하나됨을 위해, 보살사상의 정립에 힘쓸 것이며 선풍진작과 교학진흥을 위해 수행기관, 교육기관에 최우선적인 지원을 계속할 것입니다. 선의 대중화, 전통교육의 현대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승려노후복지를 위해 제도적 방안을 강구해 갈 것입니다. 교단의 사회복지시설을 확충하여 사회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교단운영체계를 정비해 가겠습니다. 대장경의 전산화를 계속 추진함과 아울러 불전의 국역, 불교사상의 현대적 해석작업에 종단의 사상적 힘을 기울이며 꾸준히 지원을 보낼 것입니다.
본말사 사찰운영위원회와 신도회, 중앙신도회의 활성화를 통해 재가불자가 종단운영과 개혁불사에 동참하도록 할 것이며 신도 스스로 전법의 주체가 되게 하여 포교의 활성화를 꾀하겠습니다. 각종 법인 사설사암, 도시포교당 등을 교단의 제도적 사상적 지도권 안에 수렴하여 함께 대단합의 거대종단을 꾸려감으로써 조계종단의 물적 사상적 역량을 증대시켜갈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개혁에의 의지는 한 두 사람 한 두 단체의 힘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모든 종도 대중이 함께 힘을 합하지 않으면 결코 보람된 개혁의 열매는 맺어질 수 없습니다. 제가 한 몸 바쳐 앞장서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동참하여 21세기를 향도할 불교의 산 면목을 국민대중 앞에 나투어 보입시다.

一. 21세기를 향도할 불교의 도약을 위해 밑거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21세기 새로운 문명시대는 고도 과학기술사회, 정보화사회로 특징지어집니다.
그리고 지구촌화, 세계화의 도도한 물결은 지금 국민국가간의 닫혀진 벽을 나날이 허물고 있으며 세계는 하루 생활권으로 좁혀져 가고 있습니다. 민족 내적으로도 통일을 향한 역사의 도정은 그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민족통일시대 21세기 신문명시대에 우리는 나라의 통일에 기여하며 대중의 삶과 역사를 향도하는 불교의 일대도약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무념(無念)의 종지를 통해 정보의 과잉으로부터 인간소외를 막아내고 적극적으로 불교사상을 정보화함으로써 지식정보사회의 바른 방향을 이끌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광대무변한 불교의 자각정신으로 역사의 대전환기를 용기 있게 맞이하며 그 전환의 격동을 능동적으로 이끌고 대처함으로써 불교가 미래 신문명 사회를 주도하는 창조적인 지혜의 길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제가 이제 서원 세워 그 길에 밑거름이 되고자 하니 종도 대중은 서로 손잡아 개혁불사의 서원을 같이 실천해 가도록 합시다.
이러한 우리들의 서원을 시방의 모든 부처님은 증명하시고 옹호성중은 보살피시어 보살도 실천의 앞길에 온갖 장애가 없게 하여 주시고 끝내 이 땅이 풍요와 번영의 땅, 해탈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무 마하반야바라밀

불기 2542년 11월 3일

대한불교조계종 제29대 총무원장 후보 송 월 주 합장